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6월 30일(음력5월 13일) 수요일 (주간) 제480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김선일의 죽음…산 자의 비통함

아름다운 청년 김선일이 죽었다. 성실하고 갸륵한 성품을 지닌 청년이 처참하게 피살됐다. 세상을 향해, '나는 죽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절규를 남기고 갔다. 두 번 다시 그 화면을 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절규였다. 살아남은 자들의 뇌리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비통한 모습으로 떠났다.

그 누구에게도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공포와 억압 속에서 억울하게 자행된 살인은 그 비극성을 감당할 말이 없다. 인간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싶다.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족속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

어떠한 논쟁도, 어떠한 명분도 목숨보다는 덜 중요하다. 순결한 영혼을 지닌 청년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니 모든 논쟁이 부질없어 보인다. 파병이니 반대니 평화 따위의 구호가 참으로 허망하다. 구호와 이념이 인간을 저렇게도 잔혹하게 만드는구나. 저렇게 처절한 절규를 묵살할 수도 있구나. 차라리 영화의 한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실제상황이었고 소박한 꿈을 실현하려던 청년은 처참하게 죽었다. 남은 자들은 대책 없는 공황 상태에 빠져 의식이 혼미하다. 사지가 떨려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다.

한 우주가 소멸했다. 인간은 개개인이 우주이다. 김선일이란 우주가 처참하고 억울하게 사라졌다. 그가 남긴 절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우리는 또 부질없는 논쟁으로 망자를 욕보이는 짓을 자행하지 않을까.

인간세상은 갈수록
잔혹성의 경연장
어쩌자고 어쩌자고…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이 다시금 저릿하게 다가온다. 함부로 죽이는 일에 인간은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다. 때로는 명분을 내세워 죽이고 때로는 이유 없이도 죽인다. 미물은 물론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다지 광포해졌는가. 어쩌자고 인간 세상이 잔혹성의 경연장이 되어가고 있는가.

죽음은 결국 살아남은 자들에게 부여하는 의미이다. 죽음을 통해 자신과 주변의 삶을 살펴보라는 경고이다. 어려운 환경에도 너그러움과 성실성을 넉넉하게 간직했던 서른 네 살 총각 김선일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입가에서만 맴도는 사랑과 평화가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세상이 아닐까. '당신들의 목숨이 소중하듯이 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그의 절규가 귀에 쟁쟁하다. 수십 년 면벽 수행한 선객의 목소리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친다.

상생(相生)이란 말을 그저 듣기 좋은 구호로만 쓸 일이 아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놓는 장식물이 아니다. 인간은 똑같은 용량의 그릇이다. 더벅머리 노총각이 온몸으로 부르짖은 함성을 잊지 말자. 시대의 제물이 되어 산화한 청년의 얼을 잊지 말자. 자신과 세상을 성찰하는 아픈 추념의 시간을 갖자.

■이우상(소설가 · 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친환경불사 '원칙' 세우자

'해인사 불사 논란' 계기 시스템 마련 여론 높아

환경보호를 이유로 북한산 관통도로와 천성산 고속철 관통을 그토록 반대했던 불교계. 그런데 불사에 있어서만큼은 환경문제에 대해 너그럽다. 자연히 불교환경운동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근래 들어서는 '불교계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환경에 대한 불교의 '이중적 잣대'가 계속될 경우 불교의 신뢰성마저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해인사 불사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는 친환경적 불사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해인사 스님들과 불교계 17개 단체는 6월 18일과 21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인사가 추진하고 있는 '팔만대장경 동판 복원 불사' '동판장경 판고와 신행문화도량 건립' '고불암 및 마장 일대 개발 추진 건' 등에 대해 환경 파괴와 수행환경 침해, 불교 위신 실추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불사 추진 시 사찰 내부에서부터 '사부대중의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즉 현재처럼 주지 스님의 뜻에 따라 불사를 추진하기 보다는 입안 단계부터 '사찰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사부대중의 공론이 담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종단 차원에서도 문화 · 환경 전문가가 참여한 가칭 '불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점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특히 이 기구를 종령 등으로 법제화해야 직접적인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부 시스템 마련뿐만 아니라 불사를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나 문화재위원회 등에 불교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해, 사회적 논의 이전 일종의 순화 작용을 해야 한다는 외부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일종의 불자환경지침서인 '불교환경의 제 21'를 기본 텍스트로, 출 · 재가 공히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중 · 장기적 환경마인드 확립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이병인 조계종 환경위원(밀양대 교수)는 "불사를 시작할 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돼야 하고, 불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환경문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찰환경기본계획서'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우 · 강유신 기자


만해 스님의 '삼국지' 번역 육필원고의 첫 장. 하얀선안 글씨는 만해 스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덧쓴 것으로 보인다.

만해 스님 '삼국지' 번역 육필 첫 공개

1939년 조선일보 연재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열반 60주기(6월 29일)를 맞아 지난 1939~40년 <삼국지>를 번역한 스님의 육필 원고가 처음 공개됐다. 정진현씨(서울 금천구 시흥동)가 소장하고 있는 이 육필원고는 양면지에 철필로 쓴 것.

만해 스님은 1939년 11월 1일부터 조선일보가 폐간된 1940년 8월 11일까지 <삼국지>를 번역해 모두 281회 연재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육필원고는 172회까지다.

만해 연구가 김재홍 교수(경희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부설 만해학술원장)는 "<삼국지>번역원고에서 스님 한글 글씨의 특징이 보인다"고 밝혔다. 백담사 만해마을 연구실장 김광식 교수(부천대)도 "열반 60주기를 앞두고 만해 스님의 친필을 대하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17대 국회 정각회 결성 '급물살'

7월 중순 첫 법회 … 회장에 이용희 의원 유력

불자의원들의 신행모임인 정각회가 17대 국회에서 결성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불자의원들은 6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각회 구성 예비모임을 갖고, 회장에 이용희(우리당), 수석부회장에 박세일(한나라당), 부회장에 강창일(우리당), 간사장에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을 17대 국회정각회 1기 임원단으로 추천했다. 또 창립법회는 오는 7월 중순경에 봉행하고, 추후 일정은 다음 주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양당 불자의원들은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정각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 회장 임기 2년을 기준으로 전반기는 원내 다수당인 우리당이, 후반기는 한나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은 "빠른 시일 내 불자의원 총회를 열어, 17대 정각회 1기 임원단 구성안 인준을 받아 곧바로 정각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개막

내달 5일까지, 학술발표 · 문화행사 등 다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 주최로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6월 27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개막돼 7월5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 현재와 과거'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개막식에는 공동대회장 명성, 카르마 렉쉬 쏘모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 스님, 지은희 여성부 장관, 열린우리당 이은경 의원, 문화관광부 한진수 종무실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차주상보 · 붓다뉴스 실시간 보도〉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한반도 평화 위한 南 · 北 · 美 종교인 회담

남한 북한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주제로 첫 3자회담을 갖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백도웅 목사, 미주종교평화협의회 공동회장 도안 스님(LA 관음사 주지), 북한종교인협의회 장재은 회장 등은 6월 30일 스리랑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기여할 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

강유신 기자

한형조 교수 새연재

'금강경 강의, 붓다의…' 이번호부터 20면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을 20면에 연재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가장 낯선 법'이라는 발상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필자 한형조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는 그동안 <왜 동양철학인가>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등을 저술했습니다.

'할'



그림 · 조태호

범추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Since 1991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동행포럼 · 가산학회
● 대주제 :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
동행포럼은 가산법인의 설립이념에 기초하여 인류의 遺産 중에 無上의 價値로 승인한 修行文化를 대중화하고 복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차 동행포럼 :
연구자그룹 산사 초청 수행체험
· 일시 : 2004년 12월 14일~12월 16일
· 진행 : 주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수행체험
● 전국연합연구공동체 가산학회
• 불교학분과 · 불교와 인문 · 사회과학분과 · 불교와 자연과학분과 · 불교예술분과

교육사업/불교원전전문학림삼학원
● 취지와 목적
佛教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佛陀의 慧明과 僧燈의 修行 佛統을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의 金堂.
● 교육과정
• 불교원전연구과정
선전강독 · 한국불교문헌강독 · 원전논서연찬
• 불교어학연수과정
불교한문강독 · 범어연습초급' · 티베트어연습 · 팔리어연습
• 기초학습과정 · 불교근본교설의 이해
● 상학원생 원서교부中 / 일반수강생은 수시접수 가능

학술 · 교화 · 출판사업
● 가산학회 편 「伽山學報」 창간호~10호, 제11호 근간
● 이지관 저 「가야산해인사지」 / 「한국고승비문총서」 총간(1~7권)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 / 「남북전육부율장비교연구」 외 다수
● 가산삼학총서
• v001 율장부 법해 역주 「고려판 선원청규역주」
• a002 논장부 임승택 역주 「베띠썸비다막가역주」
• s003 선종부 김영욱 역주 「진각국사어록」 (근간)
• e001 연구부 편찬위 「일찬년 한국의 선자식」 (근간)
• e002 연구부 정병삼 외 「지성의 광장」 (근간)
● 세미나 및 기획자료집
「韓國佛敎文化思想史」(상·하) 등 다수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본 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회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최다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치한 1차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현재 1 · 2 · 3 · 4 · 5 · 6권 출간, 7권 근간 ·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
• 전권금액 2,18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1,750,000원(우편료 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 ~ 60개월로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4가 26-6 TEL. 765-9602-3 FAX. 765-6673



재가불자는 한국불교의 한 축

불교에서 출가와 재가는 그 수행방법이 다를 뿐, 교단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불교계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여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계종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회법의 헌법에 해당하는 조계종 종헌에 종단은 사부대중으로 구성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구성원인 사부대중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법정신의 표현이다. 하지만 현실은 출가대중과 재가대중의 철저한 차별로 나타난다. 종단의 모든 법을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인 중앙종회가 전원 출가대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종무기관인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은 사부대중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평사원부터 차장까지 하급직 종무직은 재가대중이 맡고 국장, 부·실장, 원장은 출가대중이 맡고 있다.



교단의 어엿한 일원, 차별없어야
법·정서 따로…공동체의식 필요

물론 재가대중의 대표조직인 중앙신도회의 구성에 관하여 종헌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종단운영에 어떠한 참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종법인 신도법에 조계종의 모든 사찰의 주지는 반드시 신도회를 구성하고 사중의 소임자 스님들과 신도회의 임원들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공개를 비롯하여 사찰의 중요한 대소사를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사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개선책은 없을까? 지난 94년 종단 개혁 때 중앙종회의원 몇석을 재가자에게 할애 한다는 개혁안이 나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필자의 생각으론 중앙종회에 재가대중이 들어간다는 것이 종단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서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종헌에 명시된 신도대표기구인 중앙신도회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된 사항들을 중앙종회에서 받아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재가대중 대표기구의 위상을 강화해 주었다.

일단 가장 현실적인 재가대중의 종단과 사찰운영의 참여방식은 바로 '사찰운영위원회'다. 이 제도는 그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주지인사고과에 반영 하고, 재가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 방식이 바람직한 제도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출가대중과 재가대중이 그 격은 달라도 종단과 사찰의 운영에 더불어 함께 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가대중의 도덕성과 재가대중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어 그 격에 맞는 지위를 부여하고, 그것이 종단의 구조 속에서 온당한 역할분담으로 발전해야 늘 주변이요 대상이요 객체였던 재가대중이 사부대중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최연(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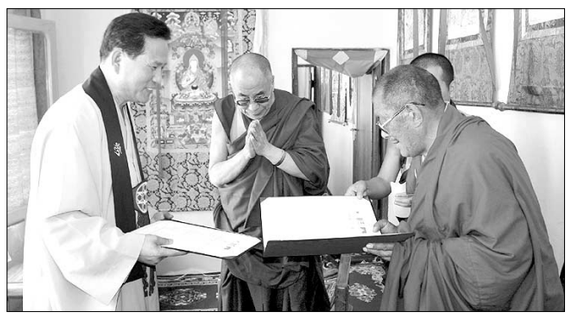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진각종 '세계화' 발판 마련

인도·티베트와 문화교류 확대 양해각서 교환

진각종이 티베트와의 교류를 계기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한국 밀교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한다.

8박 9일간의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월 18일 귀국한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정사는 24일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효암 통리원장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밀교의 금강계 37존 만다라 관정 의궤가 티베트 불교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으며 진각종의 수행의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진각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세계 밀교종단과의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진각종은 금강계 37존 만다라와 육자대명왕진언이 티베트 불교에서도 신봉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달라이 라마(가운데)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왼쪽)이 게쉐왕디 따보승원장과 정신·문화적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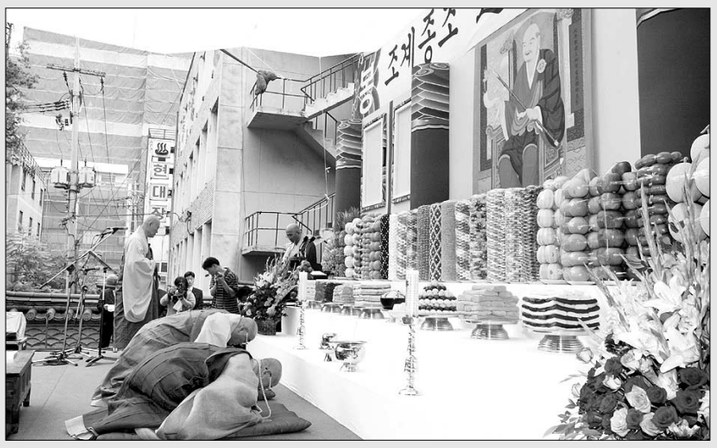
진각종은 이번 방문에서 따보승원과 정신적·문화적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것은 물론, 달라이 라마가 집전한 금강계 37존 만다라 관정법회에 참석하는 등 티베트 불교와의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

달라이 라마 등 티베트 불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갖은 진각종은 의궤, 수행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교감과 실질적인 교류약속을 이끌어냈다. 따보승원측은 금강계 37존 만다라 관정법회에 앞서 열린 가지불사 의식(관정의식을 집전할 금강아사리가 불보살로부터 가지가피를 받아 상응하는 의식)에 진각종 대표단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특수한 지위에 있는 스님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가지불사 의식을 진각종 대표단과 함께 집전한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진각종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티베트사원과의 인적교류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냈다.

진각종은 이번 방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티베트 불교와의 교학적 교류와 국제교류에 대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전담할 국제교류팀을 종단 산하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각종은 또 한국 일본 티베트 몽골 네팔 등의 밀교종단이 참여하는 세계밀교도대회(가칭)를 개최하는 등 밀교활성화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조 도의 국사 첫 다례재
19일 조계사, 법전종정 법어

조계종 종조 도의 국사 첫 다례재가 기일(음력 5월 2일)인 6월 19일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앞마당에서 봉행됐다. 다례재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후학들의 보은심(報恩心)은 진전사지(陳田寺址)를 복원하고 조계도량에서 법은(法恩)을 기리는 조주청다(趙州淸茶)를 올리노니 그 크신 은혜 깊이 새겨 전종도(全宗徒)들은 그 법(法)을 만고(萬古)에 길이 유전(流轉)케 할진져"라고 법문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 발족
7월1일 종령기구로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7월 1일 발족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6월 22일 제71회 교육원 회의를 열고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칭)' 운영과 구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원장 청화 스님과 향적(교육위), 무관(교재편찬위), 지안(역경위) 스님 등은 승가교육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7월 1일 발족하기로 결의했다. 총무원 산하 종령기구로 출범하는 추진위원회는 5명의 지도위원 등 20여명의 분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범어사 강원 신임 강주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 강사 월호(해인사) 스님 등 6명의 교직자 자격이 인정됐다. 조용수기자

공동대표의장 법장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

제7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공동대표 의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추대됐다.

종지협은 6월 21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7대 공동대표 의장으로 법장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법장 스님은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남동우 기자

직능 보궐선거 7월23일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선원 1명) 보궐선거가 7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보궐선거는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으로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제40조에 규정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스님에 한해 7월17일부터 19일까지 등록 받는다. (02)2011-1864 남동우 기자

제4차 포교연찬회 주요내용

"계층별 법회를 통괄하는 통일된 의례 및 귀의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각 연령대별 수준과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지도자 양성 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

6월 23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4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김병주 포교원 신도과장은 '계층단체·계층분야의 포교역량 강화'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현재 종단은 어린이법회에서 학생법회로, 학생법회에서 대학생 법회 등으로 이전하는 계층별 신행조직 이전체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이어 "각 신행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정체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포교활동에 주력할 새로운 인력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계층별 법회 통괄
통일된 의례 필요

학교교육현장부터
포교여건 개선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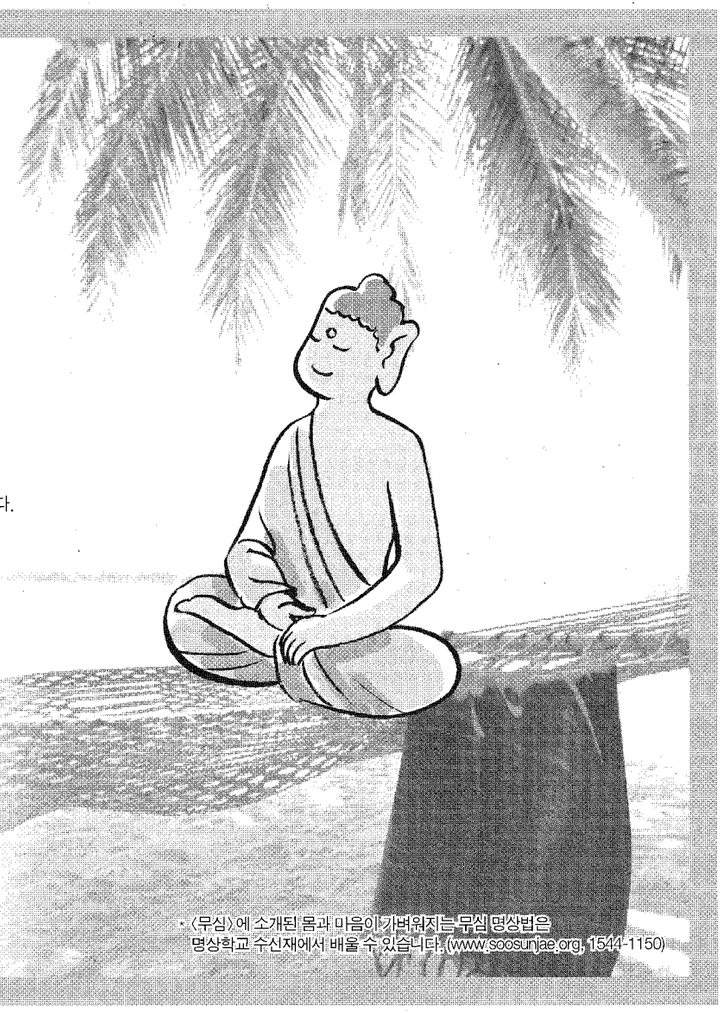
각 신행조직들의 사업 및 활동 등이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고 있다"며 "이는 종단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각 단위 사찰들의 실천과 지도자들의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송 광동중학교 교장 또한 '종단 포교 인력 육성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포교의 문제점은 새싹포교라 일컬어지는 학교교육에서도 드러난다"며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중 기독교 종립학교는 24.5%로 나타났으나 불교종립학교는 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또 "학교교육이 청소년들의 사고와 가치, 종교관 성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종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와 대안학교 등의 불교학교화에 종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기자

부처는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SBS-TV〉 "오픈스튜디오", 〈MBC-TV〉"즐거운 문화읽기" 등 20여 언론에 보도된 화제의 베스트셀러 !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유기농과 스파 갖춰놓고 잘 먹고 잘사는 게 웰빙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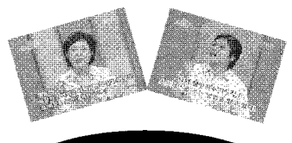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통쾌하고 시원시원한 마음 명상법,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별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MBC-TV & SBS-TV
"오픈 스튜디오"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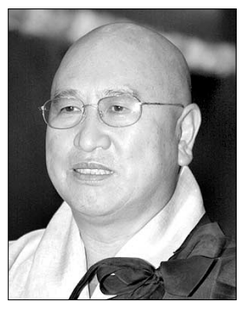
책 이 름 : 무심(無心)·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 자 : 문 화 영
가 격 : 9,000원

도서출판 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 〈무심〉에 소개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무심 명상법은
명상학교 수선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www.soosunjae.org, 1544-1150)

“신계사 복원 불사로 북녘동포 마음 열자”

신계사 복원 추진위원장 종상 스님



“신계사는 서기 519년에 창건돼 천오백년 가까이 우리 민족과 고난을 함께하며 이 땅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신계사 복원 불사는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이 거듭 태어나는 일이자, 민족정신이 되살아나는 민족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월 19일 신계사복원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된 종상 스님(불국사 주지 · 사진)은 “신계사 복원불사는 남북민간교류 사업의 모범이자 전통문화교류로써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의 불자대중은 역사적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민족통일의 상징이 될 신계사 복원불사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여법히 추진해야 합니다.”

스님은 평화와 화합, 자비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위대한 전통을 간직한 불교는 신계사 복원을 통해 이 땅에 민족평화와 통일의 꽃을 피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녘 동포들의 닫힌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이 신계사 복원불사의 목적”이라는 종상 스님은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남동우 기자

“종교자유 달라” 고교생 1인 시위

개신교 설립 D고, 예배 강요·전학 권유 물의



개신교 재단에서 설립한 서울 동대문구 D고교 3년생인 강의석(18 · 사진) 군은 6월 16일 학내 방송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예배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D고교는 18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방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건학이념을 부정했다며 전학을 권유하기로 했다.

강 군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매일 1시간씩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cafe.daum.net/whdrytkfkd)를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종립학교 ‘종교행위’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D고교는 학생들의 종교와 관계없이 학급 단위로 매일 예배를 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전교생 예배를 하고 있다. 학급예배의 경우 반번호 순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고 있어 타종교 또는 비종교인은 강한 거부감을 느낄 정도.

개신교재단에서 설립한 서울은평구 J여고, Y여고, 동대문구 H여상고 등에서도 강제적인 종교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박봉영 기자

해인사 대형 불사 축소

25일 산중총회서 환경·시민단체 요구 대폭 수용
각계 인사로 범국민추진위 구성 투명성 확보키로

해인사(주지 세민)가 최근 논란이 된 내원암 불사를 축소하고 신행문화도량 건설 추진 과정을 공개하는 등 환경 ·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렴키로 했다. 이는 해인사 불사 추진을 둘러싸고 문중 스님들과 불교계 17개 시민단체들이 재검토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해인사는 6월 25일 문중 스님 350여 명이 참석한 산중총회를 통해 불사의 전모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불사에 대한 불교환경단체와 신행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임회에 구성 △팔만대장경 동판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산중 공의제도에 따른 문중 스님들의 이견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한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 불사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과 요구사항들은 전문가와 스님들로 구성될 ‘협의기구’를 통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대장경 동판 복원 불사 역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추진되는 길이 열렸다.

이에 앞서 해인사 스님 78명은 6월17일 이번 불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해인총림 현안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계 17개 환경 · 시민 단체들은 6월 21일 불사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인사는 이에 따라 6월 23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형불사로 문제가 된 내원암(원래 250여 평) 신축은 당초보다 규모를 1개동 축소해서 건립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신행문화도량 부지는 8천 6백여 평이지만 건폐율은 18.8%에 해당하는 1천 6백 평에 불과하다. 그 밖의 평수는 현존 상가를 이전시키고 자연환경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합천=강유신 · 배지선 기자

한-몽 청소년 친선교류
8월11일 국제청소년 캠프

한 · 몽 · 일 · 러시아 청소년들의 상호교류를 돕기 위한 ‘2004 국제청소년 캠프’가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몽골 국립 나이람달 청소년센터와 국립공원 텔레찌 등에서 열린다.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가 주최해 승마 낙타 체험, 몽골 전통사찰 참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한국인 청소년 70명 등 총 1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나이람달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간의 국제교류, 몽골 전통문화 체험 등을 위해 1978년 울란바토르 인근에 설립됐다. 참가문의 (02)2278-8675 강유신 기자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이 故김선일 씨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천미희 기자

故 김선일씨 극락왕생 기원

조계종·재가연대 등 추모·성명서 발표

이라크 한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된 후 살해된 김선일 씨 사건과 관련, 조계종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는 6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은 성명에서 “생명을 담보로 전쟁의 당사자도 아닌 민간인 김선일 씨를 납치, 살해한 이라크 내 무장납치범들의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그 어떤 목적도 정당화시켜주지 못한다”라며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 만행을 저지른 이라크 테러집단은 전 세계인 앞에 그 죄업에 대해 참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 범어사 박물관장 경선스님, 재무국장 원범스님, 사서국장 정산 스님 등 범어사 스님들은 24일 故 김선일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대성스님은 “대한민국의 젊은 아들이 이국에서 유명을 달리해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 이러한 희생자가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관음사는 27일 대법당에서 故 김선일 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 · 남동우 기자

국립공원委 무용론 대두

상정안건 100여개 모두 가결 ‘거수기’

국립공원 개발안을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환경부 차관, 이하 국립공원위) 무용론이 대두됐다. 환경운동연합은 6월 22일 성명서에서 “지난 98년 국립공원이 환경부로 이관된 후 총 100여건의 공원개발사업이 국립공원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단 1건도 부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립공원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며 국립공원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실제로 국립공원위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2~3차례씩 12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논의한 55건의 현안 중 원안통과가 22건, 조건부 허가가 31건으로 부결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위 총20명의 위원 중 환경, 건교, 농림 등 정부부처 국 · 실장급 당연직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어 심의가 정부 편향으로 흐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환경담당 김용구 주임은 “6월 23일 열린 55차 회의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립공원을 제외한 구간에 이미 공사를 진행시킨 뒤 심의 받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국고로 몇 백억 대의 공사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사안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즉 조계종 총무원장, 관람료위원회위원장 등 불교계 3인을 포함한 국립공원위 민간인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회의를 여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동우 기자

불국사·석굴암 관람료
7월부터 최고 33% 인상

오는 7월 1일부터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문화재관람료가 어른 1000원, 어린이 및 청소년 500원씩 인상된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명성, 구례 화엄사 주지)는 6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4년도 1차 관람료위원회 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어른 1000원(기존 3000원), 청소년 개인 500원(기존 2500원), 어린이 개인 500원(기존 1500원), 유치원 250원(기존 750원) 등을 인상하는 경주 불국사 및 석굴암 문화재관람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미 인상분을 징수하고 있는 양산 낙산사, 해남 대흥사, 강화 전등사, 울주 석남사 문화재관람료 인상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순천 송광사가 상정한 문화재관람료 어른 단체 500원(기존 2500원) 인하안은 부결시켰다.

남동우 기자

목탁소리

동국대의 위기 인식

홍기삼 동국대 총장이 6월 21일 긴급 교직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례적으로 800여명이 넘는 교수, 직원들이 중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모인 것만으로도 현재 학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안과 대학 경영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시간이 넘게 진행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사실상 홍 총장의 일방적인 설명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가 끝나자 중강당을 빠져나오던 일부 직원들은 ‘알맹이도 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푸념을 쏟아냈다.

홍 총장은 잇따른 악재에 대한 해명보다는 교계언론과 방송사들의 보도 태도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본질을 비켜나갔다. 학교 정상화에 대한 대안제시도 부족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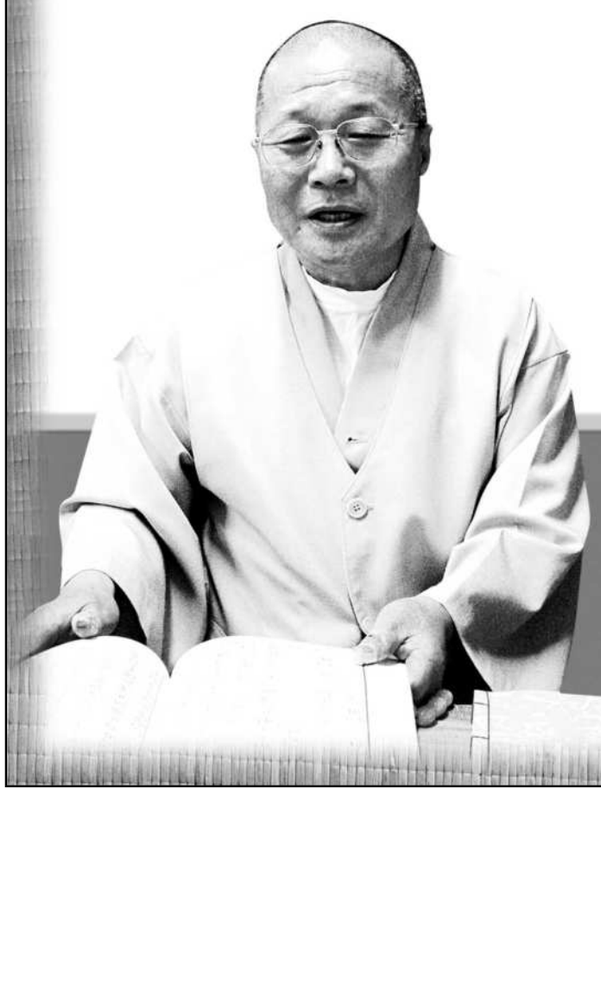
많은 이들은 동국대 위기의 핵심을 수십 년을 종단 정치에 휘둘려온 학교재단의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절대적 위기상황이다. 일산불교병원 교비전용, 필동 중대병원 매입 구설수, 이사회 파행 등 어느 것 하나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

동국대 구성원들은 이제 재단이나 언론 탓은 그만하고 홍 총장이 직접 나서 학교경영의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의 거취나 임기를 걸고서라도 대학 최고 경영자로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조용수 기자

전통의식 영산작법 복원편집

작법귀감(作法龜鑑)



200년전 백파(白波)선사가 순창 구암사에서 저술한 당대 최고의 불교의식집

이번에 복원된 <귀감>은 백파스님이 저술한 책을 원본으로 한글음을 달고 글자마다 소리음(四聲)을 표시해 누구나 쉽게 전통불교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천 스님이 표기한 소리음은 글자의 좌 우측, 위 아래에 점을 찍어 표기하는 방식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점은 거성으로 가장높이 구비치는 소리이고, 아래쪽 점은 입성으로 몹시 빠르게 닫는 소리이다. 또한 왼쪽 상단의 점은 상성으로 처음에는 낮고 차차 높아져서 가장높게 그치는 소리이며, 그 아래 점은 평성으로 가장낮고 편안한 소리이다.

이처럼 <귀감>의 소리음 표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법에 맞는 염불송을 공양할수있어 전통불교의식 분야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이다.

– 현대불교신문 기사에서



작법귀감 (상,하) 합본 45,000원

소승은 그동안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백파선사의 ‘작법귀감(作法龜鑑)’을 찾아내 이번에 현대에 맞게 복원 편집하였습니다.

사찰에서의 의식은 전통의식으로 진행되어 부처님전에 여법한 공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 각 사암에 <작법귀감>을 한권씩 보급하고자 발원했건만 아직 법공양 인연을 만나지 못해 부득이 제작비를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법공양 하실 불자와 인연이 있기를 발원합니다.

전통의식 영산작법 <작법귀감> 복원편집 법 천 합장

■ 구입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산 157-5 학림사 062-222-4133

농 협 601152-56-069667 / 우체국 503524-05-000419 예금주 윤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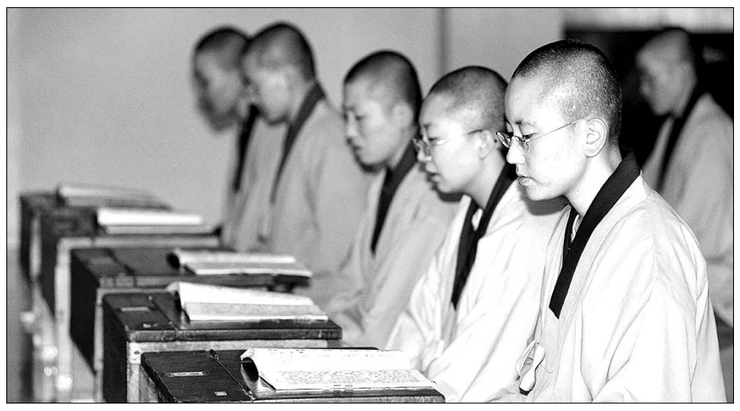
공부면 공부 포교면 포교 '척척'

사미니 강원을 가다 ①수원 봉녕사 (www.bongnyeongsa.org)

비구니 승단 성장의 중심에는 도제 양성에 헌신한 수많은 어른스님들의 원력을 무시할 수 없다. 수행자의 위의를 닦는 승려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학발전의 터전이 되어온 사미니 강원 교직자들과 학인들의끝없는 정진현장에서 한국 비구니의 미래를 가늠해 본다.



봉녕사 강원의 강사와 중강 스님들. 사진 왼쪽부터 강사 도혜 · 적연 스님, 중강 동명 · 설오 스님.



봉녕사 학인들은 내전중심의 기본 교과과정과 함께 염불, 외국어, 컴퓨터, 피아노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있다.

내외전 치우침없이 가르쳐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사찰인 봉녕사에는 단정히 좌정한 학인들의 낭낭한 독경소리가 하루종일 끊이지 않는다.

현재 강주 묘엄 스님의 지도 아래 강사 도혜, 적연 스님, 중강 동명, 설오 스님이 120여명의 학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봉녕사는 매년 종강때 마다 다른 강원에서 실시하지 않는 통과의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치문반과 사집반은 12월 종강 후 3000배 철야정진을 하고 이튿날 곧바로 수원 화성 성곽 4대문을 순례한다.

수원시내에는 아직도 50여명의 봉녕사 학인이 새벽 눈길을 헤치고 화성을 걸어 오르는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강사 적연스님은 "이것은 강원 개원 초기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신심과 자신감으로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매년 봄 실시하는 다담회도 봉녕사 강원만의 자랑이다. 학인들은 '수제비대회'라고 부르는 이 행사는 진달래꽃이 만발하는 봄이면 광교산 일대의 산나물과 꽃을 따서 음식 경연대회를 벌이는 행사다. 학인들은 갖가지 화전과 수제비 등을 만들어 강주스님 앞에서 솜씨를 자랑한다. 여름에는 이와 비슷한 수박대회가 열린다.

봉녕사 강원의 교과과정은 내 · 외전에 치우치지 않고 매 학년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과과정 가운데 내전은 다른 강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원에서 정한 정규과목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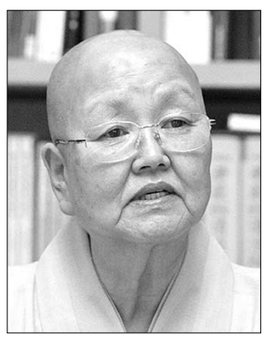
군포교 · 청소년 교화에 앞장

목요일 오후는 운동시간으로 반별 체육대회가 열리고 금요일은 외부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한다. 전 학년이 공통으로 수강하는 외전은 염불, 중국어, 영어, 일어, 꽃꽂이 등이다. 이밖에 사집반은 선가귀감, 대종상, 인도불교사, 피아노를 추가해서 배우고 있다.

학인들은 군 포교와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안양 소년원의 청소년 교화활동은 20년 넘게 지속해 오고 있다. 매년 정심여중 · 고에 재학 중인 소년원 청소년 30여명을 봉녕사로 초청해 수계식을 치러 주고 있다. 또 수지 인근의 군법당 '호국 흥국사'에서 매주 군 장병들을 위한 법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중노릇 잘 하려면 바르게 배워야지"

인터뷰 강주 묘엄 스님



"일심으로 정진해 올바른 중노릇 하라 가르치는 게 내 일이요, 그렇게 33년을 살았어요."

묘엄 스님은 1931년 진주에서 태어나 14세에 출가, 문경 대승사에서 비구니 월혜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5년 성철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스님은 성철 스님이 계를 준 유일한 비구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생을 출가수행자의 사표로 살아오신 스님에 대한 봉녕사 사부대중의 존경이 남다르다.

스님이 지금의 봉녕사로 오게 된 것은 1971년. 운문사를 떠나 그해 4월 선방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중스님 30여명을 이끌고 봉녕사에 도착했다.

1974년 봄에 학인 30명을 뽑는다고는 신문광고를 냈더니 학인 50명이 모였다. 강사 묘엄 스님에게 배우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비구니들이 모여든 것이다.

"이듬해 1975년에 20명을 더 뽑아 70명이 20평 좁은 요사에서 '묵살이'하며 살았지만 그때는 이것도 오감하다하면서 (공부)했어요."

스님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밤잠을 줄여가며 배움에 매달렸던 당시 학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회상했다.

한때 제자들은 스님을 '밀리미터'라고 불렀다. 평소 자상하기 그지없는 스님이지만 사중의 일이나 학인들을 가르치는 데는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 탓이다.

스님은 "불법의 근본은 명심견성(明心見性)이며 글을 배우는 것은 이것을 완성하는 기초공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다. "정확하고 바르게 배워야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늘 강조하는 스님은 오늘도 광교산(光敎山) 수행자들의 큰 스승으로 존경 받고 있다.

금강율원

율주에 가산지관(伽山智冠) 스님, 율원장에 묘엄 스님을 모시고 1999년 6월 21일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 '금강 율원'이 개원됐다.

금강율원은 2년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율장의 전문적 연구와 율학(律學)을 전승할 율사(律師)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교과목은 1년차때 계율 개론, 사미니 율의 및 주석서, 남북전율장 비교 연구, 선원청규 등이며 2년차 때는 사분비구니 율장, 범망경, 비구니 교단사 (인도 , 중국 , 한국 비구니전) 등이다. 현재 5기 율원생 9명이 수학하고 있다.

동문회 '선우회'

1976년 결성된 선우회는 주로 동문간의 친목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 회장은 부산 대원사 주지 정운 스님(6회)이다. 그동안 봉녕사 강원이 배출한 졸업생은 600여명. 주요동문으로는 석담(미국 버지니아대 연구원), 비구니 최초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을 지낸 탁연, 법중(완주 위봉사), 선정(거제 관음사), 일운(울진 구룡사), 상일(전 봉녕사 강사), 영제(서울 향림사), 경륜 스님(서울 석불사) 등이 종단의 중진 스님으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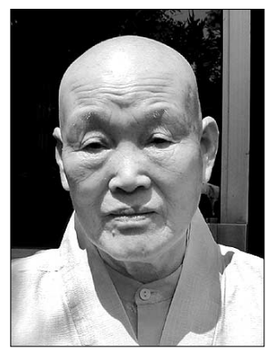
이밖에 본각(중앙승가대), 법넝(동국대 강사), 원찬(진주 유정사), 현준(행자교육원), 대림(청정도론 번역), 지운, 성견(의정부 회룡사), 흥수(기본선원), 적연(봉녕사 강사) 스님 등이 이곳 출신이다.

또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선재, 사회복지에 지관, 동국대 강사 운월, 불교미술에 귀일 스님 등이 각각 전문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한국의 비구니 스님 <15> 법운 스님

40년전 미래불교 씨앗 뿌려



"사람 관계는 항아리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금이 가기 전에 하심하고 인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가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불국토가 됩니다."

서울 마포 석불사 회주 법운 스님은 평소에도 화합과 인욕, 하심이 불자가 가져야할 마음 자세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야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마음의 평온과 여유가 생겨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러나 스님은 평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말 보다는 실천이 더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님의 이같은 신념 때문일까?

법수, 법선, 법인 스님 등 세수 80이 넘은 노장 스님을 비롯해 20여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석불사에는 말없는 웃음소리가 넘쳐난다.

석불사 스님들은 평소 하심하시고 인욕하시며 항상 웃으시는 법운 스님을 뵐 때마다 존경심이 생기고 나도 저런 스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화내거나 성내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1927년 강화생인 법운 스님은 고모 두 분이 출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게 된 스님은 9세 때 석불사 고천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5세에 은사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8세에 하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이후 수덕사 견성암 등 전국 제방에서 수행을 했으며 6 · 25이후 폐허가 된 석불사 재건을 위해 은사인 천일 스님을 도와 불사에 매진했다.

1980년부터 99년까지 석불사 주지를 맡아 석불사를 비구니 청정도량으로 자리매김시키는데 주역할을 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법운 스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시작했다.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어린이 법회를 사찰에 개설하고 법회를 손수 집전하며 미래 불교에 대한 씨앗을 뿌렸다.

지금은 최윤희 불교방송 PD 등 석불사 어린이회 출신들이 청 장년으로 성장해 청년 법회를 이끌고 있으며 다시 또 그 자녀들이 어린이 법회에 참석하는 등 2대에 걸쳐 신행활동을 할 정도로 그 열매를 맺었다.

어린이법회 열어 포교 앞장
전국 비구니 조직 내실 다져

법운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강화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모임인 '우담바라'를 창립하며 비구니 스님을 위한 활동을 했던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해까지 20년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을 맡아 조직의 내실을 다졌다. 혜춘, 광우, 진관 스님과 더불어 전국을 만행하며 화주해 전국비구니회관 건립에 일조했다.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경륜(석불사 주지) 스님은 "은사 스님이 우담바라회의 회장을 역임할 때 법운 스님이 함께 일을 도왔고 주지로 소임을 살 때는 신도들이 주지 스님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전국비구니회 일에 헌신했다"며 법운 스님의 활동을 소개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대천왕 복원 및 사천왕문 중수를 위한 모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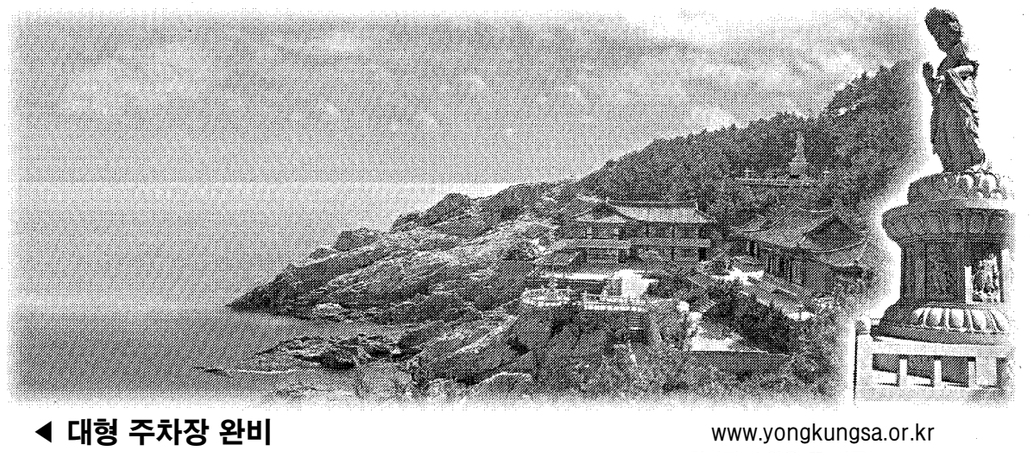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관으로 볼 때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이며, 부처님은 수미산 위 도솔천에 계시고, 사대천왕은 수미산 중턱에 머무시면서 불법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송광사 사천왕문과 사대천왕상은 서기 1462년(세조)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몇 번의 중수가 있었고, 세월의 풍랑 속에 많이 훼손되었던 것을, 이번에 송광사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새롭게 사대천왕상을 복원하고 사천왕문을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불사(佛事)는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뜻있는 불법(佛法)의 인연(因緣)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크신 자비에 인연을 맺고, 이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이러한 모연의 글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 **동참방법 :** 송광사 방문 시에는 대웅보전 또는 종무소에서 신청하시고, 전화 동참도 가능합니다.
● **1인 동참금 :** 300,000원
● **동참 계좌번호 :** 우체국 501676-01-001352 (예금주 / 송광사)
● **연 락 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1-755-0107 ~ 9)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청각 장애아 위한 불교 일일캠프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요"

7월 10~11일 통도사 옥련암서
6~19세 까지 타종교 참가 가능
수화교실 · 법회 등 프로그램 구상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불교체험의 장이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다.

7월 10일, 11일 통도사 옥련암에서 열리는 청각장애아 불교일일캠프는 청각장애아 통합 학부모회(회장 전점순)가 평소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도원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법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불교현실에서 청각 장애를 가진 이들이 불교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는 실정. 따라서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이번 캠프가 갖는 의미는 크다. 특히 매년 수련대회를 열 때마다 장애인들을 꺼려하는 시선 때문에 수련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청각장애아 통합 학부모회는 고요한 산사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교문화를 접하고 참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청각 장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교체험 일일캠프는 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벌써부터 신청자가 80여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세부터 19세까지의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되는 불교체험 캠프는 도원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과 불교 수화 강의, 학년별 레크레이션, 영어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캠프를 추진한 전점순 청각장애아 통합학부모회 회장은 "천주교 신자지만 이번 불교체험캠프를 통해 불교문화를 접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불교미술에 관심이 많은 딸 아름이와 함께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 청각장애아 학부모회 이귀연 회장은 "불자지만 절에 가고 싶어도 수화 법회를 하는 곳이 없어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며 "청각 장애아와 학부모를 위해 이런 행사가 열리는 너무 기쁘다"고 반가움을 전했다.

법회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한 농아인의 눈물을 목격한 뒤로 농아인을 위한 포교 원력을 세운 도원 스님. 스님은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불교 수화교실, 수화 법회, 수화노래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특히 7월 29~8월 2일까지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여름 수련대회 준비를 위해 수련회 경비, 필요물품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스님은 "청각장애를 가진 단 한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마음의 지혜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장애인 포교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011-9940-6455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진여원 · 내원정사 호국 영령 추모

위령재 열고 보훈가족에 장학금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과 내원정사(주지 정련)가 호국 영령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포교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23일 화명동 제3근린공원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 위령제을 열고 보훈가족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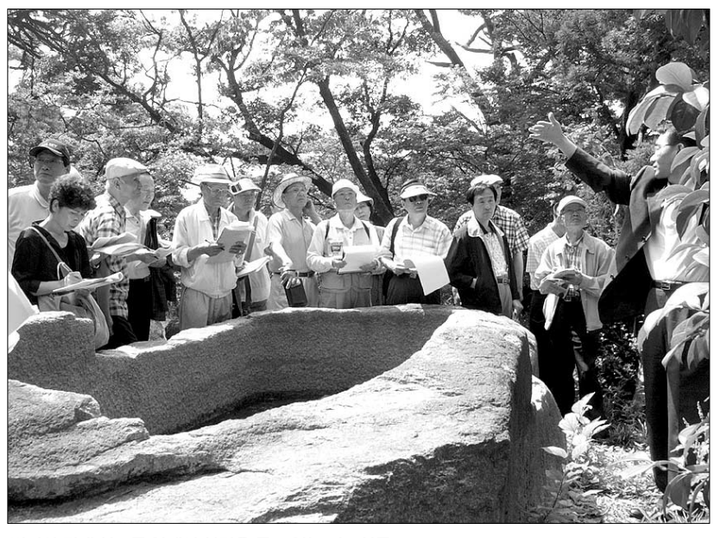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된 호국영령 천도재에 이어 1부 행사로 호국영령 추모식 및 장학금 전달식, 2부 행사로 보훈가족 점심 대접 및 다과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배상도 북구청장, 박계환 호국영령 추모비 건립 추진위원장, 보훈가족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호국 영령을 추모했다.

125연대 6대대 장병의 조총발사로 시작된 이날 추모식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축원, 헌다, 헌화 및 분향에 이어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힘써온 우복남, 강미지 씨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승엽(아주대), 최연수(창원대) 등 미망인회와 유가족회 자녀들에게 장학금 2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6월 25일 제24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천도재 및 선망부모천도 지장기도 회향대법회를 봉행했다. 천미희 기자

퇴직교사, 문화 · 생태해설사로 나선다

"범어사 샅샅이 안내해요"



범어사 경내 석조물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어르신들.

금정구 노인인력지원기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환

범어사를 찾은 학생들에게 범어사 문화재와 숲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해주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7월부터 범어사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금정구노인인력지원기관(관장 강규성)이 6월 한달 동안 노인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유산해설사, 숲생태해설사 과정을 신설, 이를 수료한 60명의 어르신들이 범어사의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일에 나서기 때문이다.

'범어사의 가치는 내가 알린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어르신들은 7월부터 5개월 간 범어사 문화재와 범어사 계곡과 금정산 숲 생태를 알리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퇴직 교사들이 대부분인 문화해설사, 숲생태해설사 수강생들은 금정구 지역 유치원, 초?중?고 학교와 연계 자연학습장의 체험 교육을 실시하며 오랜 교육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갖는다.

6월 23일 문화유산해설사 과정 막바지 교육이 한창인 강의실에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관장 경선 스님의 강의가 한창이었다. '범어사의 역사와 고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는 범어사의 창건설화, 범어사의 유래, 범어사를 거쳐간 의상대사, 표훈대덕, 낙안선사, 동산 스님 등 고승들의 일화까지 곁들여져 흥미를 더했다. 82세로 최고령인 김반구 어르신을 비롯 29명의 어르신들이 등록한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에서는 부산의 역사문화, 불교사, 부산지역의 사찰, 불교건축, 불화, 불상, 불탑, 불교미술 등의 이론 강의에 이어 현장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30일 수료식 이후에는 5명이 한 조를 이뤄 당간지주, 일주문, 불이문, 7층석탑 등으로 이어지는 범어사 문화유적 들에 대해 해설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해설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숲생태해설사 과정에서는 숲생태학, 수서생태, 숲속 동물, 산림특색 등의 이론수업과 실습 과정을 수료하고 범어사 계곡과 금정산 남문 등산로 코스로 나눠 숲 생태 해설을 맡게 된다.

문화유산해설사 과정을 듣고 있는 김홍주(74.동명초 퇴직교사) 어르신은 "나이는 많지만 제학생들을 다시 만나 문화재의 가치를 알려줄 것을 생각하니 교직 생활할때로 돌아가는 듯 마음이 설렌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정구노인인력지원기관은 범어사 인근 농원에서 이뤄지는 유기농 사업, 백의민족 세탁사업, 떡방앗간 등의 사업을 통해 15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의 보람과 기쁨을 되찾게 하고 있다. (051)516-6898

천미희 기자

동화사 · 해인사 강원 화합다져
단오맞이 체육대회 개최



6월 22일 단오를 맞아 해인사와 동화사 강원스님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화마로부터 삼보와 가람을 보호하기 위한 소금 묻기 의식을 갖는 등 지역의 각 사찰에서는 단오절 행사가 진행됐다.

팔공산 동화사 강원스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팔공산 청소년수련관의 잔디구장에 모여 축구, 족구, 발야구, 600m 계주를 하면서 스님들 간의 화합을 다졌다.

한편 이날 해인사에서도 경내 축구장에서는 하루종일 축구(사진), 족구, 줄다리기, 계주의 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종합 우승은 대교반에서 차지했고, 종합준우승은 사교반 스님들이 차지했다. 배지선 기자

여불련대구지부 무료급식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대구지부는 6월 19일 달서구 피산동 삼성아파트 북쪽 강창공원에서 무료급식행사를 열었다.

이날 여성불교연합회 회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찾아온 달서구 피산동, 파호동 일대의 홀몸노인 100여명에게 따뜻한 한끼 공양을 대접했다.

배지선 기자

경산 제석사 원효성사 다례제



원효성사 탄생 1387주기 다례제(사진)가 6월 20일 오전 경산 제석사 원효성사전에서 거행됐다.

민족의 스승인 원효성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다례제는 조계종 원로위원 성수 스님과 은해사 부주지 선광 스님, 제석사 주지 적연 스님, 변태영 경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육법공양, 원효성사 연보소개, 주지 적연 스님 인사, 백준호 경산시장과 변태영 경산시의장의 축사, 법타 스님의 원효성사 제1387돌 탄생사로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영천 충효사 산신대재 · 경로잔치



경북 영천 충효사는 6월 20일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와 공동으로 '제1회 보현산 산신대재와 경로잔치'(사진)를 열었다.

범어사 전계대화상 흥교 스님, 영천 사암연합회장 법의 스님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충효사 주지 혜공 스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의 값진 희생에 머리 숙이고 이런 희생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산신대제를 봉행한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대구, 어린이포교 활성화 모색
"까페 개설 통한 정보 공유"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 스님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각 사찰 어린이 법회 및 불교 유치원 선생님 십 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어린이 포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6월 20일 보현사 법당에 모인 선생님들은 정기적인 모임과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연합회 대구지구 까페를 개설해 어린이 법회 정보 공유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동화사는 올해 수련회부터는 대구지역 선생님을 주축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어린이 지도자 양성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 스님은 "어린이의 인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들이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구지역 어린이법회 지도자들의 모임은 지난 2월 14일 첫 간담회 이후 이어진 세 번째 모임으로 대구지역 어린이 포교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배지선 기자

보현사 343일 영가천도재

제9교구본사 동화사 직할포교당인 보현사(주지 원일)가 6월 23일 500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7일동안 계속되는 금강경산림법회를 봉행하고 49재를 일곱 번 봉행하는 343일 영가천도법회를 시작했다.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은 "산자와 죽은 영가가 고루 법계에 들 수 있으므로 금강경산림법회 봉행과 함께 시작된 343일 영가천도법회는 인간 삼세를 부처님 공덕으로 밝히는 대작불사"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빙의 영가와의 대화를 통한 영치유법

최면「전생, 빙의」 특별 워크샵

www.hypnos114.com

아주 오래된 과학,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

약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면은 그리스의 "잠자는 사원"이라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는 물론, 신탁의식을 행했던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버드 대학 등 세계 유명 대학에서 최면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내에 최면 전문 클리닉센터를 속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을 치료의 한 방법으로 공식 승인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면의 진정한 활용가치와 중요성에 대한일반인들의 이해의 폭은 아주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상담 과정은 최면 상태에서 떠올린 기억들이 실제 전생이든 심리적 갈등의 상징이던 그 사실성 여부보다는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 속에서 내담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고자 하는데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법의 효과는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감정 속에서 방황하는 내담자에게 최면전생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 삶의 제반문제들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힘을 길러줌으로서 보다 폭넓은 인생관을 갖게 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열어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교육내용

1.최면이론 및 실기 : 최면개론,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기법, 자율훈련법 등 최면의 공통이론과 최면기법의 핵심노하우를 전달한다.
2.연령퇴행 기법 : 현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원인을 잠재의식에서 찾아 통찰시키고 자아강화를 통해 당당한 삶의 자세를 갖게 한다.
3.전생퇴행 기법 : 현생과 연결된 전생의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며 업장과 연결된 자신을 통찰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삶의 기회를 찾게 한다.
4.미래진행 기법 : 자신의 미래를 운명처럼 바라보게 하기 보다는 현생과 전생을 통찰시키고 남은 인생을 가장 바람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세지를 설계하여 자신감을 고취 시킨다.
5.빙의령 치유 기법 : 빙의령 확인법, 영가와의 대화기법, 천도확인법, 악령제압법, 제 삼자를 통한 원격 빙의 확인 및 제거법 등 빙의된 영가와의 대화를 통한 핵심감정 및 문제파악, 해원과정, 재접신 방지 영치유법.
6.법회, 참선교실 : 즉각적으로 깊은 단계로 명상을 유도하여 법회의 감화를 높이고 참선교실을열어 자기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법을 자문함.

※본 교육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발송비 5,000원을 입금계좌로 보내신 후 연락주시면 안내자료와 자료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전 화 : 042/255/0734~5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 2층 전관)시민회관 후문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과정 이수 후 감사사례 중에서

한국전생빙의 연구원을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도들에게도 제가 깨달은 통찰을 얻은 그대로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전생의 업장이나 여러 인연으로 인한 빙의된 영가 로 인해 고통받는 신도는 물론 "가족들도 빙의영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원을 풀고 깨달게 하여 천도하는 것은 물론 천도되는 모습까지도 제주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입니다.

- 중략 -

00사 00 합장



大野 임 재 형
상담학 박사
한국최면아카데미 원장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특 전] 한국최면아카데미 인증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교육기간] 2004년 7월 8일 /15일 /22일 /29월 /8월 5일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7시 까지(5주간)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별도 문의. (출장강의 가능)
[교 육 비] 200만원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기타문의] 특별법회 초청 강연 및 개인상담 별도 문의

"흙길 그대로 놔주세요"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의 흙길.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월정사~상원사 간 도로' 포장 불가를 천명했다.

공단 측은 이 도로 12.4㎞ 중 비포장 구간 7.2㎞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9천 4백만 원을 들여 왕복 2차선으로 포장키로 하고 2002년 배수로 정비를 마쳤다. 공단 측은 지난해 12억 9천여만 원 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월정사 및 환경단체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2004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한 상태다.

공단 측이 이 도로를 포장하려는 것은 흙길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흙탕물로 주변 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연간 15만대 차량이 왕래해 관광객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창립된 '월정사 오대산 환경위원회'는 "월정사~상원사 구간의 공원진입도로가 지방도(446호)라서 지방도 폐지 및 공원도로 편입이 전제되지 않은 도로 포장사업은 향후 관리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 자연 탐방로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인명 및 동물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시민 · 환경단체와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여지가 높다"며 도로포장 반대 입장을 공단 측에 통보했다.

이처럼 월정사 측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공단 측도 내부적으로는 도로 포장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월정사 기획차장은 "도로포장은 월정사만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한 불교계 전체 위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흙길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 월정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국장도 "북한산 관통도로 등으로 불교계에 대한 환경 · 시민단체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월정사가 도로포장을 반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도로 관리라는 큰 틀 안에서 고민을 한 뒤 포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월정사~상원사 간 도로' 포장
월정사 6월17일 불가입장 전달
공단측 철회 방침 내부적 결정

"시민들의 수행도량으로" 광주 광산구 마하보리사 개원



광주 광산구지역 도심포교를 담당하게될 전법도량 '마하보리사(주지 원명)'가 6월 22일 개원됐다(사진).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천운(대흥사 조실), 암도(前 조계종 포교원장), 다정(前 백양사주지), 현지(광주사암연 회장), 혜인(나주사암연 회장)스님 등 사암 스님과 송병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지역기관장,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 500여명이 참석해 마하보리사 개원을 축하했다.

마하보리사 회주 성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튼다는 확신으로 20여년전부터 불사를 진행해 왔다"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으로 세워진 도량인 만큼 불교교육에 앞장서 시민들의 수행도량으로 가꾸어가겠다"고 밝혔다.

마하보리사(www.bori.or.kr)는 대지 450평, 건평130평 2층 현대식 포교당으로 개원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기본교육(목), 금강경 강의(화), 참선교육(금)을 실시한다. (062)944-0148 이준엽 기자

광주 신광사 순국선열 추모재 전몰 군경 유족 50여명 참석



6 · 25전쟁 54주년을 맞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천도재'가 6월 22일 광주 신광사(주지 경주)에서 열렸다(사진). 광주 지방보훈청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천도재는 전몰군경 유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가천도의식에 이어 헌화 순으로 진행했다.

천도의식에 앞서 한탑 스님(정토사 회주)은 법어에서 "우리는 부모, 나라, 일체중생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선열의 은혜를 잊어버리곤 한다" 며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 중생과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항상 반문해 보아야 한다"고 설했다.

이철조 보훈청장은 인사말에서 "역사상 많은 종교가운데 불교만이 국난극복에 앞장서왔다"고 강조하고 "천도재를 통해 호국의 지가 국민들 가슴속에 영원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보훈청은 4년전부터 호국보훈의달 추모행사 일환으로 광주 신광사, 강진 백련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호국영령 추모 천도재를 열고 있다. 이준엽 기자

세계청소년 태권도대회 참가 獨 선수단 송광사 템플스테이



"영화에서만 봤던 스님들을 직접 만나게 돼 기뻐요"

6월 19~20일, 순천 송광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독일 베를린시 우란겔 고등학교 1학년 율비 캬야(17.ULVI KAYA)군은 "저녁의 식에 앞선 큰 종소리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제5회 순천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 참가 후 독일 선수단 25명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율비군은 "어려서부터 동양무술영화에 심취했고 9년전부터 태권도를 배우게 됐다"며 "태권도의 종주국에서 시합도 하고 전통문화를 경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다"고 말했다.

율비군은 20여일전 입국해 합숙훈련과 경기로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도 "한국에서의 식사 가운데 송광사 음식이 가장 맛있어 힘이 난다"며 천진스런 웃음을 보였다.

동양무술의 근본이 되는 명상을 직접 체험하고자 송광사를 찾았다는 독일선수단은 송광사 성보박물관 참관에 이어 참선, 다도, 스님들과의 대화(사진) 등 한국전통불교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광사= 이준엽 기자

'콜롬버스 시네마' 헌혈증 기증

아름다운 나눔의 집 2호점인 '광주 콜롬버스시네마 10'은 6월 23일 소아암백혈병어린이와 가족 100여명을 초청, 영화시사회를 가졌다. 시사회에 앞서 '콜롬버스시네마 10' 김정문 전무는 그동안 영화관에서 수집한 헌혈증서 1000장을 소아백혈병 환우 부모들의 모임인 빛고을동우회에 전달했다. 헌혈증 전달에 이어 소아백혈병 환우와 가족은 '슈렉 2'를 관람했다.

'콜롬버스시네마 10'은 헌혈증을 기증하는 관람객에게 영화를 무료감상토록 해 헌혈증을 수집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광주 파라미타 청소년축제 댄스·백일장 경연, 장학금 전달



광주지역 중 고생들의 한마당 축제 '청소년 댄스 · 백일장 경연대회'가 6월 19일 무각사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광주지부(지부장 광민 스님)가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마련한 이날 대회는 장학금 전달과 백일장, 댄스경연으로 펼쳐졌다(사진).

대회에 앞서 파라미타 광주지부는 정광고 3년 김지연 등 광주지역 거주 중,고생 7명에게 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념식에서 광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청소년은 나라의 동량이다"며 "사찰이 경건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늘은 마음껏 여러분의 끼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댄스 경연대회에는 예선 20팀 가운데 지역본선에 오른 10개팀이 나와 평소 닦은 춤 솜씨를 보여줬다. 이날 대상을 받은 '선비(전자공고)'팀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언 스위티(정광고)'팀이 서울서 열리는 본선 참가 자격을 획득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고양 길상사

톡톡튀는 포교법이 '힘'



주지 현도 스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최근 고양 일산구 식사동 길상사 주지 현도(賢度) 스님은 신도들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 <숫타니파타>의 위 경구를 보냈다. 현도 스님은 '이 주의 경전'이라 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신도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부처님말씀을 보낸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도들은 부처님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된다. 생각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길상사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백만배 기도, 상황버섯 재배, 주말농장 운영 등은 길상사와 다른 사찰과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포교법이다.

휴대폰 메시지 이용 신도들에 전법
상황버섯 재배로 사찰경제 자립 시도

길상사 건립 인연도 1000일 기도에 있었다. 현도 스님은 1000일 기도를 올린 뒤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이 곳에 3천4백여평의 부지를 마련했다.

나무와 풀이 무성한 이곳에 불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스님은 7년만에 대웅전과 강당, 요사, 공양간, 주말농장, 상황버섯 재배농장 등을 갖추었다.

상황버섯을 재배하게 된 것은 사찰 재정을 시주금에 의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지금은 매년 100㎏ 가량의 수확을 얻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주말농장은 불자들에게 땅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사찰을 찾아오게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현도 스님은 지난 3월 10일, 1백만배 기도를 입재했다. 매일 1080배를 1000일동안 계속해야 하는 '고행'이다. 대웅전과 강당 불사를 마무리 했지만 도량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 더 많은 기도와 원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특별히 이번 기도에서는 전통 목조양식의 법당 불사를 이루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30여년의 출가생활을 이 곳에서 회향하려는 굳은 의지가 기도에 담겼다. 기존의 대웅전과 강당은 불자들의 신행 ·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실 현도 스님은 1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중에 들어가 수행에 전념할 생각을 했었다. 비닐하우스 법당에서 지금의 도량을 갖추기까지의 과정에서 심신이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은 이 곳에서 불사를 마무리하고 산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되돌렸다.

스님의 1백만배 기도는 이제 100일을 지났다. 하지만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스님의 신념에는 어떠한 흔들림이 없다. (031)966-9852 고양=박봉영 기자



고양 길상사 주지 현도 스님은 지난 3월10일 1백만배 기도를 입재했다. 매일 1080배씩 1000일동안 기도를 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아름다운 전원 도량 **일산 길상사**

1백만배 1,000일 기도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일기도 인연도량인 길상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회향을 함께 하고자 매일 1080배씩 1,000일 동안 1백만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1백만배 기도 동참하시어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입재** : 2004년 3월 15일 ◆**회향** : 2006년 9월 15일 ◆**장소 및 시간** : 길상사 대웅전, 매일 새벽 및 사시 예불

백중 49재 지장 천도기도 안내

8월 30일(음 7월 15일) 백중은 불교계에서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1,000일기도에 동참하시는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패 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13일 백중 49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사업을 하신 분, 입시자녀를 앞두신 분들은 조상님들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백중 49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백중 49일 기도 입재** : 7월 13일(음 5월26일) 오전 10시 30분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3재 : 8월 2일(음 6월17일)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백중회향 기도** : 8월 30일(음 7월15일) 오전 10시 30분

□ 교통안내 : • 구파발 – 원당역 – 주교사거리 – 길상사 • 자유로 – 일산 호수교 – 길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 70-2 전화 031)966-9852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주지 보산 합장

일산 전원 포교도량
'상황버섯 재배, 주말농장 운영'

반야원 불상 조성소

동불 조성 전문 · 7치, 8치, 9치, 1자 · 각종 조각, 천불조성, 순금개금



천수천안 및 작은 불상
조성부터 대불 조성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불사상담 성의껏 해드립니다. 주 · 야 상담해 드립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 2동 833-1번지
TEL 051)647-5188 / 051)632-1470
019-535-6495
ly2021@hanmail.net

농촌불심 저력모아 '생활불교' 일궈요

충남 보령·홍성

보령-사찰 증가따라 교육·복지·문화로 활동범위 확산

홍성-신도감소·기복 등 악조건속 '특성화 포교' 기반 조성

불심이 약하다는 충청남도 지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불교세가 약하다는 보령과 홍성. 하지만 두 지역의 불교는 지금 '도약'을 꿈꾸고 있다. 포교나 교육 등 제반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일부 사찰과 스님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모아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실 두 지역의 불교는 극히 일부 사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찰이 현상유지에도 급급하다. 포교는 그야말로 '배부른 얘기'인 셈이다. 거의 모든 사찰들이 빈약한 경제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사찰 간 단합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신도들이 사찰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몇몇 사찰과 스님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역부족이기는 하지만 두 지역 불교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령은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30여 곳이었던 사찰 수가 지금은 50여 곳으로 늘었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불교세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보령 불교는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 어느 정도 발전을 이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사정이 다르다. 인구가 11만에 불과한데 사찰 수는 두 배 가량 늘어난 데다 대부분의 사찰이 농촌에 위치해 있다보니 신도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찰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교는 물론 신도교육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천수암, 선림사, 세원사 등 일부 사찰들이 지역 복지에 나서면서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지역민이 많아졌고, 또 몇몇 사찰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등 복지와 문화를 통한 포교에 나설 경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이 지역 스님들은 말한다.


보령시 청소년 상담실장 정운 스님(세원사 주지)이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상담을 하고 있다.

우선 천수암은 경전공부회, 봉사회, 기도회, 노인회, 합창단 등 7개의 사찰 신행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올해부터는 시로부터 어린이 공부방을 위탁받는 등 지역의 복지 및 문화 창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천수암 주지 일정 스님은 시내에 불교회관과 불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원을 세워놓고 있다.

선림사는 불우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해놓고 있고, 세원사는 내년에 문화체험교실을 열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단원사는 여건이 닿는 대로 납골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일정 스님이 신도교육 및 포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정운 스님은 이 지역의 청소년 관련 단체 3곳을 맡아 운영하면서 청년 불자 양성에 힘쓰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령 불교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역 불교 발전에 대해 사찰들이 의식을 공유하고, 또 얼마나 호흡을 맞출 수 있느냐다. 지역불교 활성화가 곧 개별 사찰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 보령 불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음이 분명하다.

홍성 불교는 과거 10~20년 전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다. 용봉사 석련사 고산사 등 수덕사 말사 10곳을 비롯해 이 지역에는 모두 46개의 사찰이 있다. 그러나 제대로 사격을 갖춘 사찰 수는 15곳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수덕사 말사들이 홍성 불교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 사찰들도 보령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홍성 불교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10~20년 전의 신도들이었던 노보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신도수가 줄어들었고, 또 대부분 사찰들이 농촌지역에 있다보니 젊은층 신도가 없어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 그리고 이것이 사찰의 경제여건 악화로 이어지면서 포교할 대상도, 포교할 여력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계룡산 자락에 인접한 대부분의 지역에 무속신앙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기복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따라서 이 지역의 불교도 아직은 기복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수덕사가 말사들의 포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또 이 지역 중심 사찰인 용봉사와 석련사 등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사찰들은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 마련 및 신도들의 신심 증장을 위한 교육 강화에도 나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등 지역불교 발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젊은층 신도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자생력 있는 포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보령·홍성=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보령·홍성불교 이끄는 주역들

포교후원 활발 '보시왕' 별칭

법용 스님
보령 선림사 주지



보령불교의 터줏대감으로 불릴 정도로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다. 1984년 이곳 선림사를 중수한 이후 20년 동안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노래자랑이나 글쓰기 대회 등 문화행사를 열어 포교활동을 벌였으며, 심장병 어린이 돕기와 불우이웃 돕기 등 복지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형편이 어려운 신도는 물론 경찰서, 군부대 등 지역의 각급 기관에 대한 후원도 적극적이어서 '보시왕'이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 15년 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본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해오는 등 해외 포교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선림사를 유명한 관음도량으로 자리매김 시키기도 했다. 보령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군부대·신도단체 지원

일정 스님
보령 천수암 주지
보령사암연합회장



보령에서 일정 스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 지역 스님들은 보령 불교를 이끌고 나갈 대표 주자로 일정 스님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보령사암연합회 회장을 맡아 지역 불교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신도단체에 대한 후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인근 군부대에 부대 법당을 건립해주었고, 최근에는 청소년 무료공부방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1년 전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곳에서 보령에서 가장 큰 사찰을 일궈냈고, 지금은 7개 신행단체를 운영하면서 웬만한 대형 사찰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모범적인 사찰운영을 하고 있다. 한학을 배우고 화랑도 운영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림과 글씨에도 능하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정운 스님
보령 세원사 주지
보령시청소년상담실장



보령 지역 청소년 포교 전체를 혼자 이끌어가고 있는 스님으로, 일정 스님과 함께 보령 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리더로 꼽힌다. 1995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열고 본격적으로 청소년 포교에 뛰어든 이후 1998년에는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 상담실을 위탁받아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이동상담실을 열고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을 정도로 청소년 문제에 애정이 깊다. 지역 청소년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면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평이다.

세원사에서는 가족법회, 경전회 등을 통해 신도 교육과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노숙자 무료급식 앞장

혜청 스님
보령 단원사 주지
보령사암련 부회장



단원사에서만 37년을 보내면서 단원사를 기도도량으로 가꾸어 놓았다.

3년 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대천역에서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도들을 자원봉사로 나서게 하는 등 지역 복지에도 관심이 많다.

올해 4월 한국불교법화종 충남교구종무원장을 맡으면서 도내 한국불교법화종 사찰들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애쓰고 있기도 하다. 납골시설을 세워 지역 불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의 장례문화 개선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도량개방 '내면불사' 추진

경보 스님
홍성 용봉사 주지



홍성 불교가 경보 스님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홍성 불교에서 용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다, 경보 스님도 젊고 적극적인 마인드도 홍성 불교를 바꾸어 놓을만한 재목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

용봉사 주지로 부임한 지 불과 1달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용봉사와 홍성불교 발전을 위한 구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을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다. 용봉사를 수행 기도도량으로 만들어 누구나 와서 용맹정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우학생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스님은 신도들이 '내면의 불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으뜸 포교라고 강조한다.

군경 포교활성 원력

지오 스님
홍성 석련사 주지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포교국장을 맡아 포교일선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2년 전 석련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산신각 신축 등에 이어 요사채 건립 등 석련사를 새롭게 가꾸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홍성교도소 상임법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홍성경찰서 경승실 개원 및 인근 군부대 포교도 계획하고 있는 등 군·경찰 포교 활성화에도 뜻을 두고 있다. 지역 사찰이 힘을 모아 홍성 포교의 거점이 될만한 불교회관을 건립하는데 일조하고 기복에 치우쳐 있는 홍성 지역 불교를 신도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신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한다.

학교 포교의 '원력보살'

김주석 거사
홍성 파라미타
홍남초등학교 분회장



홍남초등학교 교사로 2년 전 파라미타 홍남초교 분회를 창립, 어린이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파라미타 분회 창립 당시 이 지역의 스님들조차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재가불자로서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셈이다.

현재 회원 수는 6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매 학기마다 방학을 이용해 2박3일간 전국 각 사찰에서 실시하는 수련대회가 대표적이다. 충남도 차원의 파라미타를 구성하고 각 지역마다 지회를, 또 학교마다 분회를 설치하는 것이 꿈이다.

경찰불심 견인차

김운식 거사
보령경찰서 불자회장



6월 20일 창립된 보령경찰서 불자회를 태동시키는데 산파역할을 한 장본인. 현재 보령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운식 경위(58)는 7년 전 구성됐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활동을 해오지 못했던 불자회를 내실 있는 신행단체로 만들겠다는 각오 아래 매월 한 차례씩 인근 사찰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신심을 다질 계획이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신행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신심이 깊다.

돋보기


선림사 전경.

선림사 선림사로 향하는 600m 거리의 숲길이 인상적이다. 호젓한 분위기가 일품이어서 걸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사찰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전통사찰로 단아한 분위기를 낸다. 지금은 관음도량으로 유명해 전국 각지에서 기도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위치. (041)932-4187


잘 가꿔진 정원같은 천수암 경내.

천수암 보령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찰. 그러나 큰 규모보다는 잘 가꿔진 예쁜 화단을 연상케하는 경내가 눈길을 끈다. 기도하고 신행생활을 하는 공간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사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솔나무 숲과 노송들이 어우러져 경관도 아름답다. 계층별로 구성돼 있는 사찰 신행단체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에 위치. (041)932-8076

고산사 고풍스런 산사의 풍취를 맛볼 수 있는 전통사찰. 특히 대광보전(보물 제399호)은 옛 가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적인 가치가 크다. 경내에 있는 석조여래입상과 대광보전 바로 앞의 3층 석탑 역시 고산사의 오랜 역사를 보여준다.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에 위치. (041)642-8254


숲으로 둘러싸인 용봉사.

용봉사 요사채 문을 열고 있으면 코앞으로 다가오는 숲. 그 숲소리를 듣고 있으면 번뇌는 저절로 사라진다. 용봉산 휴양림에 위치해 주변 경관은 물론 공기가 맑아 찾는 사람이 많다. 마애불과 감로탱화 등의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 모든 답답함이 저절로 녹아드는 곳이다.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에 위치해 있다. (041)634-6777

산혜암 신라 문성왕 때 무염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강암을 직사각형으로 다듬어 조각한 높이 215Cm, 폭 56Cm 크기의 석조약사보살입상이 인상적이다. 자연 암반을 받침으로 삼고 그 위에 종모양의 탑신을 세운 석종형부도도 눈길을 끈다. 홍성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전통사찰로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위치. (041)632-3196

성주사지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절터(사적 제307호). 백제 법왕 때 창건된 국찰(國刹)로 신라 때 낭혜화상이 더욱 크게 중창했다. 절터 입구로 보이는 곳에 계단석이 있고, 그 뒤쪽에 석등과 5층 석탑 1기, 다시 그 뒤쪽에 금당(金堂)터인 듯한 단이 있으며, 그 뒤에 국보 제8호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등이 있다. 옛 가람터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조계종 1사찰 1가정 후원사업 추진

"자식처럼 아끼고 끝까지 보살필 터"

소년소녀가장 · 저소득 가정 청소년과 1:1 결연

조계종은 한 곳의 소속 사찰이 한 가정과 결연을 맺어 후원하는 결연사업을 벌여 나간다.

조계종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6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종로구청과 함께 후원 결연식을 갖고, 관내 불우청소년들의 후원자로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종무기관 스님 20명을 대표해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과 1대1 후원 결연을 약속하는 '후원 결연 약정서'를 김충용 종로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또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소속 스님들은 이날 참석한 효제초등학교 5학년 최예슬 양 등 청소년들에게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합장주와 도서상품권, 후원자의 편지 등을 나누어 주었다.

법장 스님은 "우리 불교계와 조계종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버팀목, 대들보가 되어주겠다"며 "오늘 인연을 맺은 이 학생들을 제자처럼, 자식처럼 책임지고 끝까지 가르쳐 훌륭한 인재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용 종로구청장도 "조계종의 스님들이 모여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학생들을 대신해 감사의 드린다"며 총무원과 후원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감사드립니다." 6월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후원 결연식에서 김충용(오른쪽에서 두번째) 종로구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가운데)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사진=강유신 기자

특히 이날 중앙종무기관 소속 스님들은 후원결연을 맺은 학생들과 저녁 공양을 하고 차담을 나누었고, 법장 스님은 후원 결연을 맺은 20명 청소년들을 여름방학 기간에 맞추어 수덕사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결연식을 계기로 소년소녀가장 후원사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해 '1사찰 1가정 돕기 운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찰에서는 후원 가정 청소년들을 초청해 위로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부모 역할은 물론 생일카드 보내기 운동, 템플 스테이 등을 열어 종단의 '1사찰 1가정 돕기 운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1사찰 1가정 돕기운동'은 부모의 실직, 사망, 카드 빚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 청소년이 전체아동의 8.7%인 100만명에 육박하자, '저학력-막노동-질병-가난-자녀의 저학력'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조계종 총무원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캠페인이다.

조계종 산하 2000여 사찰이 1가정씩 후원을 하면 2000여 세대 8000여 명의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동참문의 (02)723-5101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나눔의 손잡기 성금

박연향, 우병례, 김계임, 이봉순, 신정자, 김차해-44만5,910원

살립니다

현재 1차 나눔 저금통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2-4162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 저금통 회수(6월17일~ 8일)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12개의 나눔 저금통이 회수됐습니다.

나눔의 저금통 및 스티커 신청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25-2 승복 · 한복집 유마

스티커 20장

저금통 5개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자비의 등' 수익금 장애우에게 회향

우리는선우, 9월 '추석맞이 세상 나들이'에 사용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달기' 수익금이 장애인 나들이 행사로 회향된다.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 · 건국대 교수)는 현대불교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봉행한 '자비의 등 달기' 행사의 수익금 2백여만원을 오는 9월 추석맞이 '장애우 세상 나들이' 프로그램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자비의 등' 달기 점등식을 준비하는 모습.

성태용 이사장은 "올해 13회를 맞은 자비의 등 달기 행사는 나와 가족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나 남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며 "어두운 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밝히자는 취지인 만큼 수익금 전액을 장애우들의 세상 체험에 쓰겠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또 "앞으로도 각 사찰에서도 이러한 자비의 등달기 행사가 많이 행해져 부처님오신 날의 의미를 살리는 독특한 등문화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달기는 1만원의 보시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 쾌유 천도 감사 사랑 행복 평화 성공 합격을 기원하는 등을 장충단 공원에 밝히는 행사. 이때 이웃을 위한 등을 신청한 사람이름으로 받는 대상자에게 기원문이 담긴 나눔카드도 보내준다. 문의 (02)2278-8672

김철우 기자

도와주세요

"병 나으면 제 생명을 나누어주며 살겠어요"

백혈병 투병중인 박준군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이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요즘, 꿈많은 고등학교 2학년 박 준(17 · 순천 매산고 · 사진)군에게 장래희망은 점점 멀어져만 간다. 지난 4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끝없는 투병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 화목했던 준이 가족은 백혈병이란 무서운 병마앞에 모두들 절망에 빠진 듯 하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고생하던 아버지 마저 교통사고로 몸져 눕고, 어머니와 누나의 막일로는 병원비는 고사하고 어려운 살림살이도 빠듯하다. 현재 준이는 힘든 항암치료를 마치고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준이가 완치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 골수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골수이식비용은 준이 가족이 감당키 어렵다.

"그래도 저는 치료하면 나을수 있다니 다행이예요. 아프고보니 생명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병이 나으면 제 생명을 나누어주며 살겠어요."

박준 돕기 후원 계좌 : 농협 617-01-146875 (예금주-생명나눔실천회)

문의 :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34-6602) 광주=이준엽 기자

"北 용천 탁아소 건립에 작은 힘 됐으면"

익산사암련, 성금 200만원 기탁 독거노인 돕기 쌀 20가마 보시



북한 용천지역을 돕는 자비의 손길에 지역사암연합회에서도 나섰다.

익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광)는 지난 4월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로 재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용천지역의 주민들을 돕기위한 성금 2백만원을 6월 14일 기탁했다(사진). 익산시청을 통해 이날 전달된 성금은 용천소학교내 탁아소 건립비용으로 지정기탁됐다. 익산지역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쌀 20가마도 함께 전달됐다.

익산불교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숭림사 주지)은 이 자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자면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남한 불교계가 이럴 때 큰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며 "남쪽 불교계의 정성이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해져 남북통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익산불교사암연합회는 용천참사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정토를 발원하는 합동수륙 고혼천도재를 올 가을 익산 미륵사지에서 봉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익산불교사암연합회와 익산시 불교신도회, 정 · 관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월 10일 익산불교사암연합회는 숭림사 주지 지광 스님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수석 부회장에 태봉사 주지 혜안 스님, 부회장에 관음사 주지 원성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063)862-6394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폭우 속, 월정사 법륜전에서 열린 영화시사회는 즐거운 대중법회였다.

월정사 '천년의 숲길 찾아가는 산사 영화제'

 # 월정사에서 첫 선… '문화 사찰' 호응

굵은 빗줄기가 하염없어도 영화에 몰입한 사람들에게 빗소리는 의미조차 없었다. 천년 고찰에서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영화를 보는 700여명의 관객들은 시간의 의미도 잊은 듯 했다.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법륜전에서 '달마야 서울 가자'(이후 '서울가자'로 줄여 씀)의 시사회가 열렸다. 월정사가 기획한 '천년의 숲길 찾아가는 산사 영화제'의 첫 이벤트였다. 비 때문인지 다소 물기가 묻었던 시사회장의 분위기는 주연배우들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달라졌다. 사인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어린 불자들의 들뜬 함성이 법륜전의 분위기를 달구기 시작했다.

시사회에 앞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사찰의 문화적 기능은 무궁무진하다"며 "월정사에서 처음으로 시사회를 갖는 것도 사찰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육상효 감독과 정진영, 이원종, 이문식 씨 등 주연배우들도 "사찰에서의 시사회는 생각 이상으로 신선하다"며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며 만든 이 작품이 불자와 국민들에게 사랑받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윽고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법륜전은 폭소와 박수로 요동쳤다.

 # '놀자'에서 '서울 가자'로의 진화에 주목하라

영화는 관객들에게 깊은 고민을 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허황된 코미디조의 웃음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서울 가자'의 틀은 전편 '달마야 놀자'에서 많은 부분 그대로 가져 왔다. 그러나 비슷한 틀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전혀 다르다. 관객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놀자'에 비해 진화된 부분들이다.

우선, 산사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적 진화, 두 배로 커진 판이 눈에 띈다. 전편에서는 아예 통신두절이던 핸드폰의 사용도 흥미진진하다. 묵언하는 대봉 스님(이문식 분)에게 가장 확실한 의사소통 도구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이웃종교를 끌어들인 점, 반야심경을 힙합으로 개조해 부른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조폭들도 진화해 인간답게 살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캐릭터다.

이렇게 진화된 틀에서는 '상생'의 가르침이 묻어 난다.

 # 따뜻한 영화… "불교 공부 하고 싶어요"

영화가 끝나고, 법륜전을 나가는 사람들은 한결 같이 흥겨운 표정이었다. 유치원 교사 이수진씨는 "아주 따뜻한 영화"라는 짧은 말로, 서울에서 왔다는 등산복 차림의 부부는 "이제 불교 공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으로 소감을 대신했다.

월정사=임연태 기자

'달마야 서울 가자' 시사회 700명 운집
정념 스님 "사찰, 문화적 기능 무궁무진"


'달마야 서울가자' 시사회가 열린 월정사 법륜전. 스님과 불자들은 사찰이 문화의 전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고영배 기자

웃고 박수치고…여기 절 맞아?


육지장사 대웅보전에서 펼쳐진 선무공연. 부처님도 관객으로 공연을 감상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육지장사 '제1회 불교영화 축제'

우두둑 떨어지는 비(雨)소리도 하나의 빗방울 전주곡으로 변해 산사에 울려 퍼졌다.

6월 19일 오후 4시 '제 1회 불교영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 육지장사(주지 지원).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녹음이 우거진 산사에는 야속한(?) 비가 하루종일 쏟아졌다. 이 때문인지 축제현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하지만 "약속은 한 명이 와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육지장사 주지 지원 스님의 '물(水) 특강'으로 우중(雨中) 축제는 문을 열었다. "불자님들 음식만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물도 꼭꼭 씹어 마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찬물을 갑자기 한 입에 벌컥 마시면 속병이 나기 쉽지만, 물을 씹어 마시면 씹는 동안 물이 몸 안의 온도와 맞춰지게 돼 속이 편해집니다."

스님이 명상이나 참선 특강도 아니고 웬 물 특강?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다. 건강이 안좋았던 스님이 새벽에 일어나자 마자 예불 전 물을 세 컵이상 씹어 마신 후 좋아졌기 때문이다. 스님의 물 건강법은 계속된다. "7회 이상 씹어 먹는 것이 좋으며, 아침에 일어나 꾸준히 물을 마시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당에서 특강이 끝난 후 대웅보전으로 자리를 옮겨 산사음악회를 진행했다.

서울 인천 경기 연합합창단의 '큰 사랑'과 '찬미의 노래' 음성공양을 시작으로, 테너 김태영씨는 '내 사랑을 안고' '그리운 금강산'을 선사했다. 이어 김애라씨(서울 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 중요 무형문화재 제 17호)도 해금으로 '신 아리랑'과 '유모레스크' 등을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비록 숲이 우거진 야외에서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대웅보전의 불보살들까지 함께한 2백여 관객들은 어깨춤과 앵콜을 연발하며 즐거워 했다. 이날 음악회는 무용가 이선옥씨의 '선무용'과 부부듀엣 '해와 달'의 중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오후 8시부터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세암' 영화상영. 영화 '오세암'은 다섯 살 동자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 특히 이 영화는 얼마전 애니메이션의 칸영화제로 불리는 프랑스 안시 애니페스티벌에서 장편 경쟁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해서 인지 성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관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김청정심 보살(47)은 "비가 많이 와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를 만끽하지 못해서 무척 아쉬웠다"며 "하지만 부처님을 모신 법당 안에서 부처님과 함께 불교 음악과 영화를 감상해서 인지 오히려 환희심이 더 나는 것 같아 좋았다"고 행사 참가 소감을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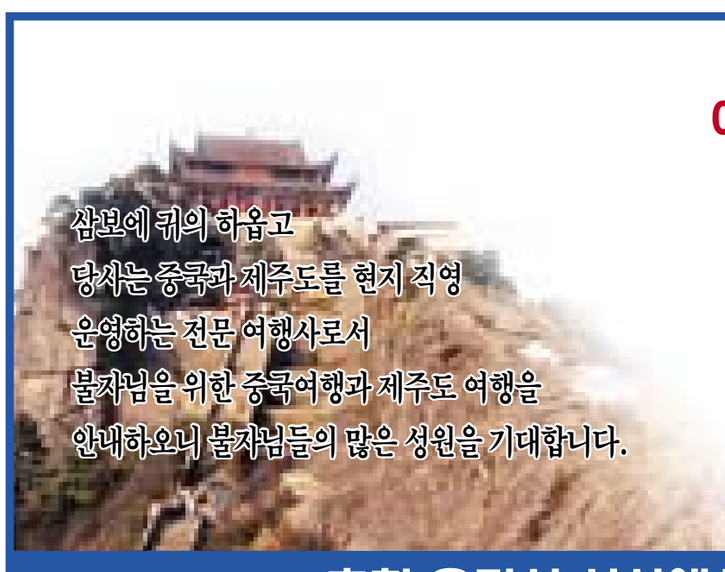
한편 다음날인 20일 오후 8시에는 티베트 14대 달라이라마의 환생과 그가 중국의 탄압을 피해 인도로 향하는 여정을 그린 '쿤둔'이 상영됐다.

육지장사=김주일기자

지원 스님의 '물(水) 특강'으로 문 열어
음성 · 무용공양에 관객 모두 어깨춤

■ 한국불교영화 역대 해외영화제 수상작품

- ▲ **'아제아제바라아제'** 89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감독 임권택, 주연 강수연
- ▲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89년 제 42회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그랑프리 수상-감독 배용균, 주연 이판용 신원섭
- ▲ **'화엄경'** 94년 베를린영화제 알프레드바우어상-감독 장선우, 주연 이혜영 원미경
- ▲ **'동승'** 2002년 상하이 국제 영화제 시나리오상, 아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감독 주경중, 주연 김태진 전무송
-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2003년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 4개부문 석권-감독 김기덕, 주연 김종호 서재경
- ▲ **'오세암'** 2004년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심사위원상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하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와불사,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백마사,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화엄사,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토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영암사,잠산사) ₩ 390,000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 왕복 선박료, 호텔(4성, 4성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만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선내 포함)
- 불포함사항 :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팁,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바다에도 포교바람 일으키겠습니다”

대한경불회 2대 회장

한진호 인천경찰청장

“신행활동의 불모지였던 해양경찰청에 불교회 ‘연꽃’을 심겠습니다. 또 기존 단위 기관 경찰불교회 활동도 내실화해 경찰불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2대 대한민국경찰불교회장으로 선임된 한진호 인천지방경찰청장(55·보명·사진)은 6월 22일 경불회 중앙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출범 4년차 경불회의 향후 발전 방향 밑그림을 이렇게 제시했다.

“경찰불교회는 그간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106곳의 경찰 기관에 불교회를 창립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경찰 포교의 사각지대였던 해양경찰청에 불교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불회가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모범 직장신행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장은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산하 13곳 기관을 대상으로 불교회 결성 유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인근 지방경찰청 불교회와 자매결연을 유도해 불교회 창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청 불교회는 산하 경찰서 불자회 활동의 구심점입니다. 동일 지역 내 경찰불자들이 상호 유기적인 신행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법회도 합동으로 봉행할 수 있어 지역 경찰불교 활성화에 초석이 됩니다. 지방청 불교회가 중심이 되고, 산하 경찰서 불자회가 활동력의 기초가 되는 튼튼한 경찰불교 신행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한 청장은 이와함께 미창립된 전북지방경찰청 불교회 출범을 추진해 전국 총 13곳의 지방청 불교회 창립을 올 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김철우 기자



“우리, 불교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양시청 공무원불자회원들이 6월 23일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 야간기초교리특별반 입학식을 마치고, 교재를 번쩍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수요일은 무조건 불교대학 가는 날

안양시청불자회원 38명 지장선원 단체 입학

회원 절반이 ‘학구열’…“개근상 꼭 받을래요” 한목소리

술동무 8년째인 직장인 권익철 씨(52·제원)와 정미화 씨(50·대원). 앞으로 6개월간 술친구이기를 서로 거부했다. 퇴근 후 한잔의 유혹을 뿌리치고, 불교기초교리책을 집어 드는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또 취기로 오가는 농 짙은 얘기 대신 스님의 감로법문을 듣기로 했다. 이렇게 늦깎이 불교대학 학생이 되기로 마음먹는데 걸린 시간은 단 1초. 순간의 선택에 이의는 없었다.

6월 23일 저녁 7시, 안양지장선원 야간특별반 입학식이 열리던 날. 불교의 ‘불’자도 잘 모른다는 ‘초자배기’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 38명이 단체로 불교대학 문을 두드렸다. 지난해 6월 불자회 첫 닻을 올리고 신행활동은 시작했지만, 경전은 아리송한 암호문이었다. 동료들은 불교가 뭐냐고 물었고, 그때마다 애꿎은 머리만 긁어야 했다.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보겠다는 각오로 불자회원들을 하나둘씩 모았다.

“처음엔 몇 명이나 참여할까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전체 회원 60여 명 가운데 절반이상 가입했으니까요. 속으로만 끙끙 앓았던 불교공부에 대한 고민은 아마도 똑같았나봐요.” 입학 권유를 주도했던 정미화 기초교리반 학생회장의 말은 이랬다.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불자회원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포대화상’을 처음 보고 소주 광고의 ‘금복주’를 닮은 분을 절에 왜 모셨을까 의심을 했었다는 전영순(50·혜안심) 기초교리반 총무도, 기본적인 것도 몰라 불교를 오해할 일조차 없었다는 권익철 씨도 불타는(?) 학구열만큼은 남달랐다.

“공부에 끝이 있겠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지만 똑 부러지게 불교를 배워보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은 빠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늦어서 단 10분만 강의를 들을 수 있어도 반드시 출석해서 개근상을 꼭 받을 겁니다.”

이국희(57·혜도원) 씨의 각오가 인상적이었다.

이처럼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들이 불교공부의 열정을 키울 수 있던 것은 이대학 학장 현호 스님(안양지장선원 주지)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스님은 이들 불자회원들을 위해 수강료를 면제해주었고, 직장인들인 점을 감안해 이번에 특별 야간반도 개설해 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발우 100개를 구입해 불자회원들이 불교의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줬다.

“마냥 기쁩니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해보겠다고 공무원 불자들이 대발심을 내니, 한국 재가불교의 희망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반이 끝나면 경전반도 만들어 지속적인 불교공부의 장을 마련해줄 생각입니다. 또 인근 안양경찰서 불교회, 국토연구원 법우회 등의 회원들도 참여시켜 불교대학을 안양지역 직장불자들의 배움터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입니다.”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불교의 바다로 들어간다. 불교기초교리는 물론 참선 1080배 정진 등 이론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통해 진정한 불자로 탈바꿈하게 된다. (031)444-5935

안양=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한국국방연구원·국방품질관리소 홍릉법우회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집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 홍릉법우회원들은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국방연구와 군수물자의 품질을 높이는 데 법우회원들은 모든 열정과 혼을 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품질관리소에 근무하는 홍릉법우회입니다. 지난 1983년 국방관리연구소 시절 10여 명의 불자들이 뭉쳐 창립된 직장연합 불자회입니다. 한 때는 국방정보체계연구소 불자회원들도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영세민들을 위해 명절 때마다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빠지지 않고 열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노인요양원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벗과 수발을 들면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홍릉법우회가 20년 넘게 지나오면서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쁜 연구원 일정 등으로 정기법회 참석 회원수가 적어 초청한 법사님에게 죄송한 적도 많았고, 회원 결속력도 다



홍릉법우회원들이 올 봄 안동 봉정사 성지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한 모습.

공부하며 불심·애국심 함께 길러

봄·가을 전국 군법당 순례 ‘인기’

법우회에 참여해 정부 출연 국방연구기관의 연합 불교단체였지만, 지금은 두 기관의 불자 70여 명이 열심히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홍릉법우회 신행활동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관련 단체로서 우리 법우회는 군내 사찰을 중심으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군법당 화랑호국사 청안 법사를 모셔 법회를 봉행하고 있고, 춘·추계로 나눠 전국의 군법당 및 유명사찰을 찾는 순례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특히 군법당과의 지속적인 만남은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장병들의 애로점과 군수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자원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법우회가 소 떨어져 법회가 겉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홍릉법우회보>로 회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고,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마련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릉법우회는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불서보급 운동을 벌여 비회원들에게도 나눠주고, ‘불자 1인 모셔오기’ 운동도 전개해 회원을 늘리는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숲속의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반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박2일 동안 경기도 다송원을 방문해 ‘숲속 산책’, ‘새벽명상’, ‘자연식 체험’, ‘마음의 거울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불교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이종인 회장(책임연구원)

사찰 수련회 및 여름불교학교 티셔츠 기획전

티셔츠 기본 색상
카키, 베이지, 소라, 오렌지, 연옥, 검정, 홍색, 코발트, 곤색, 멜란지, 자주, 백색, 분홍, 노랑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1520



▮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 20수 이중 라운드티 5,200원(아동) 5,500원(일반)
▮ 20수 아동 폴로티 6,500원
▮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 배색라운드 티셔츠 6,000원
▮ 20수 2선 나그랑 라운드티 6,500원
▮ 20수 나그랑 라운드티 6,000원
▮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
▮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

추천상품
▮ 법구경카렌다 1,500원
▮ 연꽃저금통 2,500원
▮ 동자저금통 4,000원
▮ 풍경 차걸이 4,000원
▮ 캐릭터 열쇠고리 개당 2,000원

* 마하몰 T-셔츠 캐릭터 *
* 순면 20수 코마사 100%
-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원단
* 순면 30수 코마사 100%
- 대중적인 티셔츠로 부드러운 질감
*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 단체명·사찰명 원하는 이미지 인쇄가능
* 나염비(1도당) 15,000원 추가
(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 최소주문수량 50장
*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예금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현역리학 연구원

◆ 생활역학 전문 교육처
- 고 자강 이석영, 고 단원 이병렬선생의 전통 학문 강의(초급~고급)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 전수
  한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수

◆ 작명학 강의
- 본명 사주의 오행균형법 원형이정의 수리법 부족된 자원보충법
  음령법 사상체질법 체계적인 이론연구의 정통작명 비법 전수

※ 갑신년 개요 : 강의록 테이프와 자료 판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현대기림오피스텔 1004호

02)2243-9598. 018-470-6314

예수재, 49재, 천도재, 화청, 바라, 나비무, 점안식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91-5692
범음범패 이수자 성불암 용산 합장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역학개인지도
사주에 필요한 모든것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 스님은 특별우대 *
밝은미래를 여는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천도재 구병시식
태중아기영가 49재
천도 전문도량
(9월경 제 2회 예정)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실버하우스 오픈
산좋고 물좋은 경기
양주땅 감악산 율림선원에서
여생을 가족처럼
지내실 인연을 찾습니다
031)867-1801~2
011-792-0550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팔공산 전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회수 55세 이상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공양주보살님모심
헌책 택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259-5989

레이키(Reiki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기간 2~3일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도메인: 국제타로학원
전화: 02)720-5719
720-5682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국제타로학원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행자 모집합니다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정릉)02)917-3363

서울과 서울근교
사찰 토굴 포교원 운영
수행하면서 생활할
비구, 비구니스님 초빙
017-390-0909
019-9108-0909

약간의 시주금으로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절에서
기도생활하실 분
▷서울 강동구 포교원
016-261-2068

토굴, 작은 암자, 외딴
촌집, 불사 가능한 터
(땅) 시주해 주실 분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1-9122-0509
011-9416-2261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기도 하시면서
운전할 비구스님이나
처사님을 모십니다
▷운전면허소지자
041)864-9143
011-392-6885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010-6384-7557

사찰에서 일자리를
원합니다
50代 독신처사
▷1종대형면허소지
011-262-6861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공부 요양
하실 분 모십니다
▷경남 합천땜 옆
055)932-5706

행자 및 부전스님 모십니다
▷45세 미만
재단법인 대표전화
031)764-3399
주지 011-779-4496

공양주 구함
조계사에서 1시간거리
산세수려한 천년고찰
031)948-4440
011-9920-5321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064)746-0567

새 법당에 후불탱화
보시할 분 모십니다
도심포교원에서 평생
기도 생활하실 분
모십니다
016-261-2068

공양주보살님
급히 모십니다
010-8675-3407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571-6479

가족처럼 함께 할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기화성
▷조계종 무우사
011-9205-5679

가족처럼 함께 할
공양주를 모십니다
031)719-0408

유치원 원감
비구니 스님 한분 모십니다
▷경북구미반야유치원
054)452-0845

기도스님을
구합니다
054)833-2324
054)834-6934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45~55세
▷경기도 일산
017-361-4513

기도 노전이나
개인사찰 주지
원함
019-590-3558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뻑뻑함.
* 침침함, 눈부심, 가려움, 이상하게 보임.
* 당뇨등 다른 질병으로 인한 눈 이상.
* 눈 수술전후, 기타 눈의 불편증세

눈에 뿌린 물질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日本 (주) MERCURY-MK
일본 성인병 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2237-8004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백혈병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대원사 어린이 불자(김선정 엄사초등5학년)가 불치의
백혈병에 걸렸으나 막대한 수술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사경을 해매고 있습니다. 불자여러분의 정성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원사 주지 조석용
● 후원계좌 : 농협 461083-51-009439 예금주 대원선원
문의전화 011-436-7529 / 042)841-7830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 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절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빙의된 분 별도상담)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7. 5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월 첫주 금요일 (주 · 야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易學, 더 이상의 학문은 없다 -입문편-
왕초보부터 외국인까지 이 책 한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녹현방정식은 몇 천년간 내려온 두루뭉실한 이론을 세계 최초로 수치화하여 공식에 대입하였다.
헷갈리지 않는 **격국**(용, 희신=추구하는 삶)과
심성체질(원초적인 본능=끌려가는 삶)이 나오며,
운의 순위(마음의 만족도)와 **격국의 크기**(상, 중, 하격)까지 나온다.



녹현 이세진 지음 / 신국판 / 448페이지 / 정가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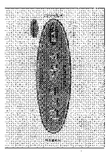
도표 사진 등 최신 기획자료 4백여점을 집대성
佩鐵 向法 九星 紫白을 해설한 국내 최초의 결정판
풍수학논법
본서는 불필요한 논리전개과정을 과감히 축소하고 핵심에 바로 접근하는 지름길 안내를 시도했다.
내용과 표현방법을 단순화 해 흔한 스타일의 표현은 탈피했다.
부록 / 나만의 모순일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성재권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페이지 / 정가 25,000원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 · 양장본
값 3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변적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헤서 명리진평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헤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杜國辨/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46평
- 요사 : 8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7억5천(급매)
- 납골당 1000기 시설완료

- 위치 : 전북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5천

- 위치 : 강원도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240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온천3동
- 71평 3층
- 법회즉시가능
- 가액: 전세 7천만원 (5천만원에 월20만원)
- 포교당 15년 됐음
- 시설비 없음

011-9571-1710

사찰안내

- 위치: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
- 평수 : 대웅전 30평, 요사채20평,산신각 별도(5평)
- 가액 : 1억

※ 꼭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1-723-6640

포교원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 4층(40평)
- 방 2개, 주방(단독주차)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 800만원
- 특징 : 주변 주택 및 APT밀집지역 포교에 최적지임

02)436-364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3억

- 위치 : 경기
- 부지 : 900평
- 법당 : 33평
- 요사 : 60평
- 가액 : 1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암사동
- 평수 : 약 25평 큰방1개, 작은방1개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2천2백만원
- 철학관 환영

018-333-3205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 법당 : 35평
- 요사채 : 45평
- 전세 : 5천만원 월세 3천만원, 월 30만원

031)535-5063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공릉1동 아파트상가2층 전체 (6,7호선 태릉 입구역 400m)
- 평수: 전체 (32평), 법당(11평), 요사2동(12평)
- 실내 인테리어 완료, 역세권, 북부지원 인근. 가액 1억6500만원

011-9650-6104
02)949-6604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남면
- 대지: 171평, 요사채70평
- 상태: 온돌방2개, 보일러방5개 입식주방, 샤워실, 화장실2개
- 마당에 텃밭 있음
- 교통편리
- 가액 : 3천 8백만원

054)638-3058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02)481-36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진천
- 평수 : 1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15평
- 양도가 : 2500만원

- 위치 : 강원도 정선
- 부지 : 5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양도가 : 8500만원
- 산세좋고 계곡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중앙동 (버스정류소앞 지하철 1분)
- 평수 : 55평 4층 전관,법당 20평 온돌방 6개, 삼존불, 삼존탱화, 욕실크고 주방2, 엘리베이터有
- 내부한옥식으로 잘 꾸며져있음
- 전세합 7천만원, 월50만원

011-9678-2979
018-801-2566

절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 평수: 전 2000평 (터 정리됨)
- 토굴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부엌1동
- 상태: 독립된 청정계곡 도로포장됨
- 가액: 5800만원

010-4752-2758

사찰안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011-9415-6831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시화 신도시
- 시설완벽 최고급
- 내부실평수 53평, 베란다 약 20평
- 난방 전기 큰방2, 거실겸주방 1, 샤워실겸화장실2, 엘리베이터, 주차장완비
- 가액: 보증금+시설비 포함 6천만원에 월60만원
- 살림일절, 몸만오셔서 포교하실분 따로상담가능

031)432-740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3동 건물 4층 콘크리트
- 1층 법당. 2층 공양채. 3,4층 주택
- 산을 끼고 있으며 용도변경 가능함
- 법당 부분 주불 관세음보살 호신불 305불 조성되어 있으며 단청되어 있으며 법당 시설비는 일체 받지 않음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051)343-5689
011-597-888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북한산)소재
- 부지 : 250평
- 법당 : 40평(임법당)
- 가액 : 8억(전세가능)
- 특징 : 북한산 자락의 조용한 사찰임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소재
- 법당 : 35평(임법당)
- 가액 : 3천만원
- 특징 : 시내에 인접한 조용한 토굴로 공부할 스님과 기도정진 할 스님에게 적합합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운양면
- 건물: 일반 한옥 사찰
- 요사채, 총건평 45평 대지 159평 삼존불, 각단 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교통편리 (거창에서 김천방향 국도변)
- 모든시설 사용이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운을 얻게 하소서!

숨쉬는 흙, 황토로 조성한 황토달마



원적외선 방출!
천연가습효과!
공기청향!

◆ 규격 :
가로 200mm
세로 300mm

◆ 특별보급가 :
~~₩98,000~~
₩44,000

◆ 연락처 : 011-701-255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 법당 12평(목조),
- 요사채 25평(현대식)
- 가액: 9천만원 (불기 및 비품 일체)

016-652-7547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2천만원

※도심 주택지 2층 임법당

[토굴]
- 위치 : 성주 가야산
- 대지 : 230평
- 주택 : 36평
- 가액 : 1억500만원

※가야산의 풍수만점 토굴

[포교당]
- 위치 : 부산 금정구
- 면적 : 52평
- 가액 : 전세 3천(월30만)
- 시설비 : 1600만원

※시설 교통 주차만점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양한 매물(50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신축사찰-1억3천5백만원 (전세 4천5백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의정부시 시청앞 공영주차장 앞
- 5층 건물에 4층, 42평
- 방1, 주방1, 도시가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약정

031)873-8171~2
011-258-643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산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 상가 2층 법당 실평수 20평 (사정상급매)
- 방2개, 넓은 응접실, 편리한 구조
- 시설비 : 300만원
- 가액 : 전세금 2,500만원

011-519-0808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주문진 IC근처
- 대지 : 500평, 법당1-80평, 신축회관, 한옥 23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임야 6천평-3천만원 (동해바다가 보임)

033)661-1375
011-202-8288

암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 법당, 요사, 산신각, 용화전, 용왕전, 정각2
- 경치 좋고 산세 수려함
- 평수 : 2530평 (평당 30만원)
- 실버타운 가능

011-9126-2266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30만원 권리금 1500만원

051)503-0908
019-291-5558

도심의 사찰

- 위치: 원주시내
-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각, 요사채2동, 스님방 별도
- 가액 : 2억 5천만원

011-327-586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 대지 : 600평, 법당 20평, 요사채 40평, 공양간, 사무실
- 가액: 4억5천만원

011-9387-4446

사찰안내

- 위치: 팔공산 갓바위 밑 아늑한 소나무 숲속
- 텃밭있고 주차장 넓은 신축법당
- 삼존불 넓은 거실 방4개
- 스님 대불사 관계로 급매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537-1739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1천8백만원

032)511-4974
부전스님 필요하신곳 연락바랍니다

사찰안내

- 위치: 대구
- 대지: 102평(신축건물)
- 금액 : 3억 1천만원 (융자 4천만원 포함)
- 법당 : 28평 ● 요사채 : 45평
- 방5개, 구조편리, 화장실4개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마산시 내서읍
- 평수 : 약 100평
- 대웅전, 주지실별도, 후원채
- 가액 : 9천만원 (융자 2천만원) 7천만원 인수

010-8524-225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2층 건물
- 시설: 삼존불, 각단 탱화
- 평수: 전체50평 중 법당 20평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 사정상 급 안내

016-640-8133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평수 : 25평
-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져있음
- 보증금 : 1500만원,월30만원
- 시설비는 답사 후 절충요망

010-7128-5195

포교원안내 (매매가능)

- 위치: 부산시 구포동
- 평수 : 5층 건물중 4층 50평
- 가액 : 전세 4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 : 대웅전 32평, 요사채3실, 공양간 1실(닫집,영각등 시설 최고급)

051)337-5517
019-841-5515

사찰안내

- 위치: 수원시내 주택지
- 대지 61평, 건평 50평 2층 법당 요사 겸
- 후불탱화,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 법회시설완비
- 가액: 1억6천만원

031)254-6425

사찰(급)안내

- 위치: 대구 파계사 근교
- 대지: 306평
- 건평 : 6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5평 큰방 5개, 화장실 3개
-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남
- 가액 : 2억3천6백만원 (융자별도)

011-9371-0856

사 찰 안 내

- 위치: 정동진(바다바로옆 위치) 전망최고
- 오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1동은 건물등기 되었음
- 몸만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033)644-5797
011-9918-5251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시내 10분거리, 도로변
- 평수 : 30평 독채
- 큰방 2, 주방, 샤워실
- 가액 : 전세 1천3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무
- 역학 하실분 적당

055)386-2376
017-563-4602

사찰안내

- 위치: 동작구 사당동 7호선 남성역 부근
- 평수: 약 45평 2층 건물중 2층 전체
- 가액: 보증금 1천500만원 월 90만원
- 시설비: 답사후결정
- 구조: 법당, 큰방2, 공양간, 접수실

011-9808-0108

사찰안내

- 원주 치악산 신림면 (가나안농군학교 쪽) 국도에서 마을지나 10분 내거리~사찰까지 차량진입
- 산림보전지역내(종교용지, 대지, 전)1860평
- 법당(목조기와15평/단청미비/후면 및 좌우 산림 우거지고 전면 트여있어 산세 및 경관 수려하고 법당좌측으로 청정약수와 큰개울물 접해있음)
- 요사채(세멘기와 벽돌조 30평 / 방3, 부엌, 거실, 욕실) 및 창고 5평 (벽돌조). 새집같이 깨끗함
- 요사채(무허가건물 13평 / 방3, 부엌) 및 창고 3평
- 지하수(배관70m 깊이 시공됨) ● 가액 : 1억 9800만원

011)9685-5004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 찰 안 내

- 위치 : 포천시 경기 승마공원 입구
- 부지 1천3백평
- 건물 53평, 25평
- 17평 3개동
- 가액 : 3억5천만원
- 서울강남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사찰안내

- 위치: 대전시 중구
- 대지 : 85평
- 3층 : 법당35평
  2층 : 요사50평
  1층 : 식당임대 50평
  지하 : 공장임대 50평
- 양도가 : 4억3천(융자있음) 3억에 인수가능

011-688-3521

포교당 안내

포교당 운영하실분

- 스님 의 건강상으로...
- 역세권 70평
- 5층에 5층 건물
- 법당, 요사채 분리
- 시설비 및 보증금 포함 6500만원
- 불교대학 현재 운영중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1-750-5424

포교당(임대)안내

- 위치: 대전광역시 대흥동 보문산 입구
- 평수 : 25평
- 시설 : 2층에 위치, 법당 (삼존불), 탱화, 거실, 부엌 살림 일체 있음
- 즉시 양도 입주가능함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절충가능함

042)527-3800
017-403-3800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 당고개역 부근
- 현대식 건물 법당 1, 요사채1, 창고1, 용궁전, 산신전, 미륵전, 약수, 방 6개, 부엌 1개, 화장실1개
- 산세가 수려함
- 지하철 도보 10분거리
- 답사 후 가격결정
- 가액 : 6억 5천만원(절충가능)

011-398-3828

사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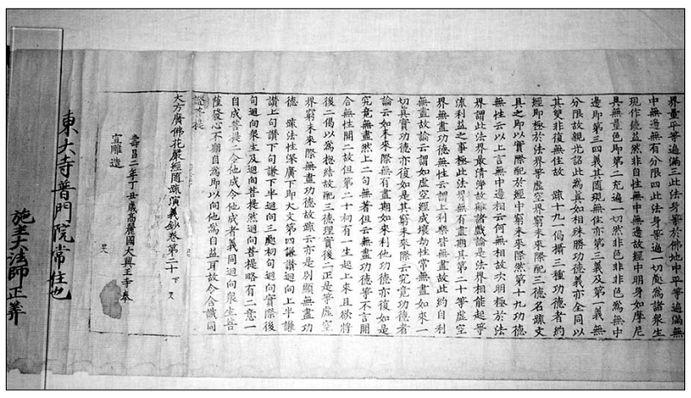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 가액: 2억5천만원 (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속장경’은 ‘교장(敎藏)’으로 불러야

의천이 수집 편찬한 것은 삼장관련 연구논문들

일본 학자가 잘못 사용… 교과서 · 사전도 그대로 써


의천 스님이 간행한 원각본 교장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에 의천은 고려는 물론 송과 요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고려 초기의 의천이 편집 간행한 대장경. 고려 현종때 초조 대장경을 간행한 바 있다. 이어 거란 대장경을 참조하여 고려 문종 때 완간하여 속장경 또는 고려 속장경이라 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와 민족문화대백과에 실린 ‘속장경(續藏經)’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는 몇 가지 오류가 담겨 있다. 의천 스님이 수집 · 편찬한 것은 경전이 아니라, 경 · 율 · 논 삼장(三藏)에 대한 연구논문(章疏)들이었다. 따라서 대장경과 같은 범주로 묶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대장경의 속편이라는 뜻을 지닌 속장경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속장경이란 명칭은 잘못된 것이며 ‘교장(敎藏)’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주인공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박상국 실장. 불교서지학자인 박 실장은 6월 22일 의천 스님의 원각본(原刻本, 원래 목판으로 인쇄된 서적) 사진을 공개하며 속장경이라는 명칭의 그릇된 사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사진은 일본 나라의 도다이지(東大寺)에서 촬영한 것으로 사진으로나마 원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교장이 바른 이름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통된 연구논문들을 의천 스님이 목록으로 정리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이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난다. ‘여러 종파의 교장의 목록’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연구논문들을 교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대각국사 문집에 있는 ‘대세자집교장발원소(代世子集敎藏發願疏)’, ‘대선왕제종교장조인소(代宣王諸宗敎藏彫印疏)’ 등에서도 분명히 교장이라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장이 속장(경)으로 불려지게 된 건 왜일까. 박 실장은 고노 겐묘라는 일본인 학자가 1911년 저술에서 속대장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시초로 본다. 속대장경이란 대장경 후편의 의미로 일본에서 사용됐던 말이다. 국내학자들은 고노 겐묘를 따라 아무 의심 없이 속장(경)으로 불러왔고, 국사 교과서에까지도 버젓이 속장경으로 올라 있게 된 것이다.

박 실장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에 이미 속장경이란 명칭이 잘못됐고, 교장으로 불러야 함을 주장한 바 있었으나 그간의 잘못된 용어 사용의 관행을 고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장을 속장(경)으로 불러 생기는 부작용은 단지 명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장은 물론 대장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야기하고, 잘못된 개념이 고착화되면 학문의 발전까지 왜곡될 수 있다.

박 실장의 가장 큰 바람은 국사 교과서의 ‘속장경’이 교장으로 바로잡히는 것이다. 교과서가 속장경이라고 적는 한 바른 이름인 교장이 설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北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될까?

고구려 고분 등 신청, 28일부터 유산위 총회

북한과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여부가 6월 28일부터 7월7일까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서 가려진다.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유산 검토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를 권고한 바 있어서 등재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5개 지역 63기의 고분을 ‘고구려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는데 △동명왕릉 주변 고분 15기 △호남리 사신총 주변 고분 34기 △덕화리 고분군 3기 △강서삼묘 3기 △독립고분 8기가 포함됐다.

중국은 ‘고구려의 수도와 왕릉, 그리고 귀족의 무덤’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다. 포함된 유적은 △요녕성 환인현의 오녀산성 △길림성 집안(吉林省 集安)의 국내성 △길림성 집안의 환도산성 △동구 고분군 △태왕릉과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오회분 △왕자총 등이다.

북한은 2002년 1월에도 고분 63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했으나 보존 및 연구 미흡 등의 이유로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내달부터 온라인서비스 한국불교전서 9 · 10권

한국불교전서 9 · 10권이 7월 초부터 온라인으로 서비스된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1999년에 1 · 2권을 시작으로 매년 두 권씩 입력해왔는데, 올해 9 · 10권을 추가 총 13권 중 10권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불교전서 온라인 서비스는 전자불전연구소의 홈페이지(http://ebti.dongguk.ac.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02)2260-3504


법주사에서 참선정진 중인 한국선학회 회원들.

토론과 실참 여름공부 ‘만족’

한국선학회 법주사서 ‘학술발표 및 선수련회’

선 학자들이 학인 스님들과 토론하고 실참하는 이색 학술회의가 열렸다.

한국선학회(회장 현각)가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속리산 법주사(주지 도공)에서 학술발표회 및 선 수련회를 가진 것. 한국선학회와 법주사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법주사 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발표회에 동참하고, 다양한 실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6월 19일 법주사 궁현당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는 선학 전공자 40여명과 법주사 승가대의 학인 스님 20여명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선 이론을 연구하는 이들과 줄가 수행자가 만나 수행과 이론이라는 서로에게 취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토론 뒤에 참석자들은 상견례를 가지며 선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공유했다. 박영희(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연구원은 “스님들과 함께 발표회를 가지니 마음이 경건해지고 긴장도 됐다”면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발표회에 이어 열린 선 수련회는 선을 학문적으로 다루어오던 학자들에게는 실참의 기회가 되었다.

참선정진, 금강경독송, 산내 암자 경행, 혜정 스님 법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운월 스님(동국대 강사)은 참선에 유용한 요가의 자세를 지도하고, 일일이 교정해주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학자와 학인 스님 간에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아쉬움 또한 못지않게 크다. 아직은 어색함이 너무 커서 기대했던 만큼 토론이 치열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서재영(동국대 강사) 한국선학회 간사는 “학자와 수행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며 “우선은 자주 만나야 한다”며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0>

현대면역학과 참된 나

생명현상의 가장 중심에는 각 생명체의 개체성(個體性)이 있다. 다시 말하여 모든 생명체는 각자 고유한 개체로서 각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부모가 대신 병들어 죽어줄 수 없다는 한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생명과학의 가장 기본적 목표는 이러한 개체성 유지이며, 복제 장기나 이종(異種)간 장기 이식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체성을 극복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많은 분야의 생명과학 중에서도 개체성을 연구하는 학문은 면역학(免疫學)이다. 재미있는 것은 생물의 개체성을 규명하는 면역학이 특정 물질이나 세포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고 결국 그러한 각 구성체 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이다. 면역학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진정한 자기(自己)와 이를 침입하는 타자(他者-세균, 바이러스 등의 침입자) 간의 관계, 혹은 진정한 자기와 착각하고 있는 자기 (종양, 암)와의 관계를 다루며, 이러한 관계는 수많은 생체 물질이나 세포로 이루어진 망(network) 구조이다.

건강한 면역 상태란 그러한 망 구조가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면역기능이란 그러한 조화로운 상태를 진정한 자기라고 인식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능에 불과하다. 결국 면역학적인 참된 자기는 마치 부처님의 연기법처럼 고정된 실체 없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단지 그 조건에 의하여 특정 결과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 내 몸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대면역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진정한 신체적 자기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고 모호해진다. 면역이 외부 침입하는 이물(異物)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면, 과연 보호 대상인 나는 누구인가? 현대면역학적 대답으로서는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균형 잡힌 조화로운 상태인 것이다. 이 상태는 단지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이 조화로운 상태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체간의 관계 속에서 계속 변화하는 동적 구조이다. 그래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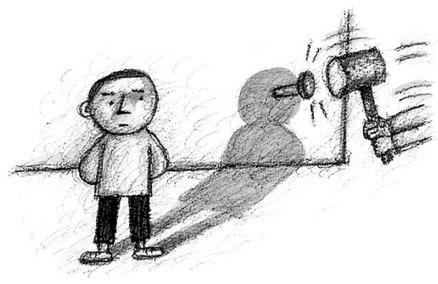
생명의 개체성 조화와 균형이 중요

‘참된 자기’ 외면한 삶 암에 걸린 상태

람이 장기 이식을 받을 때 그 시점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과 잘 맞는 장기를 이식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렇듯 현대 면역학은 고정 불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피고 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부처님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암세포가 자신으로부터 생겨난 탓에 우리의 면역계는 건강한 세포와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참된 자기는 외면한 채 희노애락 속에 허망한 자기를 참된 자기로 알아 애지중지 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일종의 암에 걸린 상태와 같은 것이다. 오직 깨어서 단지 속지만 말지니.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 2004년 7월 11일 - 8월 30일(만 50일간)
[2]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 2004년 8월 15일 - 8월 22일(만 7일간)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금주의 발원

이제여기 사랑하는 한가족이 한데모여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네를 찬탄하며
넉넉하고 슬기롭고 화목하게 살아가길
두손모아 마음모아 지성발원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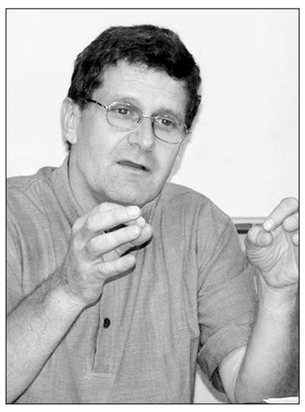
바라건대 저희들이 생활하는 그가운데
일곱가지 바라밀다 보살도를 항상닦아
나눠주고 아껴주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여유롭고 지혜롭고 용기있게 하옵소서

이세상의 복전으로 제일가는 불보살님
믿는마음 더욱깊고 가족들은 건강하고
학업성적 날로늘고 사업날로 번창하고
세운목표 확실하고 언제든지 화목하고

좋고싫고 있고없고 남녀노소 지위고하
믿음있든 믿음없든 마음활짝 열어놓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게 하옵시고
부처님의 크신은혜 모두갚게 하옵소서

마하반야바라밀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정명은 삶속의 수행 원리" 로카미트라 TBMSG 지도법사 내한

"붓다가 만약 우리의 발전을 원한다면 남의 변화를 도우라는 가르침을 내리셨을 겁니다. 이 말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새롭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로를 돕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모임인 '상가'가 바로 그 모델일 것입니다."

인도 3억 불가촉천민의 자기각성과 변화를 이끌어온 로카미트라 법사(사진)가 6월 22~29일 참여불교재가연대 초청으로 방한했다. 24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삶과 수행의 조화, 정명을 실천하는 공동체 TBMSG' 주제의 강연에서, 그는 1979년 창립된 TBMSG(범세계불교단우의회)의 근본정신을 팔정도의 하나인 '정명(正命)'이라고 설명했다.

"정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올바른 생계 직업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TBMSG의 수행자들은 정명에 입각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윤리적 정신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일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수행의 목표는 달성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바로 정명은 삶 속에서 수행을 발견하는 원리가 된다고 말했다.

로카미트라 법사는 24, 25일 재가연대 강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예방, 27일 세계여성불교대회 참관을 하고 29일 출국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봉원사, 단오맞이 영산재 시연



서울 봉원사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6월 22일 신촌 봉원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단오맞이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시연회를 봉행했다. 이날 시연회는 인간문화재 50호 영산재 준보유자 구해, 전수교육보조자 일운 스님의 의식집전으로 관욕, 괘불이운, 식당작법 등이 진행됐다.

대불련동문회, 국회의원 당선 축하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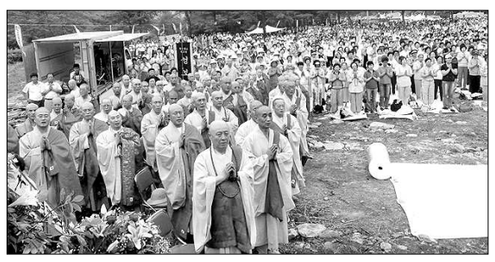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성기태)는 6월 24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제17대 국회의원 당선 축하 동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세일(한나라당), 안홍준(한나라당), 이영호(열린우리당) 의원 등 대불련 동문 1백여명이 참석했다.

강원지방경찰청 불교회, 성지순례



강원지방경찰청 불교회는 6월 20일 합천 해인사, 안동 봉정사에서 제3회 하계 성지순례를 봉행했다. 이번 순례는 강원지방청 경승단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지방청, 강릉, 원주, 평창, 횡성서 불교회 120여명이 동참했다. 원행 스님은 "앞으로도 경찰 불자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온 생명존중 실천법회 봉행



태고종은 6월 24일 완주 봉서사에서 '온 생명운동 실천 포살 영산수륙 대법회'를 봉행하고 환경과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만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또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무참히 피살된 故 김선일 씨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불자가수와 스포츠 스타들 나눔의 집 방문



불자가수 이효정 씨, 대구 오리온스 프로농구단 김병철, 박재일 선수, 스포츠 건강식품업체인 4-라이프 코리아 직원 등 50여 명은 6월 20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다채로운 위문 공연 행사를 가졌다.

일주문



범어사승가대학장에 부임

前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이 최근 부산 범어사 승가대학장에 부임했다. 스님은 교육원 고시위원장, 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규 교직원 하계 수련회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은 6월 23~25일 평창 월정사에서 신규채용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상반기 결산총회

서울 성북구 불교사암연합회장 정수 스님은 6월 22일 성북동 정법사에서 상반기 결산총회를 열고 오는 9월 구민걷기 대회 등 하반기 사업을 협의했다.



진각논문대상 시상식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는 6월 17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종학연구실에서 제6회 진각논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7월 4일 수덕사서 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노옥섭 회장은 7월 4일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계사로 제5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739-1080



'우주법계의 근본원리…' 주제 강연

천문학자 이시우 前 서울대 교수는 7월 4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우주법계의 근본원리, 연기로 본 금강경'을 주제로 강연한다. (031)676-8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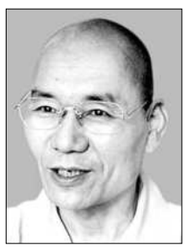


봉선사서 간부수련회 개최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7월 3~4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간부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017-353-3535

"후배들 공부에 도움 되길"

불서 3천권 중앙승가대에 기증



송강 스님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아무 상관없는 문화센터에 방치될 뻔한 귀중한 불교관련 서적들이 후학들 학문발전을 위해 쓰여 질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서울 개화산 미타사 주지로 있는 송강 스님(사진)은 최근 중앙승가대 도서관(관장 태원)에 국내 · 외 불교관련 서적 3000여권을 기증했다. 무려 소형 트럭 2대를 가득 채운 170상자 분량.

스님이 이렇게 많은 불교서적을 기증하게 된 것은 서울 사간동 비원 앞의 외국 서적 전문점 '알타이 하우스'의 조관준 사장과의 인연덕분이다. 스님은 지난 1980년 중앙승가대 재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조 씨가 지난 2월 세상을 달리하면서 서점에 남은 귀중한 불교관련서적들을 놓고 유족들이 고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기증도서 가운데는 티베트장경(패엽본), 미얀마, 팔리어, 중국경전 같은 내전이 40%를 차지하고 그 밖의 불교학 관련 외전이 60%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희귀본 서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앙승가대도 "이정도의 대규모 도서 기증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밝히고 6월 14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덕패를 도서관 입구에 설치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공존의 가르침 변화 원동력"

'노자와 붓다로…' 특강



김형효 교수

"도가와 불교는 현실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쓸모없는 허학(虛學)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이들 사상이야말로 유용하고, 세상을 평안케 하는 신실학(新實學)입니다."

6월 23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왜 우리는 지금, 노자와 붓다로 사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진 김형효 한국정신문화원 교수(사진)가 내린 결론이다.

김 교수는 인류의 역사를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어느 쪽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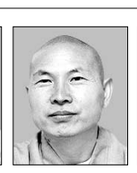
"현실주의가 야기한 경제 · 물질주의의 부작용을 이상주의가 극복하려 하지만, 그 역시 편파적이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김 교수는 노자사상과 불교에서 대안을 발견했다. 만물을 서로 연기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들 사상은 남과 나의 공존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질서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회가 무릉도원이지요. 그러나 만물의 상호의존적 거래의 존재방식을 보지 못하면 자아 중심적으로 만물을 소유하려는 욕심만 내게 됩니다." **박익순 기자**



보광 스님



진월 스님



월암 스님



정범 스님



이평래 교수



이치란 씨



이동호 씨

조계종 제2기 국제교류위원회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제2기 국제교류위원회 새 위원으로 보광(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일본), 월암(중국 북경대 박사, 중국), 정범 스님(조계사 기획국장, 미주), 이평래 교수(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몽고 및 중앙아시아), 이동호 박사(발틱 연구소장, 유럽)와 연임하는 진월 스님(한국종교연합 대표, 미주 및 종교연대)과 이치란(아시아) 씨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고불총림 백양사

이뭣고 하계 수련회 참가 안내

이뭣고?
참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도량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여름 수행의 장을 마련합니다.
하루 밤의 꿈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사람의 수행을 통해 나와 남의 분별과 집착 없는 깨달음을 향해 대 자유인이 되는 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찻 수	기 간	정 원	대 상
40차	7월 28일(수) ~ 8월 1일(일)	50명 (남:25, 여:25)	20~60세 일 반 인
41차	8월 4일(수) ~ 8월 8일(일)	50명 (남:25, 여:25)	
42차	8월 11일(수) ~ 8월 15일(일)	50명 (남:25, 여:25)	
43차	8월 18일(수) ~ 8월 22일(일)	50명 (남:25, 여:25)	20~60세 일반인

◑ 참가자격 : 20세이상 60세 미만 (정원관계로 신청자중 소정의 심사로 선발)
◑ 접수기간 : 7월 24일(토) 오후 5시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서 요청시 팩스 발송)
◑ 접수방법 : 신청서류 전형
◑ 접 수 처 : 백양사 참사람 수행원
전화 : (061)392-0434, 팩스 392-0435
백양사 홈페이지 www.baekyangsa.org
◑ 수련회비 : 9만원 (4박 5일)
◑ 준 비 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운동화 지참 (수련복 지급, 수련후 반납)

2004년 6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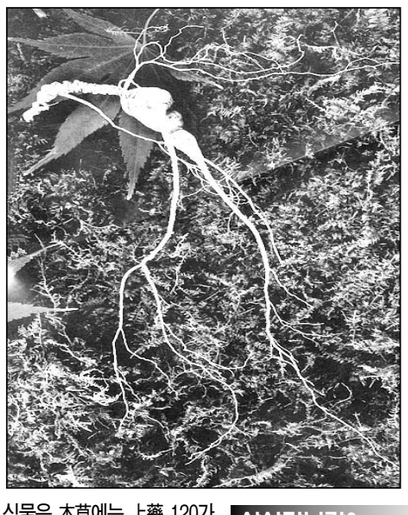
백 양 사 주 지 두백 명공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극작가 · 숭의여대 문예창작과 겸임교수

'춘향'이 파리서 얻은 것

세계정상급 오페라단이 한번쯤 한국에서 공연을 가졌을 정도로 우리 공연시장은 상당한 수준을 자랑한다. 관객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페라단의 해외방문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지원정책의 폐쇄성과 세계 공연시장에서 프로모터할 전문가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최근 글로리아 오페라단(단장 양수화)은 문화의 본 고장인 파리 시내 모가도르 극장에서 오페라 '춘향전'을 공연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외적으로는 고속철도 개통 기념과 한 · 프랑스 친선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열렸지만 한국교포, 파리시민을 비롯하여 양국 문화계 인사 등이 참석하여 한국 오페라의 수준을 과시한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몇 해 전 프랑스 아비뇽축제 사무국에서 한국의 공연문화를 소개하려고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한국의 공연예술 관계자들의 주선과 추천으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공연작품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공연예술이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에 소개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 결국 선택된 것은 판소리였고, 사물놀이가 곁다리로 끼는 정도였다.

오랜 시간 우리의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수없이 많은 논의와 정책이 있어왔고 지원 또한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세계적 문화축제에 내놓을 만한 한국적 국가 이미지를 담은 예술 작품이 없다니….

21세기에서는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가 정치나 경제 등 인간 삶의 중요한 영역 속에 개입하여 규정력을 갖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문화가 이미 인간의 총체적 삶에 작용하는 메카니즘으로 실존하고 있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자할 때 시민들의 요구와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작금의 시민들의 문화수요는 점차 개성화하고 다양화하여 또한 좀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예술을 소비하는 소극적인 향유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과 교양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혁신과 개혁 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 특히 공공 및 민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문화정책의 효율성과 상호 시너지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화시대의 우리 공연예술은 강한 경쟁력이 있어야만 새로운 창조적 기능을 다할 수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술의 정체성 있는 소재 발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전문가 육성을 통해 세계화로 나아가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미지의 세계에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이번 '춘향전' 공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외유명 오페라단이라는 브랜드에 의존한 무분별한 초청공연을 지양하고 새로운 창작 오페라의 소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해외 유명작품에 의존한 기존 풍토는 한정된 소재 그리고 반복되는 공연 등으로 곧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페라 예술이 문화산업의 주류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자산가치를 가진 콘텐츠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춘향전' 파리공연의 호평은 오페라 산업 발전에 큰 자극과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불사와 환경도 '不二'다

한국사회에서 불교계가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지도적 위치를 지닐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그것들 가운데 문화와 환경 영역이 빠질 수 없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통 사찰을 중심으로 오랜동안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온 역사와 현실이 있으며, 또한 민족 문화의 보고로서 수많은 문화재들을 보존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역할에서 축적된 경험과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대승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다 훌륭한 미래의 환경과 문화를 창출해내는 지혜를 발휘해 내야 할 사명 또한 지니고 있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불교계의 환경운동과 문화운동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위상을 쌓아왔다. 경주고속철 통과 반대운동이라든가 천성산 관통 반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검토 촉구 운동 등은 국민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불교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향을 알려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계에서 시도하는 불사들이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환경파괴, 문화 파괴로 호된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불교 환경운동과 문화운동의 권위와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된 해인사의 경우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해인사측의 발표가 있었지만 과연 그 원만한 추진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한다. 왜 미리 철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뒤늦게 진화작업의 성격이 짙은 미봉책이 제시되는가?

한번 떨어진 신뢰는 몇 배의 힘을 들여도 회복하기 힘들다. 해인사의 경우도 그 불사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다. 불교를 넘어서 전 국민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문화유산에 걸맞는 장기적인 개발과 보존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일들을 교훈삼아 범종단적으로 각 사찰 단위에서 즉흥적으로 문화와 환경을 깨뜨리는 불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 통제하여야 한다. 아울러 문화와 환경 영역에 대한 앞서나가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성태용(건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진정한 유산

선남자여, 그대는 가족의 부양을 위해 재물을 모으고 경제적으로 처자나 부모권속을 보살피려 한다. 무엇 때문에 가족이라 하는가? 선남자가 집에서 살 때 식구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워 할 때 같이 괴로워하기 때문이니라.

〈잡아함경〉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 발표로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효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평소 고향을 자주 찾지 않던 자식들이 땅값이 크게 오르자 고향집을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를 찾아 온 자식들은 돌아가는 길에 중개업소에 들러 개발 현황 및 땅값 추세를 알아본다.

이런 현상은 최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과 LCD공장이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시, 판교신도시, 아산신도시 등 개발지역 주변부에 부모를 둔 자식들에게서 최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대접이 부모가 가진 부동산과 비례하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나중에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식보다 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도 세속적인 이익과 계산이 우선한다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과 행복한 삶의 의미는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의 아들 '라홀라'가 열두 살이 되던 어느날 부처님을 찾아와서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십시오"하고 당돌한 요구를 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라홀라의 손목을 이끌고 니그로다 정사로 가서 제자인 사리푸타에게 "이 아이를 출가시켜라"하고 이르셨다. 부처님의 유산은 법이었던 것이다.

■ 조용수(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정체불명 종단 단속할 수 없나

정해놓고 다니는 사찰을 두지 않아 이곳 저곳을 다니고 있다. 특별히 종단을 따지는 것은 아니어서 사찰이 어떤 종단인지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얼마전 찾아간 안산의 한 사찰에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찰에서 무허가 의료와 점술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신심이 부족해 그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도저히 제대로 된 스님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면이 많았다.

이 사찰과 스님의 소속 종단을 알아보았더니,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ㅎ종단이었고, 그 스님은 그 종단의 총무원장이라고 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그 종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렵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곳에 문의를 했지만 모르는 종단이라는 짧은 답을 들었을 뿐이다.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종단설립 인가증을 걸어놓은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 문화관광부에도 문의를 했지만 그런 종단은 등록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사찰은 종교를 팔아 무허가 인가증을 걸어놓고 장사하는 사찰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그 곳에서는 의료와 점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 김분희(인천시 남구 주안동)

청소년이 미래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변하고 있다는 현대불교신문의 기사를 읽고 작은 희망을 느꼈다.

미래 인재양성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투자에는 인색했던 현실을 돌아보자. 청소년 법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사찰이 흔치 않다. 주변에서 청소년법회를 여는 사찰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변화는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생명력은 포교와 수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행은 내적기반을 다지는 일이지만, 포교는 불교계의 외연을 넓히고 불법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불사다. 포교가 수행의 다음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청소년에 대한 포교는 어떤 계층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을 외면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에 조계종을 위시한 한국불교계가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보다 많은 포교종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사찰에서도 청소년을 불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윤성렬(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수련프로그램 다양화를

2001년부터 사찰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수련회를 여는 사찰의 수가 증가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발빠른 대응을 해 온 점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 사찰의 수련회 가운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수련회를 택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일정과 사찰이 위치한 지역을 살핀다. 그래서 실제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찰은 몇 곳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만약 50개의 사찰에서 수련회가 열린다고 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찰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과 일정을 정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련회는 불자나 일반인들이 불교와 사찰, 스님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보다 더 좋은 포교방법도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련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불교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선모(경기 파주시 교하읍)

'현대'만평 심 민 섭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요.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신제품 발매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7-9114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선
중국 오대산 성지 순례 4일 599,000원
문수보살의 도량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응현목탑, 현공사등 성지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배할 수 있습니다.
● 출발일 : 9월 4일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령)을 넘어 우루무치 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 출발일 : 8월 10일
● 일 정 : 파키스탄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 장수 마을)-카슈카르-쿠차 (천불동)-우루무치

■ 티벳, 네팔 일주 12일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 출발일 : 8월 3일
●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트만두

아이디어 라이프 / idea

산을 좋아하는 등산매니아의 꿈의 신발 …

"아이젠부착 등산화 싼스타"출시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국내 최초 특상 수상

신발에 부착된 아이젠 미끄러운 곳에서 레바만 돌리면 안전



(그림1) (그림2)



눈, 비 올 때와 하산할 때 최고

등산화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배낭속에 아이젠(미끄럼 방지기구)을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이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는 아이젠이 부착된 "등산화 싼스타"의 발명으로 등산매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겨울이 아닌 일반 계절에도 하산할 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실족하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나고 특히 여름 산행은 갑작스런 소나기로 등산길이 대단히 미끄러워 아이젠은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이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는 신발 밑창 뒷부분에 간편하게 고정되었(그림1)다가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에 간편하게 레바만 돌리면(그림2)눈이 있는곳이나 빙판길 또는 비올 때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아이젠을 간단히 떼었다 붙였다 할수도 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제네바 발명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신발은 기능성도 최고지만 최첨단 신소재가 총동원 된 등산화로, 신는 순간부터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산행에도 피곤함이 없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신발 과학의 결정체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를 발명하고 개발한 (주)에스더 관계자는 계절에 관계없이 등산에는 꼭 필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한다. 가격 135,000원 (080)555-3080

살 빼는 신발 "스타필드"인기짱

독일 뮌헨 기능성 신발대회 대상수상



▶한국, 미국, 일본 발명 특허

다리는 힘이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 비만으로 고민하는 이 들에게 신기만 하면 다이어트와 운동이 되는 "스타필드" 신발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어트 신발 "스타필드"는 착용자체가 근력 향상과 지압, 스트레칭 효과를 높여 결국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신고 활동하는 자체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 시킨 아이디어가 톡톡튀는 다이어트 슈즈다. 스타필드를 신으면 자연스레 '발중심-발앞굽 보행'만이 가능해 종아리 부분의 근육과 대퇴근이 반복적으로 이완되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도록 설계된 신발이다. 또한 스타필드에 적용된 기술은 뒷굽이 없어 뒷축에 실리는 체중을 분산 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반화를 착용했을 때보다 35% 까지 감소 시켜 준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를 착용해 본 이들은 스타필드의 다이어트 운동효과에 대해 한결도 반듯해 지고 있다며 다이어트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뒤굽을 15 만큼 없앴기 때문에 스타필드는 뒷축이 3cm공중에 떠 있어 키 작아 고민하는 이들이 다이어트의 함께 3cm 커 브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 제조회사 (주) 삼덕통상에서 제작하여 전량 미국, 일본, 독일에 수출되는 이 신발은 국내 보다는 일본, 독일에서 먼저 붐이 일어나고 2003년 독일 뮌헨 기능성 신발대회에서 최고의 대상을 수상한 신발이다. 가격135,000원 (080)-555-3080

▶월 2kg 이상 감량 효과

■ 효도신발의 대명사

기능성 건강신발 '룸비니'국내최고인기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로 국내시장 석권

부모님들 받고 싶은 선물로 1위
갑신년 신발 받으면 무병장수 뜻있어 불티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룸비니 신발 출시 2년 만에 신어본 고객의 입과 입을 통해 10시간을 걸어도 피곤치 않는 신발로 국내 시장을 석권하며 효도신발의 대명사로 브랜드를 굳히고 있다. 한국인 체형에 맞게 인체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로 오래동안 걸어도 발이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진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며 천연가죽중에 최고급인 송쉬는 가죽 뉴백을 사용하고 최첨단 신소재와 몸의 균형을 반듯하게 잡아주고 눈비 올 때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위해 밑창을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했다. 또한 관절염,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신발에서 음이온과 氣와 원적외선을 발산하게 만든 신발이다. 원래는 불자님들의 예불화로 개발했기에 부처님 탄생지 이름 룸비니를 브랜드로 했으나 출시 2년도 안돼 불자님들은 물론 일반인과 기신교 신자들까지도 다른 신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볍고 편하며 디자인도 세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최고급 신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 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던 중,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 해 드린것이 자금은 11km 이상 걸을 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떡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신고 법기 쉽게 지프를 달았으며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는 ㈜ 자를 지포고리에 넣고 밀창에는 가는 곳마다 화를 좋으며,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하는 금강저를 넣어 길 떠날 때에 자신감도 갖게 한 것이 특이하다. 성불화룸비니는 남녀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 준다. 가격 88,000원 문의(080-330-7555) 농협 906-12-369914 김현석

삼고 금강저 건강밸트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삼고금강저 (金剛杵)



삼고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이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단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 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물력으로 악귀와 잡귀도 물리쳤을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장도 튼튼!! •허리도 튼튼!! •승리의 수호신!!

국내 불교성구 전문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삼고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축원 불공을 마치고 출시했다. 1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납치, 살인, 강음, 강도, 유괴 사고등 항상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수호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중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인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모든일에 승리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부처님 성구다.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 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 밸트로 평가 되고 있다. 출시 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손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080-330-7555)

화제의 시계

관세음보살 수진언 복 시계

가지가지 재물과 땅속에 보물을 얻으리라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어려움을 해결 해 주고 각자 소원하는 소망을 성취시켜 주는 영험의 진리를 담고 있다. 불경에 입각하여 불교성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은 관세음보살42수진언 중에서 늠에 지니고 다니면 재물이 들어오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소유하여 가진 재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관세음보살여의주보험수진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시계로 제작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종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 또는 장사가 어려운 분과 가진 재물을 잃지 않도록 스님께서 불자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줘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다. 일본산 고급시계로 앞면에는 관세음보살 여의주 보험수진언을 넣고 뒷면에는 부처님진언을 넣어 품위가 있고 세련되며 선물로도 영원히 남을 듯이 담긴 최고급 선물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여성용은 75,000원과 남성용은 85,000원에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문의(080-330-7555)

관세음보살 백연화 향로

네 소망이 성취되고 후손이 영화롭고 번성하리라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장간불공과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 백연화는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어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피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소원성취 향로다. 특히 갑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꾀었던 일들이 풀린다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음보살백연화 향로는 99%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건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간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화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백연화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여불식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 받고 있다. 가격295,000원 (080-330-7555)



무게2.7kg높이22cm가로17cm

사찰 벽화는 내 스승

조선 시대 이전 전통복식 재현 30년



안악 3호 묘에 있는 고구려 왕비 복식을 그대로 재현한 의상.

"사찰 벽화 속에 제가 염원해 왔고 화두로 삼았던 그 옷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러 가는 귀부인의 옷자락에도, 사찰에서 신도들을 맞는 스님의 소매 끝에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어 있는 듯 저를 잡아끌었습니다."

잊혀져 가는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로 끌어내 무대에 올리는 디자이너 그레타 리(60 · 본명 이용주). 연극 영화에 관심이 있던 그가 무대의상에 재미를 느낀 것이 한복 디자이너로의 새 출발이었다. 그때가 27세, 군대를 제대한지 2년 되던 그 해에 무대의상으로 한복을 만들며 디자이너의 길에 들어섰다.

그때부터 그레타 리의 '화두'는 전통복식의 재현이었다. 정확한 고증작업을 위해 관련학자들과 교류도 갖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벽화와 장신구 등 자료 수집에 몰두했다. 조선시대 이전의 의상을 원형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 오로지 그 한 가지 화두만을 가지고 작업해온 30여년의 세월과 집념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수행자 마음으로 의상 제작

그레타 리의 전통복식에는 다양함이 존재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의상을 한땀 한땀 수행하는 마음으로 직접 만들어냈다. 자료도 빈약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의상을 재현해 낸 그레타 리의 저력, 그 밑바탕에는 사찰 벽화가 있었다.

그가 수소문 끝에 직접 중국에 건너가서 구해온 <보저사 명대수륙화(寶宁寺 明代水陸畵)>(산서성박물관 간)는 첫째가는 스승이었다. 사찰에 참배 온 귀부인에서부터 고관대작, 스님, 보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상들이 불법(佛法)과 함께 벽화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찰 벽화 속 인물화의 섬세한 표현에 마음을 빼앗겨 벽화 속 의상 재현에 몰두했다. 삼매에 들 듯 무아지경에 빠져 천을 제작하고 옷을 만들었다. 왕실에서만 사용하던 금실을 넣어 짠 금직은 주문 제작했다. 의상에 사용된 문양은 중국 · 티베트 · 우리나라 왕실과 사찰에서 발견된 불교문양에서 찾아냈다. 그렇게 그의 옷장에는 전통복식이, 그의 화두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사찰 벽화 속 '보살' 의상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행사에서 마야부인 의상으로 재현됐다. 그레타 리만의 '불교' 의상들은 스님들 사이에 입소문이나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여러 사찰에서 의상 제작을 의뢰해 올 정도로 유명하다. 범패를 공연하는 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의 가사에 들어가는 문양도 중국에서 직접 작업해 들여왔다.

사찰벽화 외에 고구려 고분벽화 등도 그의 스승이었다. 퉁구스 의상전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작업 중 하나였다. 요 · 금 · 원 · 청 · 몽골 · 티베트의 전통 의상을 재현하는 작업을 위해 중국 몽골 등을 수십 번 드나들며 자료 수집을 했다. 사찰 사원들도 빼놓지 않고 둘러봤다. 1998년 9월 경복궁 민속박물관에서 열렸던 퉁구스 의상전에서 재현해낸 궁중의상과 장신구는 그가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된 밑거름이 됐다.

각종 장신구를 수집하고 있는 그의 애장품 가운데는 염주도 수십점 있다. 중국 황실의 화려한 108염주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그의 집에는 인도에서부터 중국 황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의 염주들이 소중하게 모셔져 있다.

그레타 리와 불교의 인연은 그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가본 것이 불교와의 첫 만남. 어린 시절 스님에게 받은 목불은 지금까지 집에 고이 모시고 있다. 중국 몽골 인도 등에서 모셔온 부처님도 여럿이다. 사찰벽화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을 하는 그에게 부처님의 품은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쉼터이다.

'용의 눈물' 사극 의상의 한획

그레타 리가 작업을 한 드라마나 영화들을 나열하면 "아, 그 작품!" 하고 알 정도로 유명한 작품들이 많다. MBC 사극 '조선왕조 오백년'에는 5~6년 간 참여해 의상작업을 도맡아 해왔다. 이미숙 씨가 열연한 '장희빈',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 연극 '춘향전' '마의태자', 영화 '연산군', 창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그의 의상은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전통 복식이 빛을 발했던 작품은 단연 KBS '용의 눈물'. 사극 의상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을만큼 질적 향상을 보였던 그 의상들이 그레타 리의 손끝에서 피어난 작품들이다. 티베트에서 사찰 탱화나 족자 테두리를 장식했던 불교전통문양인 모란 당초문을 금직으로 전통복식에 옮겼다. 금직은 1997년 그레타 리가 처음 재현한 것. 당시 송광사 사리탑에서 금직 조각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듣고 '바로 이거다' 싶어 당장 드라마 의상에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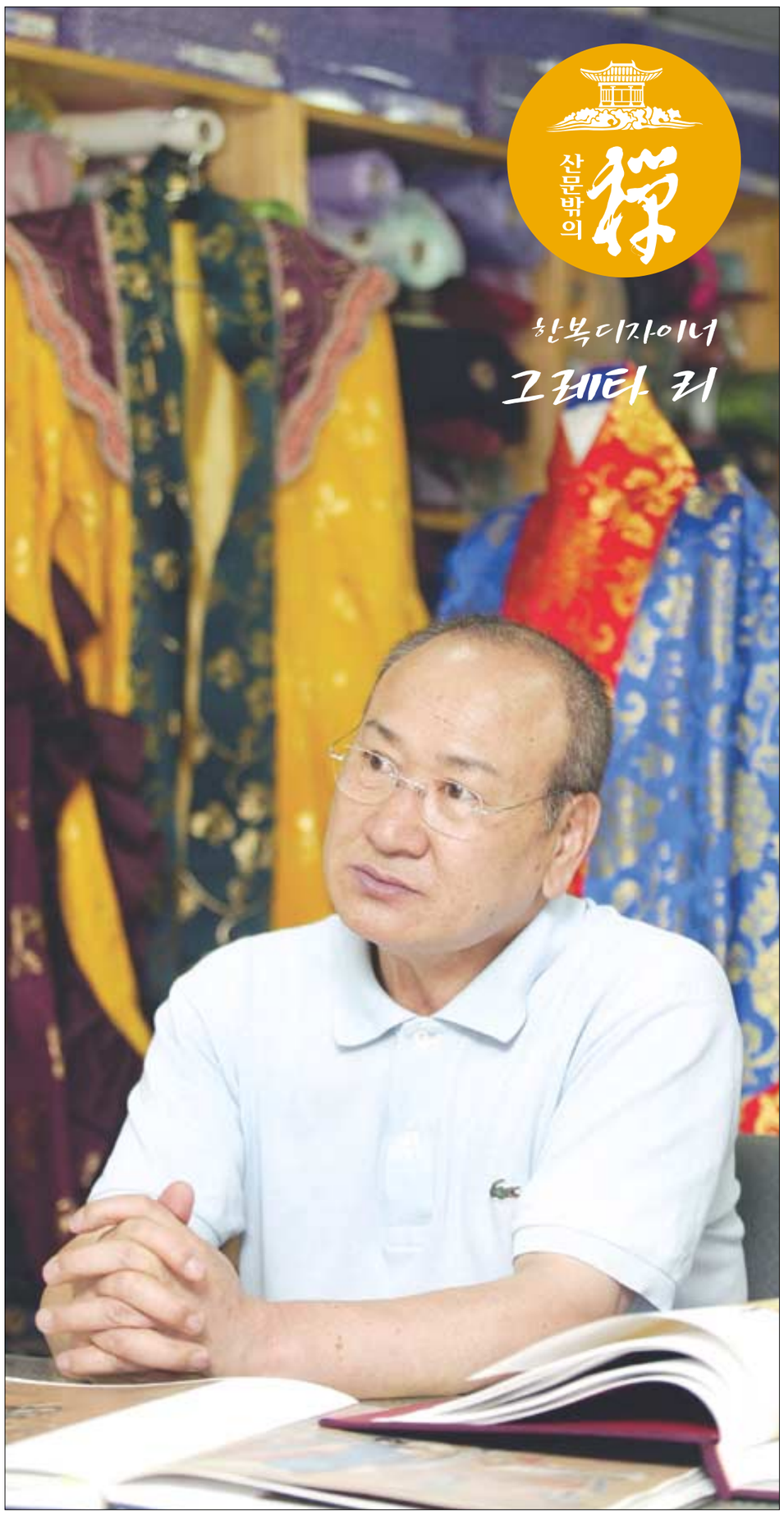
한복 디자이너 그레타 리는 매주 변신한다. 한복 디자이너로, 메이크업 디자이너로, 민속학 · 메이크업 · 의상학 교수로. "한 가지 장기로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레타 리. 패션쇼를 할 때도 모델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직접 해낸다. 그야말로 토탈 패션이다. 후학 양성에도 열심이다. 한성대 의상학과 4학년 졸업작품 담당, 경희대 무용과 민속학 강좌, 한국체육대 무용과 메이크업 강좌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의 강의를 맡았다. 각종 한복 관련 단체 5개를 모아 한복사랑협의회를 만들어 한복 알리기에도 나섰다. 10월 13~15일에는 제8회 '한복의 날' 기념 행사도 마련한다. '한복의 날'도 그레타 리의 주도로 만들어진 날이다.

그의 왕성한 활동에는 든든한 두 아들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복연구가의 길에 들어서 공부하는 두 아들 윤민(30) · 문재(27) 씨와 함께 '전통복식 재현'이라는 화두를 함께 풀면서 한복 디자이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그레타 리가 아들 윤민 · 문재 씨와 함께 조선 왕실 복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왼쪽사진).





특별기고

선문답의 병폐

서울 육조사 선원장 현웅 스님이 실참 없는 법거량의 위험성을 지적한 '선문답(禪問答)의 큰 병폐' 란 기고문을 보내왔다. 최근 몇몇 인터넷 카페에서 초보자가 선문답을 흉내내는 일이 적지 않은 점과 일부 스님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선문답을 그대로 인용하는 병폐를 지적한 글이다.

언제부터인가 선문의 지도자들은 찾아와 묻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거침없이 불법의 대의를 말해주곤 해왔다. 이런 전통은 후학들에게 번뜩이는 깨달음을 경험시켜 주기도 했고 많은 자성의 계기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처(當處)에서 그 때 그 때 경계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일어난 일들이 많았고 또 묻는 자와 답하는 자 사이에 절대적인 믿음(信)이 있어왔던 것들이 대부분이다. 선(禪)은 이 순간을 떠나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것이기에 지혜 또한 경계 경계마다 비추어지는 대로 중생의 미혹된 습을 칼날처럼 베어버렸던 것이다.

입에서 나온 선문답과 삶속 경계가 따로 있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선문답을 기록한 선어록들은 선에 대해 굶주린 후학들의 눈에 배가 고파서 주림을 채우려는 밥인 양 다가가게 해주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가끔 본인 자신도 모르게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면 선이 잘된 것이고 이것이 아니면 먹통이다 라는 문화의식으로 진전되면서, 의리선(義理禪)과 삶 속에 살아있는 선이 구별되지 못할 정도로 병폐를 낳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래 사람들이 귀한 문헌을 의지해 많은 도움을 받아 약이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선문답 중독증'에 걸려 참 지혜를 놓치고 업식을 끊지 못한 채 의리선으로 살림을 삼게 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것들은 약이 된 것 못지 않게 병으로 남게 되어 정법을 깨닫는데 혼란을 주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옛 공안(公案)집에 '정병을 건드리지 말고 물을 가져오너라' 란 문답형 법문에서 '정병'이란 곧 경계이다. 이 경계를 손대지 말고 물을 가져오라 하니 깨침이 오기 전에는 덤벼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데 선문답을 잘 해내는 사람들 중에는 쉽게도 답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일상생활의 경계에서는 그 경계를 안 건드리고 살 줄 모르면서 답은 경계 없는 도리를 잘 해내니 선문답만을 들어보고는 구별이 안 된다는 점이다.

대개 요즘은 바른 믿음을 갖추어서 법을 묻는 사람도 드물고 또 선을 지도하는 사람도 경계 속에 그렇게 자유스런 사람도 드물다. 입으로는 공안 문답에 답이 척척 나오지만 본인이 경계에 처하게 되면 꼼짝달싹도 못해서 시끄러운 경계를 사양하듯이 피해버린다. 또 어떤 이들은 용기는 있어 일은 저질러 놓고는 머리와 꼬리가 따로 떨어져 있어 엉뚱한 결과만 남겨놓고는 떠나버리는 경향도 있다.

수행자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계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진실이 바탕이 된 양심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입에서 나온 선문답과 삶속에서 일어나는 경계가 따로 있다고 보면 불교가 왜 필요하며 이런 선문답은 어디에 써먹자는 것인가.

이런 썩어 나자빠질 선문답 때문에 선은 전문가 속에 묻혀 들어가 사람 사는 것과 아무 쓸모 없는 것으로 전락 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위들은 옛 선사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참 공부를 했다면 옛사람이 썼던 '할'(고함치기)이니 '방'(몽둥이질)이니 어록이니 다 집어던지고 경계 속에 살아있는 눈을 갖추어 사람 속에 있는 부처가 나오도록 나투었으면 한다. 옛 틀의 형식을 갖추고 편안함 속에 있기 보다는 틀을 벗어나 지금 살아있는 문답이어야 선이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겠는가.

■현웅(육조사 선원장)



지혜 구하고 복 지어야 참 공부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둘 아닌 하나 참방생은 '산에 산이 있는 이치' 그대로

'복혜쌍수' 중심으로 禪 지도하는 영흥 스님

"다함께 홀로 서로 통해
온 법계를 이루고
동서남북에 해와 달을 쌍으로 띄우며
낮에는 꽃을 심고 꽃을 가리키고
밤에는 마니주 뿌리고
마니주 굴리구나. 하!
(영흥 스님의 노래)

"안으로 부지런히 주인공을 찾고 밖으로 남을 도와 주는 일, 즉 복혜쌍수(福慧雙修)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0만 여권의 불서와 백만 불에 가까운 호신불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주상보시 해 온 스님. 남모르게 참된 방생을 실천하며 권해 온 스님. <참 생명> <납승가> <해탈>(하늘북) 등의 선어록을 펴내고 인연 닿는 스님들에게 간화선을 독참(獨參)으로 지도해 온 스님.

충북 진접 만뢰산 아래 불뢰굴(佛賴窟)에 주석하는 영흥 스님을 뵌 것은 <납승가>라는 선어록을 우연히 보게 된 올 초였다. 몇 달 뒤 하늘북 출판사에서 스님을 만나 평소 의문나던 선(禪)에 관한 질문들을 쏟아낸 후 공주 금강둔치, 조계사 경내에서 법문을 듣기도 했다.

스님과의 인연을 통해 이름없는 작은 암자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스님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 결코 둘이 아닌 공부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참선과 보살행을 몸소 실천하는 영흥 스님의 평소 지론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행을 겸해야 한다는 '복혜겸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六波羅蜜) 중 마지막인 지혜바라밀 하나만 빼 놓고는 모두 공덕을 닦는 수행입니다. 이 다섯가지 바라밀과 지혜바라밀을 함께 닦는 것이 곧 복혜쌍수이죠."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혜암 스님이 평소 "지혜를 닦고 복을 짓는 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다들 빚만 지고 살고들 있다"고 강조했던 '복혜쌍수'라는 말은 자칫 마음 공부에만 몰두해 보살행을 소홀히 하기 쉬운 수행자들이 귀 기울여야 할 공부지침이기도 하다. 때문에 영흥 스님의 참선 공부에도 '복혜쌍수'의 원리는 여지없이 적용된다.

"선근공덕을 끝없이 지으면서 화두를 여여부동하게, 쉼없이 성성적적(惺惺寂寂) 적적성성하게, 강물 흐르듯 유유하게, 어린 자식 어머니 생각하듯 간절하게 궁구해야 합니다."



조계사에서 외국인들에게 호신불을 선물하며 불법의 씨앗을 뿌리는 영흥 스님.

20대 초반, 망월사에서 춘성 스님의 벽력같은 고함소리에 득력(得力)했다는 영흥 스님은 1974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한 뒤 청담, 벽초, 회암, 전강, 경봉, 향곡, 서옹, 월산, 구산, 고암, 서암, 성수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참문해 법거량을 했다. 제방선원과 토굴에서 정진하다 느낀 것은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이 일상 속의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 없는 공부를 일여(一如)하게 지어가야 한다는 것. 여기서 영흥 스님이 말하는 '일여'의 공부는 성철 스님의 사상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스스로 돌이켜 보아서 자기 본각경계가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 입태일여 육도일여 만행일여의 자수용삼매로써 안팎으로 내외명철하고 쌍차쌍조하여 일체중생과 일체부처가 온 전체로 낱낱이 똑같이 여여부동하게 본래대로 본불본락 본불진락 본불무애자재 해야 향상일로의 공부입니다."

영겁불퇴전의 신심으로 복혜쌍수의 실참본행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영흥 스님. 6월 15일 조계사에서 스님을 만나 구체적인 마음 공부에 대해 질문했다.

"어떤 것이 조사관입니까?"

"이뭣고 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그 속으로 당장 들어가 보세요."

"오로지 모를 뿐입니다."

"오로지 모르는 그것을 당장 보세요."

"모르는 이외에 딴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이 부처가 부처를 찾는 방법입니다. 즉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게 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견성성불이죠."

평소에 '인간 방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행의 방편으로 방생을 실천해 온 스님에게 '참 방생'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참 방생이란 산에는 산이 있고 물에는 물이 있는 이치 그대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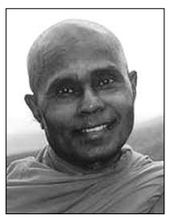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생은 상생이요 곧 해탈이요 성불이요 본불입니다. 일체 불보살과 일체 화엄성중과 일체중생의 무한 생명자체요, 자비요 본행이요 무량복덕이요 무량공덕입니다. 중생들의 가슴에 탐진치를 비우고 계정혜를 담아서 참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밝은 삶을 구현해 가난과 질병과 전쟁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세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불자들에게 늘 지혜와 공덕을 함께 닦아나갈 것을 당부하는 영흥 스님. 항상 마음의 평안과 세계의 평화를 함께 발원하는 스님은 "천하는 천하에 맡겨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그대는 그대에게 맡겨 그대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한다.

"다함께 홀로 서로 통해 온 법계를 이루고/ 동서남북에 해와 달을 쌍으로 띄우며/ 낮에는 꽃을 심고 꽃을 가리키고/ 밤에는 마니주 뿌리고 마니주 굴리구나. 하!"(영흥 스님의 노래)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헤네폴라 스님 초청 위빠사나 수행

서울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락키타)은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안성 황룡사에서 '헤네폴라 구나라타나 스님 초청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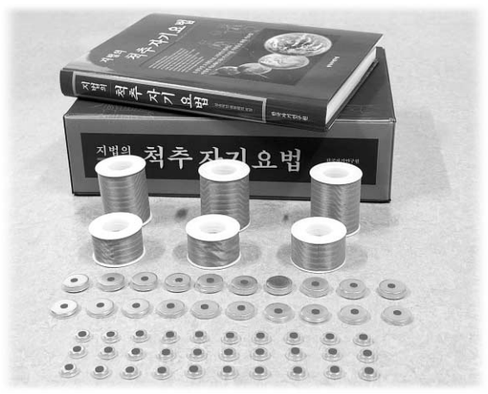
위빠사나 수행의 저명한 지도자인 구나라타나 스님은 1968년 상좌부(Theravada) 스님으로써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불교와 수행을 가르쳤다. 그 후 미국 워싱턴 D.C 불교 위하라 협회의 총재를 역임했으며, 아메리카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수행과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접맥시켜 수행을 지도하는 스님은 아메리카대, 조지타운대, 메릴랜드대에서 불교를 가르쳤다.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쉬난도아밸리에 있는 바와나 숲속 집중수행처(www.bhavanasociety.org)의 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캐나다,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세계 각지에서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번역된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위빠사나 명상(Mindfulness In Plain English)>을 비롯 <The Jhanas(선정)> <Come and See(와서 보라)>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수련회 참가비는 1주 15만원, 2주 30만원, 3주 40만원. (02)517-2841

김재경 기자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이론 없는 수련은 위험
수련 빠진 이론은 공허
홈페이지 : www.binmaum.org
한글인터넷주소 : 빈마음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통도사, 범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침을 비롯한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질게하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기나 가우스(세기)양이 수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므로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삼폐(쾌식,쾌변,쾌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한 치료법
◎ 수행하는 스님들이 치료하면 척추가 곧아지고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심장이나 폐, 위장, 대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골수염, 오십견, 요통등 관절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 질환
◎ 남성들의 조루, 정력감퇴,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감기등의 질환을 부작용없이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척추자기요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 한세트가격: 150,000원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내자신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치료법!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儒 · 仙 · 華嚴 특강(CD18매)>>



출고정가 15만 4천원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뇌와 몸의 완벽한 조화 요가



안의태 교수 "신체 특정부분 응시, 잡념에서 해방"주장

침묵 속에 눈감고 해야 효과높아

우리나라 요가수련장에서 지도하는 요가는 대체로 '하타요가'다. 난이도 있는 동작과 그에 따른 호흡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요가'. 웰빙바람을 타고 젊은 층에서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하타요가는 국내 요가센터를 매개로 확산됐고 몸 · 마음 수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계적인 동작이 담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내 요가 지도자들이 특별한 검증의 과정없이 무차별적으로 육성되면서 "하타요가가 수련보다는 체조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타요가는 뇌와 몸의 완벽한 조화"라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안의태(순천향 의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요가코리아> 여름호를 통해 "요가는 육신과 뇌의 합일을 통해 고(苦)의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행수단"이라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뇌의 특성을 잘 알고 뇌의 특성에 맞도록 수련해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가 주장하는 수련법은 '집중'이나 '응시'와 관련이 깊다. 그에 따르면 하타요가는 신체의 특정부분을 응시하도록 유도하여 잡념에서 해방시키려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고난이도 아사나(체위)를 취할 때는 동작을 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긴장과 고통 등의 '감각'에 집중한다. 현실의 민감한 사안에 관여하는 뇌의 '전전두엽'의 경우 한번에 여러 자극이 동시에 들어올 때는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사나에 집중하면 뇌로부터 현실의 잡념과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안 교수는 "안정된 아사나에 집중하면 교감신경의 작용을 억제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교감신경은 흥분과 관계하고 부교감신경은 안정이나 평화와 연관을 갖는다. 요가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작용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심신의 안녕을 이끌어낸다. 안 교수는 "스포츠는 교감신경을 활용하여 불로 불을 끄는 맞불작전이라 할 수 있고, 요가와 기공은 교감신경을 달래고 부교감신경을 활용하여 물로 불을 끄는 소방작전"이라고 말했다.


안의태 교수

이 같은 집중과 응시는 심신의 안녕 뿐만 아니라 '행복'의 감정과도 연관된다. 마라토너가 30분 정도 뛰고 나면 고된 와중에서도 기운이 솟는 'runner's high'를 경험하듯, 요가의 아사나를 수행할 때는 힘든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희의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안 교수는 "이것은 뇌의 보호 본능에 따라 배출되는 엔돌핀과 관련돼 있고, 어려운 아사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인도의 요기(yogi · 요가 수 행 자) 들 은 'yogi's high'와 같은 경지를 체험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하타요가를 수행하는 환경에 관한 조건도 덧붙였다. 시각을 받아들이는 '후두엽'의 안정을 위해 요가 수행 중에 눈을 감을 것을 권했다. 눈으로 들어오는 색채감으로 아사나의 집중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푸른 산속이나 바닷가를 수련장소로 활용하고 요가수련장의 경우 차분한 색상의 벽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측두엽'의 기능과 관련, "요가수행을 할 때는 소음이 없는 곳에서 하고 수행 중에 서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뇌의 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현천 스님, 요가 수강생 · 지도자 과정 모집

禪 아헹가 요가연구원장 현천(대구 동화사 교무국장 · 사진) 스님은 7~8월 매주 금 · 토요일 오후 2시 30분~3시 50분 동화사 통일 대불전에서 요가수련 강좌를 연다. 회비 4만원, (053) 982-0101

한편 '禪 아헹가 요가연구원'에서는 불자 및 예비불자들을 중심으로 요가 지도자 수련생들을 모집한다. 나이, 신체조건, 품성 등을 고려해 지도자 과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요가 지도자 수련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단, 수료 후 1년간은 연구원에서 하루 2~3시간 무료로 봉사해야 한다. (053)983-0915

현천 스님은 하타요가 세계 제일의 도장인 인도 '아헹가 요가연구소'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최고급 과정을 수료한 요가 전문가로, 백담사 무문관 및 전국 선원에서의 10년 안거 수행의 경험을 살려 선과 요가를 접목한 수련법을 지도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禪과 21세기

선의 세계 ㊾

교외별전(教外別傳)- 9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진상
분별의 틀에서 벗어나야 볼수 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에는 늘 온갖 분별의 틀을 동원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고 '남자다!'라는 판단을 내린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내리는 판단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찰나의 순간에 굉장히 많은 분별의 틀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는 틀이 작용하였다. 그리고 사람과 여느 동물을 가르는 분별도 작용하였다. '수컷이다!'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더 세밀히 따져보면 외양의 특징을 가지고 이리 저리 분류하는 여러 가지 틀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면 머리 길이라든가 체형, 옷차림 등등 각종 시각적인 자료를 남자나 여자의 특징으로 분류하는 틀을 작동시키고 그 분별을 종합해서 여자가 아닌 '남자다!'라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모든 분별의 틀, 분류법은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다. 물론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터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배우는 것이 다 그런 분류법이다. 맞는 답과 틀린 답을 잘 가려낼 줄 알아야만 좋은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받는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분류법을 배운다. 긴 성장기간을 통해서, 나아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갖가지 분별의 틀을 배우고 내면화한다.

그 시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분별의 틀을 잘 체득하고 잘 구사할 줄 알아야지만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칭찬이요 '분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난이다.

순간순간 엄청난 양의 분류를 재빨리 진행시키면서도 우리가 그 복잡한 과정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것은 각종 분별의 틀이 워낙 철저하게 내면화되어 있고 분류의 작용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분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이 다양한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 삶의 현장이다. 각종의 국면이 닥칠 때마다 각자가 새로운 대처 방법을 궁리해내야 한다면 정말 살기 힘들 터이다.

인류는 삶의 다양한 국면에 대처하는 방법을 각종 분별의 틀로 정형화해서 전수해 왔으며, 그것으로 무장한 덕분에 우리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의 현장을 헤쳐 나가며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편리한 도구로서 전수되고 학습되는 그런 분별의 틀이 너무나 내면화되고 언어와 제도 등 온갖 장치를 통해 고착되다보니,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가두고 조종하는 주인 노릇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별의 틀을 넘어서 의식을 확장하기가 무척 어렵다.

불교에서 무아(無我), 연기(緣起), 중도(中道), 공(空), 불이(不二) 등의 개념으로 말하는 세상과 존재의 궁극적인 진상은 불가사의(不可思議), 즉 생각으로 헤아리고 따져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사물과 현상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분별의 틀, 분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워낙 철저하게 분별의 틀 속에 갇힌 우리의 의식은 거기에도 분별을 적용하여 헤아리려고 한다. 그리고 문자언어가 분별의 틀이라는 감옥의 간수 노릇을 한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는 선종의 외침은 그 간수의 손아귀를 떨쳐버리고 분별의 감옥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일부 지면개편 관계로 윤원철 교수의 '선의 세계'가 이번호부터 20면에서 19면으로 옮겨 연재됩니다.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세계불교 법왕종)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홍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홍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홍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 흥 사 주지 구천 합장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서언(1): 불교의 五重 關門에 대하여

불교는 어렵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 다섯 가지가 어렵다.

1. 시각

근본적인 이유는 그 발상과 시각 때문이다. 불교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세계를 바라본다. 그래서 창시자 붓다는 깨달음을 얻고 난 뒤, 법의 바퀴를 굴리기를 망설였고, 선사들 또한 진실의 조갯살을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으려 한다. 불교는 상식과 진리 사이에 아주 깊은 심연을 설정해 놓았다. 상식은 욕망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네 속인들은 "삶이란 인간의 욕망을 존중하고 그것을 최대한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상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저 편의 언덕을 그리워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지극히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에 접근하기 어렵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2. 다양성

산은 산이 아니라 했던가,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 사람들이 불교를 찾는다. 계기는 여럿일 것이다. 지상적 삶이 시시해졌을 수도 있고, 현실의 고통과 부조리에 깊이 좌절했을 수도 있다. 이런저런 계기로 불교에 눈을 돌릴 때, 두 번째 어려움에 직면한다.

불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해온 생명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불교는 고타마 붓다 이후 2,500년에 걸쳐 아시아 전역에 걸쳐 발전되어 왔고, 최근에는 서양에까지 그 가르침을 전파시켜 왔다.

처음 인도 북동부 갠지스 강가 반경 200킬로미터 정도에서 출발한 불교는 기원을 전후해서 대승불교로 발전했고, 반야(般若) 유식(唯識) 화엄(華嚴) 천태(天台) 정토(淨土) 선(禪) 등등의 갈래를 낳았다. 인도의 대승은 나중 브라만교와 베단타 철학에 흡수되었고, 법의 등불은 남북으로 갈려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안에 한국불교도 있다. 그 위용은 개략을 말하고자 해도 아찔할 정도이다. 이 앞에서 사람들은 묻는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불교인가."

3. 언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경전에 눈을 돌릴 때 세 번째 어려움에 봉착한다. 우선 양에 질린다. 경전만 해도 13세기 팔만대장경이 목판 8만1천장, 20세기 초 일본에서 펴낸 불교전집인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은 천여 페이지짜리 55권에 2000여 작품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들을 담고 있는 언어의 난해함이 버티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지금은 쓰이지 않은 한문인데다, 더구나 불교 한문은 중국 고유의 한문과는 용어나 어법, 체제가 전혀 다르다.

거기다 이 번역은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의 맥락을 충분히, 그리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해주지 못한다. 복잡하고 치밀한 사유를 담고 있을수록 그렇다. 이를테면 유식(唯識)의 교설은 한역(漢譯)으로 읽기가 매우 까다롭고 애매하다. 현장이 굳이 인도로 떠난 것도 그 때문이고, 원효가 중국에 유학하고자 한 것도 그 현장의 신역(新譯)을 통해 불교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불교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팔리어, 산스크리트, 불교한문, 티베트어를 익혀야 하고, 거기에 근대 일본의 방대하고 치밀한 훈고적 성과와 구미의 불교연구까지 습득해야 한다. 세상에, 그러자면 한 생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그 앞에서 누가 아득하고 막막해지지 않겠는가.

4. 경험

혹, 몇 생을 거치며 이들 언어를 습득해 나가면 불교를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불교 언어의 사다리를 어렵사리 올라간 사람에게, 이번에는 불교가 여기 있지 않다고 말한다. 경전은 진실의 그림자, 즉 경험을 지시(指示)해 주기는 하나, 정작 그 경험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황벽의 비유를 들자면, 말씀은 "우는 아이 달래는 종이돈"일 뿐, 그것으로는 눈깔사탕 하나 사먹을 수 없다. 지식은 경험으로 확인되어야 생명력을 얻는다.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은 앵무새거나 마군이다. 경험을 떠난 소외된 지식은 도그마가 되고 권력이 되어 나와 남을 망친다. 그 비극은 종교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혜능이 <육조단경>과 <금강경 구결>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입으로만 경전을 외지 말고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성(自性)을 직접 보고, 그 금강(金剛)의 반야(般若)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저 너머 영원한 평화와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때가 바로 경전을 '이해'하는 때이고, 불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후퇴없이 가지는 때이다. 그때 불교는 구구절절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슴을 울린다. 아니, 우리 자신이 곧 말씀이 된다. 이와 더불어 불교의 지식은 단순하고 간명하게 정돈되어 간다. 복잡성이 줄어들고, 산만한 것이 중심을 얻어 정돈되며, 거기서 깊이가 자라난다.

그렇게 기쁜 나머지 이렇게 말하게 된다. "소문과는 달리, 불교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군!" 그 자신감이 깊어지면, "붓다가 쓸데없이 긴 혀를 늘여 48년간 수고를 했네"라며 콧바람을 뿜기도 한다.

5. 표현

그러나, 아직도 어려움은 남아 있다. 불교는 구경(究竟)이 아니라 방편(方便)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데 쓰지만, 이제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금강경>이 구구절절 토로하듯이 불교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여기가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다. 불교를 떠나 자신에게로, 삶 속으로 돌아오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 불교인 것과 불교 아닌 것이 경계를 허물고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때로 불교 밖의 소식이 더욱 불교적이다. 경허 대사가 일찍이 말했다.

"그 뜻을 얻으면 거리의 잡담도 다 진리의 가르침이요, 말에서 헤매면 용궁의 보배곳간도 한바탕 잠꼬대일 뿐이다(得其志也, 街中閑談 常轉法輪, 失於言也, 龍宮寶藏 一場寐語)."

나는 그래서 불교가 좋다. 비억압과 관용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더 이상 근엄하거나 딱딱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수행자는 이제 비로소 불교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투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역사상 뛰어난 선지식들은 바로 그렇게 자신만의 언어를 독창적이고 개성적으로 발휘해 나갔다. 교화는 그렇게 '당대의 언어'를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요컨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아직 불교가 아니다. 대신에, "내가 본 진실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곳에 불교가 있다.

이 첩첩 난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다. 돌아갈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다. 불교를 살리려면 이 중중(重重)의 관문들을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들 관문들은 서로 서로 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에만 집중할 수도 없다. 문들은 서로 물려 있기 때문에, 요컨대 불교는 결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삶의 바깥이나 인격의 높이 이상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 구체성에 정직해야 희망이 있다.

우리는 늘 물어야 한다. 경전의 말씀이 나의 이해와 체험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고 있는지를. 이 구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 자신 불교와 소외되는 것은 물론, 거시적으로 한국 불교 전체가 생명력을 잃고, 이방의 불교 혹은 다른 영적 대안에 점점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지금 하바드의 선사와 베트남의 포교사, 그리고 티베트 망명객의 목소리가 한국불교의 하늘을 덮고 있다. 고마운 일이지만 또한 슬프다. 불교마저 수입품으로 채우고 말 것인가.

한국불교가 그 살아있는 정신과 제도를 이 궁핍한 시대에 인류의 영적 유산으로 되살려 세계에 수출을 하는 것이 도리어 마땅하지 않은가.

지금은 전 세계의 불교 자원이 수입되어 있고, 나아가 다른 정신적 종교적 수련까지 국경이나 문화적 제약 없이 실험되는 '자유경쟁' 시대이다. 이런 종교의 글로벌시대에, 원효나 지눌처럼, 저 중중 첩첩의 관문들을 깊이 열어젖히고 불교를 새로 쓸 그 사람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종교 글로벌시대' 리더가 필요하다



롭상람파: 시릴 호스킨이라는 영국인 이었으나 자신이 라마승의 환생임을 깨닫고 티베트 착포리 승원에서 새 삶을 얻은 수행자다.

네티즌 교리문답

"무심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문 <전심법요>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無心道人)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 했는데, 무심도인은 어떤사람인가? (ID '초발심')

답1: 무심도인이란 일체의 분별심과 망상이 떨어져 나간 사람을 말한다. 진여 그대로인 몸이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다. 모든 모양이나 분별심을 떠난 청정한 마음으로 '고요하면서도 또렷하게'(寂寂惺惺) 사물에 응하는 대자유인이라 할 수 있다. (ID '일체처무심')

답2: '무심'이란 마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면서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는 핸들과 페달에 온 힘이 들어가서 마음대로 잘 안되지만 나중에 능숙해지면 핸들이나 페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도 잘 탈 수 있는 것과 같다. 바로 머무는 바 없니 마음을 낼 줄 아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以生其心)'이라 할 수 있다. 무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멈춘다고 하면 이는 모양이 있는 것이니 불법이 아니다. 꽃이 피는 과정과 같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들고 나는 현상이 그 자체로 다 무심이니, 무심으로 사는 사람이 무심도인이다. "달빛이 물을 뚫어도 물에는 파문이 일지 않고, 구름이 허공을 채워도 허공은 단 한 구름도 붙들지 않는다." (ID '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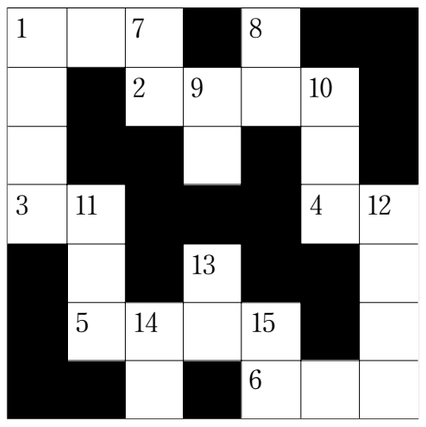
답3: <선가귀감>에 무심도인을 설명한 글이 보인다. "범부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따르고, 수도인은 마음만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잊는다면 이것이 바로 참다운 법이다."(ID '학인')

답4: 서암 스님은 무심도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무심도인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경계에도 자기가 정신없이 쓸려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분별을 가지고 벌컥 화를 내도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그런 게 있고, 참으로 그 경계에 사로잡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경계가 달라. 무심을 단계를 정하고 옳다 그르다 정하면 벌써 어긋나 버려. 결국 자기 중심 없이 생사의 단계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이 무심도인이야."(ID '서사모')

답5: 지혜로운 자는 그의 삶을 허공에 새기는 법이다. 대자연과 하나 된 무심도인의 마음은 일체의 인위적인 조작과 분별심 없이 평상심으로 사는 자유인을 말한다.(ID '자유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사자좌 백 개를 만들어 놓고 고승을 모셔 설법을 듣는 큰 법회를 일컫던 말, ○○○법회 2.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 3. 주소나 이름을 붙여 대문에 붙이는 작은 패 4.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적은 문서 5. 경솔하여 생각 없이 행동함 6.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 모양의 배.

세로

1. 1967년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성철 스님이 그해 동안거를 맞아 설한 백일간의 법문을 칭하는 말 7. 왼쪽과 오른쪽 8.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 9.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서정주 시의 일부) 10. 부정이 없고(正) 치우침이 없는(等) 깨달음 또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이 11. 최초의 불교 결집에서 만들어진 결집경전(結集經典)으로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였던 나뭇잎(다라수)에 적은 것 12. 제1차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영국 · 프랑스연합군과 대치했던 전선, 레마르크 소설 'OO전선 이상 없다' 13. 맵지 않고 향기로운 고추 품종 14. 대단히 재산이 많은 부자 15. 함께 사는 것.

천년고찰 묵묵히 지켜온 나무 이야기



절집나무
글 고규홍 | 사진 김성철 | 들녘 | 1만8천원

한국의 사찰들은 모두가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의 한켠을 말없이 지켜주는 전통문화의 증거물들이다. 각 절집마다 오래된 이야기와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없이 사람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사람살이를 지켜본 나무가 있다. 어쩌면 사람들이 남긴 한 줄 의 글귀보다는 더 담백하고도 깊은 이야기들이 나무 줄기 속에 깊숙이 배어 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절이 세워지기 전 또는 세워지던 때부터 절 마당에서 자라온 절집 나무는 그간의 역사를 속내에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여전히 생동하는 '살아있는 역사'다.

<절집나무>는 대표적인 천년 고찰 33곳 나무들의 생태와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와 전설 등 나무에 얽힌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땅의 큰나무>의 저자 고규홍 씨와 사진가 김성철 씨가 다시 한 번 호흡을 맞췄다.

책을 쓰기 위해 이들이 직접 돌아본 절집만 해도 모두 170여 곳. 사계절 내내 1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것은 전국을 다섯 바퀴 이상 순회한 것과 맞먹는 수치로, 그야말로 '발로 쓴 책'이라 할 수 있다. 170여 곳 중 33곳을 추려내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았던 일 중 하나. 나무에 대한 온갖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들을 솜씨 있게 버무려낸 저자들의 노고가 돋보인다.

이 책은 한마디로 절집나무 백과 사전이다. 절집나무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 나무와 사찰에 얽혀 있는 전설과 역사, 나무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위치, 그리고 생물학적 생태까지 종합적으로 소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흥미로운 일화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면 책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화순 쌍봉사 극락전앞에는 단풍나무 두 그루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나무 줄기에 심한 그을음이 남아있는데 바로 쌍봉사가 화마에 휩싸였을 때 제 몸을 불사르며 극락전(서방극락정토의 주재자인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지켜낸 기특한 나무이다. 이 나무 덕분에 아미타불은 목숨(?)을 구했다. 그러니 단풍나무에 서려 있는 불성(佛性)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법당 화재 막아낸 쌍봉사 단풍나무
암수 바꾼 전등사 은행나무 등
국내사찰 33곳 가려뽑아
일화 · 전설 · 생태 흥미롭게 엮어

자신의 성(性)을 바꾸면서까지 사찰을 지킨 전등사 은행나무도 흥미거리다. 조선후기 조정은 불교탄압의 구실로 전등사 은행나무 열매의 공출량을 정했다. 당시 전등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세금'이었다. 이를 못 견딘 스님들은 "차라리 이 나무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대로 암나무는 수나무로 성전환했고 공출량을 정할 수 없었던 조정은 더 이상의 탄압을 포기했다.

하나 더 소개한다. 정선 정암사에는 오래된 주목이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중 하나인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신덕여왕 7년(638년)에 세운 절집이다. 그런데 자장율사는 자신의 주장자를 신표로 꽂았고 이것이 주목이 됐다. 하지만 이 주목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어버렸다. 그런데 최근들어 껍질만 남은 나무 안쪽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장율사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분신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인가.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이밖에도 저자들이 발품을 팔아 꾸민 이 책에는 부처님의 은덕으로 숲 전체에 퍼진 오대산 상원사 전나무, 백범 김구의 나라사랑을 담은 공주 마곡사 향나무, 해마다 막걸리 열두말을 먹고 원기를 찾는 청도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 정조 임금이 부모의 은공을 기리기 위해 지은 용주사에 손수 심은 회양목, 천하의 간신배인 유청신이 몽고에서 몰래 들여와 심은 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등 사람과 어울려 사는 절집나무들의 사연이 담겨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그동안 사찰에 가서 경내에 있는 나무들에 등한시 했다면 이 책은 더욱 읽는 의미가 있다. 사찰의 역사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짙게 묻어 있는 것이니까 말이다. 이 책이 사찰 여행 가이드 북으로도 손색이 없는 또하나의 이유는 책 말미에 사찰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3분력-3분으로 도전하는 자신감 있는 인생
다카이 노부오 지음 | 은미경 옮김 | 명진출판 | 9천5백원

<3분력>은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3분력'이란 3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을 전달하고, 3분 안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뜻한다. 즉 3분 스피치 요령을 가르쳐 준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긴장하거나 떨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일 처리 과정에서도 신속 정확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그러면 어떻게 단 3분 안에 그 많은 기술을 활용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이끌어내느냐는 것이다. 저자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그 예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도 30초 내외고 광고 카피도 한 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든다. 실제로 회사 면접도 3분 이상을 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집중력이란 최대 3분을 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분안에 상대방 마음 사로잡기

쉽고 정확하게 자신감 표현하는 기술 담겨

실제로 요즘 신입사원들 면접을 치르다보면 첫 인상이나 외모는 훌륭한데 의외로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설득력 있게 제대로 제시 못해 낙방의 고배를 마시는 지원자들을 많이 봤다. 아마도 이 책 한 권 정도 정독해서 읽으면 어느 정도는 요령을 터득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나는 감히 3분력이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다. 3분력이란 단순히 '빨리, 짧게 말하라'의 차원이 아니다. 요즘처럼 복잡 다양한 시대에 쉽고 정확하게, 핵심을 치는 기술은 그 어떤 능력보다 환영받는다. 지금이야말로 단순함이 미덕인 시대다. 그런 사실을 알고, 3분을 자신있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30년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고 집필한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우선 이 책의 1부에서는 왜 현대 사회에서 상대에게 자신을 인식시킬 수 있는 최상의 키워드로 3분력이 주목받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오늘날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스케줄은 시간이 아니라 분 단위로 짜여져 있고, 이렇듯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3분력'이라는 것.

2부에는 도입, 접근, 반전, 호응, 공감, 칭찬, 반론 등 3분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이 소개돼 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3분을 제대로 쓰지 못할까? 3부에서는 이처럼 대화를 나눌 때 실수하기 쉬운 점과 잘못된 언어습관을 바로잡는 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4부는 3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즉 메모하는 습관들이기, 요약력과 유머 감각 키우기, 경청하는 자세 익히기 등 여러 가지 훈련법 등을 담았다.

특히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않기'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것' '시작은 느리게, 전개는 강하게' 등은 실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 눈여겨 볼만하다.

■김정한 (두원테크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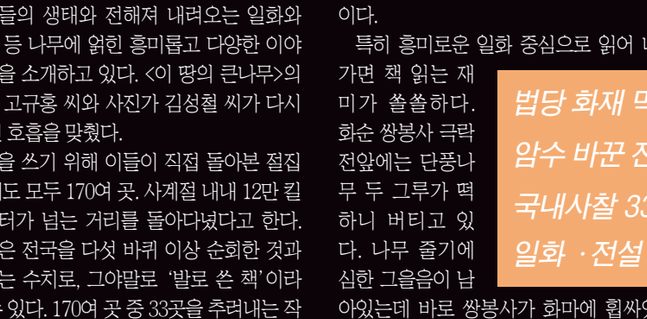
석주 큰스님의 병풍

단 한번의 기회 !!
석주큰스님 글씨가 있는 팔상도8폭병풍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주어집니다.
1,000점 이상은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구경할 수도, 살수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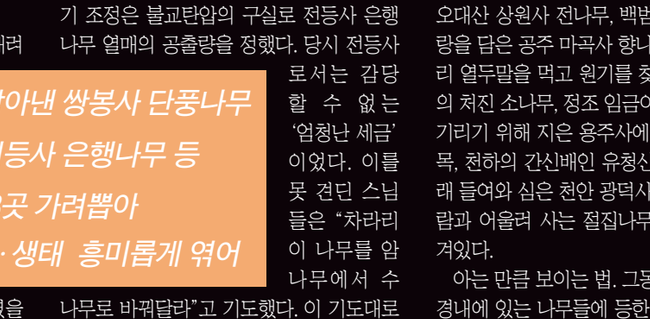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보문복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한정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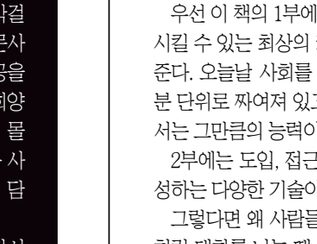
살아계신 한국현대 불교사로 추앙받고 있는 칠보사, 봉은사 조실 강석주 큰스님.
사대부중 모두가 존경하옵는 큰스님의 반야심경이
청곡화백의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를 여덟장면의 중요부분으로 그림에 옮긴 팔상도와 함께 양면표구되어 불자님들에게 보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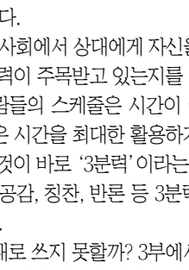
(앞면)석주큰스님의 친필 반야심경(영인본)



(뒷면)청곡화백의 팔상도



김선원 선생의 사영수 도자기
KBS1TV 진품명품 고서화 감정위원이시며
이시대 최고의 서예가이시며 한학자이신
매산 김선원 선생께서 친필로 정성을 다하여
써주신 사영수 도자기. 7권(福), 봉황(福), 신구(壽), 용(龍)



고당스님의 친필 달마도
30년간 수행정진의 결정체인 고당스님의 달마도는
행운의 달마도로서 액운을 막아주고
상스러운 가氣를 발현시켜 밝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달마도.
(※작품만 드립니다.)

팔상도8폭병풍(석주큰스님 반야심경)
매산 김선원선생의 친필 사영수도자기
고당스님 친필 달마도
860,000 → 395,000원

※ 개별 구입도 가능합니다.

보문복지원 대행 : (주)명성아이앤씨
문의전화 : 02-424-9901

의 義
- 당대(當代) 제일의 법력과 필력을 가지신 석주큰스님의 좋은 글씨를 널리 알리고 여러사람이 소장하여 보고즐길수 있도록 합입니다.
- 부처님의 일대기중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덟장면을 알기쉽고 친근한 그림으로 나타낸 팔상도를 널리 보급하여 불교의 진리를 체득고 생활의 귀추가 되게 합입니다.
- 총림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00. 보문사 산하 보문복지원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KBS1TV 진품명품 감정위원이시며 이시대 최고의 한학자겸 서예가이신 매산(梅山) 김선원 선생께서 친필 사영수도자기를 좋은일에 동참하시기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 우리나라 선서화의 대가이신 선필 고당(古堂)스님께서 직접 그리신 달마도를 내놓으셨습니다.

동서양 철학이 만나 불교에서 미래 찾다

승려와 철학자
장 프랑수아 르벨 · 마티유 리카르 지음
이용철 옮김 | 이끌리오 | 2만원



"너는 왜 불교에 귀의했느냐?"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 교수이자 한림원 정회원인 아버지 장-프랑수아 르벨이 전도유망한 분자생물학자의 길을 걷다가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아들 마티유 리카르에게 묻는다. 노벨상 수상자 교수에게 지도를 받으며 연구에 몰두했던 아들이 갑자기 출가의 뜻을 밝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함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아들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제가 불교에 귀의한 것은 흥미진진한 과학 탐구의 거부가 아니라, 과학적 탐구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네가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교리에 입문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변화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현상 세계와 마음의 본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너는 과학과 구도의 삶을 양립할 수 있다고 보진 않느냐?"

"그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 구도의 삶은 과학보다 더욱 중요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들이 출가한지 20여년 만에 마주 앉은 부자(父子)는 '왜 과학 연구에서 마음의 탐구로 선회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불교는 철학인가 종교인가, 안락사와 인종갈등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간다.

두 사람의 대담을 엮은 <승려와 철학자>에서는 동서양의 철학이 대화를 통해 풀어내는 진지한 성찰을 통해 '왜 서양에서 불교가 주목받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철학자' 아버지는 대담을 마치고 "서양 철학의 황폐화로 인해 삶의 지혜와 도덕의 영역에서 생긴 공백을 불교가 채워주고 있다"고 말한다. '승려' 아들은 "불교는 행복과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체계와 정신의 과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시대에 부응하고, 앞으로도 부응할 명상 과학"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1999년 첫선을 보인 후 이번에 재출간된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종교 알면 인류가 보여요



세계의 종교
니니안 스마트 지음
윤원철 옮김 | 4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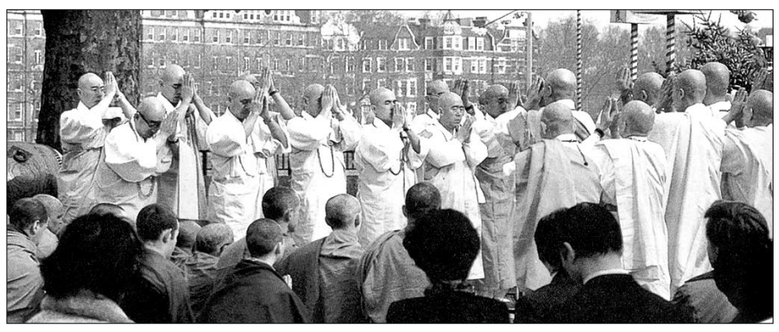
살아 움직이는 복합적 세계관으로 규명
종교 기원~현재까지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

시크교와 주르반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의 자손(Children of God)….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거나 흔히 이단(異端)으로 여겨지는 종교들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겐 목숨까지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준거(準據)'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종교는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동안 '종교'라고 하면 교리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세기 종교학계의 태두로 일컬어지는 니니안 스마트(1927~2001)는 종교를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삶 속에서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고,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깔린 세계관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공회를, 일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와 신도(神道)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세계의 종교>는 종교란 무엇이고,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종교가 존재했는지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으로, '세계 종교의 총망라'라고 할만 하다. 지은이는 1989년 이 책의 초판을 펴낸 이후 97년 20세기를 회고하는 내용을 담은 제25장을 추가해 재판을 냈다. 4년에 걸쳐 책을 번역한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지은이는 종교를 복합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각 종교는 비로소 더 넓은 문화적 지평 속에서 인류의 삶의 현장에서 생동해온 세계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영국 런던 배터시 공원에 있는 '평화를 위한 사원'에서 열린 법회 모습.

본문만도 800여 쪽에 이르는 이 책에서 지은이는 종교를 '인류 문화사의 전체 지평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합적인 세계관'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기원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세계 종교의 흐름을 '현대'라는 축으로 재해석한다. 화보와 지도가 풍부하고 연대표와 개념 설명도 붙어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1부 '동굴벽화에서 중세까지'에서는 여러 종교가 등장하고 전개된 양상을 세계사의 발자취를 따라 더듬어간다. 2부 '르네상스에서 현대까지'는 르네상스와 제국주의의 발전과 함께 세계의 각 종교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핀다.

한국 종교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띈다. 지은이는 "한국 종교사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은 지눌(1158~1210)이 화엄불교와 선불교를 연결한 것이다. 그는 한국 불교에 간화선을 선양했으며, 한국 선불교의 주류 종단인 조계종의 실질적인 창립자로 여겨진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근래 한국 선불교가 자체의 역량으로 다시 대두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눈길을 끌기 시작한 하나의 자원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25장 '20세기를 돌이켜본다'에서는 '문명의 화해'로서의 종교를 모색하고 있다. 지은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떤 종교도 이유 없이 억압해서는 안된다"며 "종교교육은 이해를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정부는 서로 다른 세계관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세계관, 즉 '지구촌 다원주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명상서 불황에도 끄떡없다

최근 극심한 출판 불황에도 불구하고 명상서적이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얼마 전 교보문고와 교보생명이 발표한 '마음에 힘을 주는 책 140선' 중 '건강한 삶으로 안내하는 책'에 틱낫한 스님의 <화>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 각각 2, 3위에 오른 것에서도 책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으려는 독자의 욕구를 읽을 수 있다.

<달라이 라마의 365일 명상>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하루에 한 구절씩 읽을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인생에 대한 명상' '삶의 상황에 대한 명상' '삶의 어려움에 대한 명상' '영적인 삶에 대한 명상' 등의 5장으로 나누어진 책에서는 행복과 두려움, 자살, 욕심, 알콜중독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명상 법문을 찾아 볼 수 있다.

틱낫한 스님의 <마음모음> 역시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을 통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놓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은 "텔레비전을 계속 켜놓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끌고, 만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자신의 신경체계와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인지 자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달라이 라마의 365일 명상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헌 옮김 | 청아출판사 | 1만원
마음모음 틱낫한 지음 | 허우성 옮김 | 나무심는사람 | 8천5백원
소를 찾아가는 열가지… | 틱낫한 지음 | 최수민 옮김 | 나무심는사람 | 9천8백원

<소를 찾아가는 열가지 이야기>는 잃어버린 소로 상징되는 자아를 찾아가는 십우도(十牛圖)처럼,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찾는 열 가지 우화로 구성되어 있다. 악귀를 가려낼 수 있는 돋보기와 칼을 가진 무사는 수많은 악귀를 물리치며 보람을 느끼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을 돋보기로 비춰보고 그 속에 악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틱낫한 스님은 이 우화를 통해 언제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나온 책



■ **<광덕스님 시봉일기 4>**(송암 스님 지음, 도피안사, 8천원)= <광덕스님 시봉일기> 네 번째 권. 책에는 백운 스님(부산 미륵암 주지)과 원효사상연구소 심재열 소장 등 8인의 회고담과 송암 스님이 직접 쓴 스님의 일화가 실려 있다.

■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외 2권**(정도일 엮음, 인화, 각권 9천5백원)= 정도일 씨가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주지), 지안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담월 스님(제천 백련사 주지)의 행장과 법문을 담은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인연은 그렇게 무심히 오더이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리오>를 펴냈다. 정 씨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스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뇌와 갈증에 큰 위안이 된다"고 말한다.

■ **<불교만화이야기 10>**(불교만화연구소 엮음, 3천원)= <불교만화이야기> 10권에서는 '제3회 전국 불교만화공모전 시상식' 모습과 연꽃입상을 수상한 '주리반특가', '두 가지 가르침'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불교만화연구소는 수시로 독자들의 불교만화를 모집하고 있다.(02)3392-0334

■ **<무심>**(문화영 지음, 수선재, 9천원)= 방송 작가이자 명상 지도자인 문화영 씨가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주말에 열고 있는 '직장인 명상캠프'의 강의내용과 체험을 엮었다. 지은이는 '무심(無心)'이란 걸림이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뜻한다고 말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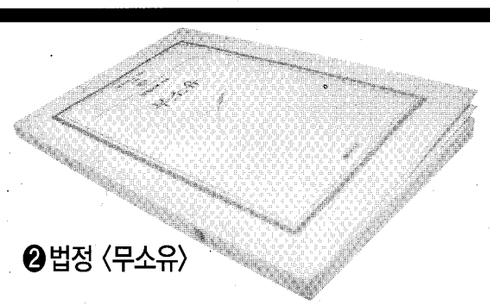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2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3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4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5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6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7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험	우룡 스님	효 림
8	청정도론	붓다고사	초기불전연구원
9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화	동승동
10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용범	수희재

도서 안내 :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법문 : 대원 문재현 선사님(전강 선사님 인가제자)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주머니 속의 작은 친구 범우문고



❷법정 〈무소유〉

1 수필 피천득
3 바다의 침묵(외) 베르코르 조규철·이정림
4 살며 생각하며 미우라 아야코 | 진웅기
5 오, 고독이여 F.니체 | 최혁순
6 어린 왕자 A.생 텍쥐페리 | 이정림
7 톨스토이 인생론 L.톨스토이 | 박형규
8 이 조용한 시간에 김우종
9 시지프의 신화 A.카뮈 | 이정림
10 목마른 계절 전혜린
11 젊은이여 인생을… A.모루아 | 방곤
12 채근담 홍자성 | 최현
13 무진기행 김승옥
14 공자의 생애 최현 엮음
15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L.린서 | 곽복록
16 김소월 시집 김소월
17 장자 장자 | 허세욱
18 예언자 K.지브란 | 유제하
19 윤동주 시집 윤동주
20 명정 40년 변영로
21 산사에 심은 뜻은 이청담
22 날개 이상
23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24 애정은 기도처럼 이영도
25 이브의 천형 김남조
26 탈무드 M.토케이어 | 정진태
27 노자도덕경 노자 | 황병국
28 길매기의 꿈 R.바크 | 김진욱
29 우정론 A.보나르 | 이정림
30 명상록 M.아우렐리우스 | 최현
31 젊은 여성을 위한 인생론 P.벅 | 김진욱
32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33 조병화 시집 조병화
34 느티의 일월 모윤숙
35 로렌스의 성과 사랑 D.H.로렌스 | 이성호
36 박인환 시집 박인환
37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38 창문 김태길
39 방랑 H.헤세 | 홍경호
40 손자병법 손무 | 황병국
41 소설·알렉산드리아 이병주
42 전락 A.카뮈 | 이정림
43 사노라면 잊을 날이 윤형두
44 김삿갓 시집 김병연 | 황병국
45 소크라테스의 변명(외) 플라톤 | 최현
46 서정주 시집 서정주
4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L.톨스토이 | 김진욱
48 불가능은 없다 R.슐러 | 박호순
49 바다의 선물 A.린드버그 | 신상웅
50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C.힐티 | 홍경호
51 딸깍발이 이희승
52 몽테뉴 수상록 M.몽테뉴 | 손석린
53 박재삼 시집 박재삼
54 노인과 바다 E.헤밍웨이 | 김회진
55 향연·뤼시스 플라톤 | 최현
56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R.릴케 | 홍경호
57 피천득 시집 피천득
58 아버지의 뒷모습(외) 주자청(외) | 허세욱(외)
59 현대의 신 N.쿠치키(편) | 진철승
60 별·마지막 수업 A.도데 | 정봉구
61 인생의 선용 J.러보크 | 한영환
62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F.사강 | 이정림
63 이동주 시집 이동주
64 고독한 산보자의 꿈 J.루소 | 연기용
65 파이돈 플라톤 | 최현
66 백장미의 수기 I.숄 | 홍경호
67 소년 시절 H.헤세 | 홍경호
68 어떤 사람이기에 김동길
69 가난한 밤의 산책 C.힐티 | 송영택
70 근원수필 김용준
71 이방인 A.카뮈 | 이정림
72 롱펠로 시집 H.롱펠로 | 윤삼하
73 명사십리 한용운
74 왼손잡이 여인 P.한트케 | 홍경호
75 시민의 반항 H.D.소로 | 황문수
76 민중조선사 전석담
77 동문서답 조지훈
78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 최현
79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80 문주반생기 양주동
81 신조선혁명론 박열 | 서석연
82 조선과 예술 야나기 무네요시 | 박재삼
83 중국혁명론 모택동(외) | 박광종 엮음
84 탈출기 최서해
85 바보네 가게 박연구
86 도왜실기 긴구 | 엄황섭 엮음
87 슬픔이여 안녕 F.사강 | 이정림·방곤
88 공산당 선언 K.마르크스·F.엥겔스 | 서석연
89 조선문학사 이명선
90 권태 이상
91 내 마음속의 그들 한승헌
92 노동자강령 F.라살레 | 서석연
93 장씨 일가 유주현
94 백설부 김진섭
95 에코스파즘 A.토플러 | 김진욱
96 가난한 농민에게 바란다 N.레닌 | 이정일
97 고리키 단편선 M.고리키 | 김영국
98 러시아의 조선침략사 송정환
99 기재기이 신광한 | 박헌순
100 홍경래전 이명선
101 인간만사 새옹지마 리영희
102 청춘을 불사르고 김일엽
103 모범경작생(외) 박영준
104 방망이 깎던 노인 윤오영
105 찰스 램 수필선 C.램 | 양병석
106 구도자 고은
107 표해록 장한철 | 정병욱
108 월광곡 홍난파
109 무서록 이태준
110 나생문(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 진웅기
111 해변의 시 김동석
112 발자크와 스탕달의 예술논쟁 김진욱
113 파한집 이인로 | 이상보
114 역사소품 곽말약 | 김승일
115 체스·아내의 불안 S.츠바이크 | 오영옥
116 복덕방 이태준
117 실천론(외) 모택동 | 김승일
118 순오지 홍만종 | 전규태
119 직업으로서의 학문·정치 M.베버 | 김진욱(외)
120 요재지이 포송령 | 진기환
121 한설야 단편선 한설야
122 쇼펜하우어 수상록 쇼펜하우어 | 최혁순
123 유태인의 성공법 M.토케이어 | 진웅기
124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125 인물 삼국지 모리야 히로시 | 김승일
126 한글 명심보감 장기근 옮김
127 조선문화사서설 모리스 쿠랑 | 김수경
128 역옹패설 이제현 | 이상보
129 문장강화 이태준
130 중용·대학 차주환
131 조선미술사연구 윤희순
132 옥중기 오스카 와일드 | 임헌영
133 유태인식 돈벌이 후지다 덴 | 지방훈
134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135 세계의 기적 박광순
136 이퇴계의 활인심방 정숙
137 카네기 처세술 데일 카네기 | 전민식
138 요로원야화기 김승일
139 푸슈킨 산문 소설집 푸슈킨 | 김영국
140 삼국지의 지혜 황의백 엮음
141 슬견설 이규보 | 장덕순
142 보리 한흑구
143 에머슨 수상록 에머슨 | 윤삼하
144 이사도라 덩컨의 우윙에세이 I.덩컨 | 최혁순
145 북학의 박제가 | 김승일
146 두뇌혁명 T.R.블랙슬리 | 최현
147 베이컨 수상록 베이컨 | 최혁순
148 동백꽃 김유정
149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A.베넷 | 이은순
150 평민한문학사 허경진
151 정선아리랑 김병하·김연갑 공편
152 독서요법 황의백 엮음
153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B.러셀 | 이재황
154 조선사 연구(草) 신채호
155 중국의 신화 장기근
156 무병장생 건강법 배기성 엮음
157 조선위인전 신채호
158 정감록비결 편집부 엮음
159 유태인 상술 후지다 덴 | 진웅기
160 동물농장 조지 오웰 | 김회진
161 신록 예찬 이양하
162 진도 아리랑 박병훈·김연갑
163 책이 좋아 책하고 사네 윤형두
164 속담에세이 박연구
165 중국의 신화(후편) 장기근 엮음
166 중국인의 에로스 장기근 역옥
167 귀여운 여인(외) A.체호프 | 박형규
168 아리스토파네스 희곡선 아리스토파네스 | 최현
169 세네카 희곡선 세네카 | 최현
170 테렌티우스 희곡선 테렌티우스 | 최현
171 외투·코 고골리 | 김영국
172 카르멘 메리메 | 김진욱
173 방법서설 데카르트 | 김진욱
174 페이터의 산문 페이터 | 이성호
175 이해 사회학의 카테고리 막스 베버 | 김진욱
176 러셀의 수상록 러셀 | 이성규
177 속악유희 최영년 | 황순구
178 권리를 위한 투쟁 R.V.예링 | 심윤종
179 돌과의 문답 이규보 | 장덕순
180 성황당(외) 정비석
181 양쯔강(외) 펄벅 | 김병걸
182 봄의 수상(외) 조지 기싱 | 이창배
183 아미엘 일기 아미엘 | 민희식
184 예언자의 집에서 토마스 만 | 박환덕
185 모자철학 가드너 | 이장배
186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 오상순
187 무하선생 방랑기 김상용
188 어느 시인의 고백 릴케 | 송영택
189 한국의 멋 윤태림
190 자연과 인생 도쿠토미 로카 | 진웅기
191 태양의 계절 아시하라 신타로 | 고평국
192 애서광 이야기 구스타브 플로베르 | 이민정
193 명심보감의 명구 191편 이응백
194 아큐정전 루쉰 | 허세욱
195 촛불 신석정
196 인간제대 주식
197 고향산수 마해송
198 아랑의 정조 박종화
199 지사총 조선작



200 이어령 단편선 〈흥동백서〉
201 최인호 단편선 〈유령의 집〉
202 오정희 단편선 〈목련초〉

▶각권 값 2,800원 ▶계속 출간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www.bumwoosa.co.kr T.(02)717-2121 범우사


부처님께 올리는 음악공양인 범패는 불교의식때 펼쳐지는 깨달음의 소리와 몸짓이다.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등 5개 단체 공연
전통문화 뿌리 찾기 대중화 좋은 계기될 듯

스님들이 춤과 노래를 한다. 그 춤은 깊고 차분한 구음과 불가 특유의 기악 연주가 합해지면서 숭고한 화엄 세계를 표출한다. 바로 범패다. 서울과 지방에 산재해 있는 그 범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저녁 7시30분 '민족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란 주제로 국립극장내 하늘극장에서 공연되는 '범패 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참가팀은 서울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전주 영산작법보존회, 마산 불모산영산재 보존회, 서울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 10호보존회 등 5개 단체로 총 5회에 걸쳐 공연이 펼쳐진다.

범패란 부처님께 올리는 음악공양으로 영산재같은 큰 불교의식이 있을 때 스님들이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진행하는 깨달음의 소리와 몸짓이다. 범패는 한국불교가 전래된 경로에 따라 중국과 티베트 등지의 불교음악에 영향을 받았으나,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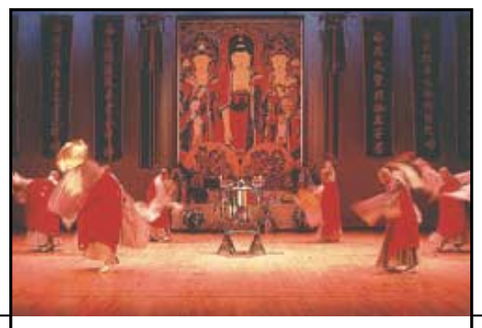
그러나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범패도 서서히 자취를 감춰, 이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받은 10여명의 스님만이 범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가들의 진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이번 범패 페스티벌이다.

이번 공연을 국립극장과 공동으로 기획한 모아엔터테인먼트 성영제 씨는 "범패는 정가, 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으로 꼽히는 귀중한 음악문화 유산"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고 대중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02)2280-411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깨달음의 소리 몸짓 큰 마당 펀다

범패 페스티벌

7월 17~21일, 국립극장





■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범패와 작법' (7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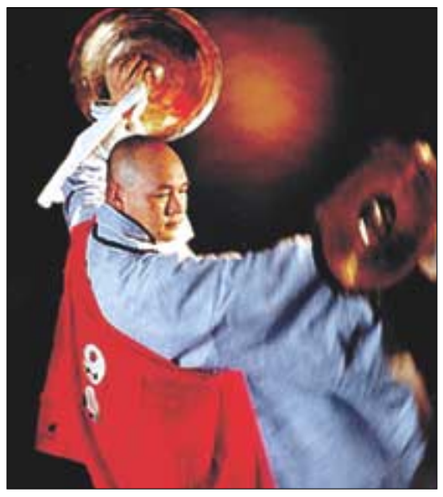
불교어산작법학교는 조계종에서 어산범패와 작법을 교수하는 유일한 종립 특수교육기관으로 1997년 5월 설립되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학교장인 인묵 스님과 성마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법안 스님(영산재 이수자) 등 30여명의 범패승들이 출연해 리듬과 화성이 없는 단성가락으로 주로 절에서 재를 올릴 때 부르는 불교의 성악인 홋소리와 짓소리 그리고 착복무, 바라무, 법고무의 세 종류로 나뉘는 불교무용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 10호
보존회 **'현충제'** (7월 21일)

능화 스님(인천 구양사 주지)을 비롯해 방추 · 정암 · 법안 스님, 최경희, 박종혁, 최귀진 등 인천 지역 전통 무용인들이 대거 출연해 애국선열들의 명복을 범패와 작법을 통해 빌어주는 내용인 '현충재'를 선보인다.

특히 어려운 한문가사를 쉽게 번역해 범패를 부르고 인천지역만의 특색인 바라춤과 나비춤을 대중적으로 작법한 안무를 선사한다.





■ 전주 영산작법보존회
'영산작법' (7월 18일)

완주 봉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주 영산작법은 전주 출신인 일응 이재호 스님이 26세때 봉서사 강보담 스님의 문하에서 깊이 연수를 거듭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전라도에 전승되는 범패와 작법을 석정 스님(전북무형문화재 18호 작법기능 보유자)을 비롯해 이수자인 혜안 · 혜정 · 현덕 · 법정 스님 등이 시련 신중작법 괘불이운 운수상단을 펼친다

■ 마산 불모산 영산재보존회
'불모산 영산제' (7월 19일)

통영과 고성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된 쌍계사, 화엄사 중심소리를 우담 스님과 해담 스님이 경남 일원에서 주석하면서 계승 발전시킨 것이 불모산 영산재이다.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제 22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마산 백운사 주지 석봉 스님(예능보유자)이 경암 · 해공 · 원공 스님 등 10여명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괘불이운과 대례왕공, 상축, 화청, 장엄 염불 등 서울의 영산재와 다르며 특히 팽가리를 대나무로 된 나무틀에 매달아 들고 치는 것이 특징하다.

■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영산제' (7월 17일)

서울 상도동 홍원사 주지 동주스님이 어장(魚丈)이 되어 정오 · 법우 · 도안 스님 등과 함께 홍고춤 신중창불 괘불이운 등을 하면서 짓소리로 인성(引聲)이나 거령산을 부르고, 홋소리로는 다게 복청게 등을 부른다. 물론 바라춤, 법고춤, 나비춤도 작법무로 추는데 이는 비구니 스님들이 맡는다.

이번 공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4명과 현재 영산재를 사사받고 있는 6명 등 10명의 스님이 출연한다.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진희이 소강절 두 분 선생의 비급!

▸후천을 연 대한민국

주역으로 풀이한 대한민국 100년사
무극시대(1910~1944)
→태극시대(1945~2004)
→황극시대(2005~)
※ 신국판 384쪽, 16400원.
저자: 건원 윤상철.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운명인가?
54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초봉의 혼란
45년 8월의 광복부터 2004년 8월말까지의 60년은 태극시대에 해당하므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다(1편).
6.25동란은 음과 양이 교류하여 이이를 잉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170~175쪽)
올 8월말까지 막가파식으로 다투어야 나라가 잘된다(280~282쪽)
9월 2일 신시의 사작경신의 행사가 시작되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길러지고 통일을 열 庚金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낸다(3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水路, 신의주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陸路, 나진에서 북극으로 뻗어가는 精神路의 삼태극이 이루어지면 人極人尊시대가 열린다(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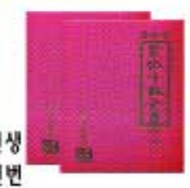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1월 12일 출간
"더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져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과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자미두수 전서



※ 4×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자미두수의 완결판, 진희이선생의 비급 자미두수전서를 완전번역, 역자: 이두 김선호.
『자미두수 입문』「심곡비결」이 7월 초에 출간됩니다.

▸하락리수(河洛理數)

4×6배판, 총 1900여쪽
상하 1질 100,000원
저자 : 김수길·윤상철
(부록:하락리수 쉽게보기)



진희이 선생이 창안하고, 소강절 선생의 완성한 하락이수의 상세한 해석과, 작괘 풀이법을 설명. 자신의 사주에 따라 일생의 운과 년운 월운 일운의 길흉을 판단할 수 있는 학문으로, 정이천 같은 철학자와 소동파 같은 문인도 그 정확성에 감복하여 일생의 지침서로 삼았다는 놀라운 적중률의 주역활용서.

CD 하락리수(河洛理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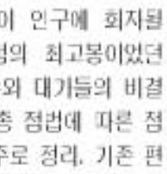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과 선천운을 즉시 확인함은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첨괘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 가격 300,000원
총괄 : 윤상철,
2004년 6월 중보.

▸편해매화역수(編解梅花易數)

※ 4×6배판 중보판
20,000원
저자 : 김수길·윤상철
2004년 3월 20일 중보판 발행.



"알기는 소강절"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주역의 대가이지 점의 최고봉이었던 소강절 선생 그 점학의 진수와 대가들의 비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점법에 따른 점치는 방법과 해석을 실전위주로 정리. 기존 편해매화역수에 소강절선생의 절자수, 글자점, 황극책수조수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여 소강절 점학에 대한 이해를 넓힘.

▸근간안내

자미입문
심곡비결
비서삼종
주역입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6>



전쟁터에서의 살인도 악업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숱한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지구촌 여기저기에선 전쟁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의 위협 아래 있다. 사실상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의 국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으로 이웃 나라에도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참혹하다.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은 막대하다. 아무리 명분이 온전할지라도 전쟁은 숱한 인명을 빼앗아간다. 따라서 어떠한 전쟁도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끼치며 승리하더라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패배한 자는 원한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찾는다.

마침내 며칠 전(6월 18일) 정부는 이라크에 국군을 추가 파병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추가 파병에 대한 정당 및 정치인 간의 대립, 시민 간의 이견이 여전히 하나로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부는 8월 초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파병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왜 우리나라 군인을 보내야 하는가라고 항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을 그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하여 평화활동을 주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쟁으로 파괴된 도로, 건물 등을 복구해 주며 주민들을 위한 의료활동도 한다고 한다. 한국군은 저항세력으로부터 테러 등 공격을 받을 때 방어적인 작전을 위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군이 이라크에 보내진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불이익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국군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또는 경제적인 이유 즉, 이라크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폭탄이 수시로 터지고 잇는 분쟁 지역에 젊은이를 보낸다는 것도 옳지 않다. 정치적인 고려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젊은 군인들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전쟁터에 우리 군인을 보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음의 <전투활경(戰鬪活經)>은 전쟁터일 지라도 살생을 금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사 마을의 촌장이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공손히 문안드렸다. 그리고 나서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는 오래 전에 어떤 늙고 덕 있는 전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전사라면 몸에 갑옷을 껴입고 손에는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장사(將士)가 되어 선봉에 서서, 수단과 방편을 다해 원수인 적을 잘 무찌르면 그는 이 행위가 인연이 되어 전항복천(箭降伏天)에 태어난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부처님의 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물자, 부처님께서 두 번 세 번 그만두게 하셨는데도 오히려 질문을 그만두지 않았다.

마지못해 부처님께서 촌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물을 것이니 그대는 마음대로 대답하라. 촌장이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만일 전사가 몸에 갑옷을 입고 전사의 선봉이 되어, 수단과 방편을 다하여 원수인 적을 잘 무찌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어찌 상해(傷害)하려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 저들을 결박하고 칼을 쓰워 찔러 죽이려는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싸움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악을 짓게 되나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악한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전항복천과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치·경제적 이유로 젊은이 희생해선 안돼
적군 죽이는 행위, 본질적으로 살인과 같아

전쟁 중에 벌어지는 살생은 일상적인 살인과 다르게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살인은 사회 질서 및 인간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진다. 그러나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영웅적인 행위로 칭송된다. 적을 많이 죽이면 죽일 수록 더 큰 훈장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전쟁터에서의 살인도 일반적인 살인과 마찬가지로 칭송 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면 지난 역사에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인에겐 위대한 장군으로 칭송되었겠지만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을 받은 나라의 국민들은 그를 살인마라고 저주했을 것이다. 이렇듯 상대적인 것이다. 개인간의 싸움이 가장 확대된 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살생이라는 악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범추 스님은 신 · 해 · 행 · 증의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라고 말한다.

보시할 수 있는 모든것에 기꺼이 달려 가라

지상 백고좌

범추스님

(청주 풍주사)

6월 11일, 충북 청주시 고령산에 위치한 풍주사 경내에서는 헌혈 캠페인이 열렸다. 주지 범추 스님이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하자 신도 1백여명이 일제히 헌혈차에 올랐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보시정신을, 피(血)를 나누면서 새롭게 되새기고자 범추 스님이 마련한 것이다. 스님의 법문을 굳이 따로 들어보지 않아도 이런 행(行)을 직접 목격 하고나니 오늘 법문의 주제는 바로 '보시' 로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영락없이 주지실에서 범추 스님이 꺼낸 첫마디는 바로 그것이었다. '보시'. 스님이 생각하는 보시는 어떤 것일까.

세상사 비판만 말고
먼저 감싸주고 사랑할때
밝은 내일 열립니다

행(行)을 할 줄 알아야 부처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이 땅에 오신 뜻은 바로 자비와 보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자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믿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행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아는 것이 아니지요. 뿌리없이 꽃이 필 수 없으며, 꽃이 피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信) · 해(解) · 행(行) · 증(證)의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요즘은 특히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형국인데 모든 인연중생들이 신 · 해 · 행 · 증 을 바르게 믿는다면 어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변화가 따르지 않는한 자비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신 · 해 · 행 · 증의 진리를 다시 실천할 때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행을 실천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보시입니다. 불교에서의 보시란 주어도 주었다는 마음없이 내주는 것이 진정한 육바라밀의 보시라 했습니다. 마음만 갖지 말고 우리 주변에 내가 보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기꺼이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부처님 마음으로 다가가면 심신이 안정되고 산란심이 없어져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맑은 거울 위에 모든 물상이 역력히 나타나지만, 그 거울자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보시공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속에서 타인에게 가장 편하게 꺼내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혈액, 바로 피지요.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립시다. 그래서 보시의 기쁨을 만끽해 봅시다. 오늘 헌혈 행사도 바로 신 · 해 · 행 · 증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헌혈해 준 만큼의 피가 없어도 내 몸을 지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언젠가 나도 피가 모자라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피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피를 나눠 준다고 해도 장한 일을 했다는 상(相)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살다보면 언젠가 그것이 다시 나한테로 회향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느 것이든 줘도 준다는 마음이 없어야 부처님 마음이지, 되돌아 오겠지 하는 마음만 믿고 줬다는 생각을 하면 그 순간 공덕은 사라집니다.

내가 신 · 해 · 행 · 증을 방편으로 삼으며 신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생(放生)입니다. 우리는 흔히 방생하면 물고기나 거북이를 풀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방생은 인위적인 곤경에서의 해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모든 생명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마음이 자비이며, 그것이 곧 방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러진 제비 다리를 치료해주는 것이 방생이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해주는 것은 방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서 이미 존재가치를 가지는 법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땅위를 기어가는 미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길을 걸어갈 때 미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장자로 땅을 울려 '사람이 지나가니 몸을 피해 목숨을 보존하라' 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만회하기 위해 어린이를 유괴하고, 그것도 모자라 살아 있는 생명을 가방에 넣어 수장해버린 작금의 작태를 보면 다시한번 방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백정이 소를 죽일 때도 그 고통을 생각해서 단번에 죽인다는데, 이는 사람이 소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세태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라면 인간성이 소멸되어 가는 세상을 비판만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고 아껴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대할 때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로서 세상을 보면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중생심으로 보면 업에 따라 차별이 일어나 분별만 커지는 법입니다.

물고기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

"부처님 등불"
수공예양초

기원 전기촛불 수공예 양초 (색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빨강 외 다수)

귀의 삼보 하옵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자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을음과 미세한 먼지로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이런 점들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환히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 장인정신을 담아 손으로 정성껏 제작한 수공예양초입니다.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옥색) 소원성취(파랑) 신혼기원(자주)

전국 불교용품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평상



size : 1500×820 ×400 가격 150,000 할인가 130,000
1800×1030×480 가격 220,000 할인가 190,000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폴리프로필렌은 반영구적이며 촉감이 어린이 살결과 같은 느낌을 주며 조립식이라 이동이 간편 하고 또한 얼마든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이 스며 들지 않아 비온 후 바로 앉을 수 있는 평상, 그릇씻는 다이, 채소 등등 다이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상. 봄 여름 가을에 자연과 더불어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휴식공간.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아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
TEL:(063) 323-3010~1
FAX:(063) 323-3012
실용신안 제0305212
의 장 제0300518

전화 주문시 무료배송 지역 대리점 모집

알립니다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아늑한 산속 기도도량입니다.

천년된 입체미륵 석불이 땅속에서 나투신 영험있는 기도도량을 준비하는 관계로 이제서야 개방함을 알립니다.

조계종스님으로 강원 및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법력10년이상된 엘리트스님 6분을 모십니다. 보시금은 최고대우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찰음식에 자신 있으신 공양주보살님 2분도 함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또한 삼사순례 주지스님께서는 미리연락주시면 점심공양을 무료로 드립니다. 공양인원은 5백명까지 가능합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보살님께서는 통나무 하우스에서 무료숙식 가능하오니 누구라도 기도효험을 받아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주지 삼밀 합장

031-884-4883

찾아오시는길 : 영동고속도로 여주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 → 장호원방면으로 8km가시어 전동면 소재지에서 미륵사를 찾으십시오.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작은 보시도 큰 공덕이 될 수 있으며, 재물과 돈이 없어도 보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범추 스님.

랑하고 중히 여길 때 방생의 공덕, 보시의 공덕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보시도 큰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일화를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시 공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테니까 일화를 통해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부처님이 사위국의 제타 숲 '외로운이 돕는 동산' 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당시 베를 짜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수마였지요. 그는 너무 가난해 집에 한 되의 곡식도 저장할 수 없는 날품팔이로 겨우 그날 그날을 연명해 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마는 자신의 신세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보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같은 가난과 고통을 겪는다. 그렇다면 현생에도 보시를 하지 않으면 곧 닥쳐올 내세에 가서는 보다 더 한 가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노력해서 조그마한 물건이나마 보시하여 내세에는 보다 나은 과보를 받아야 겠다.' 평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수마는 어느날 실 한 타래를 구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거리 한복판에서 발우를 든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과 함께 걸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때 수마는 들고 있던 실타래를 만지작거리며 '이거라도 부처님께 보시해야겠다' 는 생각에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를 보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실을 받아들더니 마침 잘되었다는 듯이 몇 군데 떨어진 가사를 꿰매었지요. 이때 부처님께서 떨어진 가사를 꿰매시는 것을 본 수마는 너무도 기뻐 부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과 돈이 없어서 보시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는 여섯 가지 보시는 재물이 없어도 됩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눈빛으로 부모, 스승, 이웃들을 대하는 것을 눈 보시라 합니다. 이렇게 눈 보시를 하는 사람은 죽은 후 내세에 태어나더라도 청정한 눈을 얻게 되고, 또 미래에 부처가 되어 하늘 눈, 부처 눈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얼굴빛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로 하는 보시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쓰고 험한 말은 쓰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내세에 태어날 때 말을 잘하는 재주를 타고나며, 그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됩니다. 넷째는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부모와 스승, 스님들을 보면 항상 일어나서 맞이하며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음의 보시입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받들고 공양한다 해도 마음이 온화하고 착하지 않으면 보시라 할 수 없지요.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하는 것이 마음 보시입니다. 여섯째는 자리의 보시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때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세에 태어날 때 질보로 된 귀중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이 여섯 가지 보시는 구태여 재물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게 보시라 하면 무언가 물질로써 베푸는 것만을 알고 있는 불자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에서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는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일 수 있으니 잘 살펴 나누는 마음을 실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리= 김주일기자 · 사진 고영배기자

주었다는 마음 없이 내주면
심신이 안정되고
마음 가벼워져

범추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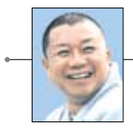


1949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범추 스님은 52년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해인사, 조계사, 직지사 전문 강원학교를 졸업한 스님은 75년 청주 조령산에 풍주사를 개원했다. 이때부터 범추 스님은 재소자 포교에 전력을 기울였다. 83년 청주 교도소 종교지도위원을 시작으로, 84년 청주 소년원 교화위원, 91년 청주 지방 검찰청 소년 선도위원, 92년 청주 경찰서 보안지도 위원으로 위촉돼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97년과 98년에는 각각 법무부 장관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충북참여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사후세계> <연화가 피어온 발자취> <내마음 연꽃 피는 법 알았으니> 등이 있다.

범추 스님을 20여년동안 시봉해온 풍주사 원주 덕일 스님은 "범추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단지 법문으로만 회향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을 통해 무언의 가르침을 주신다"고 평했다.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일관 스님



지난 2003년 1월 20일 혜암 스님의 문집관계 일로 문도스님들과 함께 백양사 서옹 큰스님을 친견했다. 혜암 스님을 해인사로 출가하게 하고, 인곡 스님을 은사로 인연맺게 한 것이 서옹 스님의 권고였다. 혜암 스님의 속가집이 백양사 아랫마을이어서 스님은 서옹 스님을 자주 뵐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혜암 스님 법어집의 서문은 당신께서 거동하기가 힘이 부쳐서 직접 쓸 수는 없으나 감수는 해주겠노라는 말씀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범어사 선원장인 인각 스님을 뵙고, 점심공양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포교원의 포교국장 자리가 비었는데, 살아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런 자리를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그림 · 문병성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옆에서 듣고있던 해인사 원당암 감원인 사형스님이 좋은 기회이니 소임 맡아보기를 권해,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후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면접을 보면서 일관 스님은 혜암 스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다. 혜암 스님을 해인사 행자 때부터 시봉을 했으며, 강원과 선방을 다니면서도 스님을 모셨다고 했다. 일관 스님은 어른의 입장을 살펴서 편하게 모신다. 혜암 스님도 그렇고, 포교원의 원장스님, 또 일관 스님의 은사스님인 일면 스님도 그렇게 모신다.

일관 스님이 해인사 선방과 칠불선원 등 제방의 선원에서 마음 닦는 공부를 치열하게 하고 있을 즈음, 은사인 일면 스님이 상계동의 작은 주택을 매입, 사찰로 운영해 보라고 했다. 이때까지 선방만 다닌 스님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일관 스님은 칠불암의 운상선원에서 공부할 때에는 정말로 신심 충만한 용맹정진으로 '일관' 했다. 이때의 법열은 가히 말로는 토로하기가 어려워 장문의 글을 편지지에 옮겨 도(道)의 무게를 실어 은사에게 보냈다. 일면 스님은 그 글을 보고 대견하고 흐뭇했다. 내 상좌가 이토록 마음 닦기를 일심으로 하니 즐거울 수밖에 없었을 터다. 맏상좌가 꿋꿋하게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은사스님 마음 또한 환희심으로 가득할 것은 불문가지 아니겠는가.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 훌륭한 상좌에게 새로운 도심으로 급성장하는 상계동에서 포교를 하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이끌어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일면 스님은 맏상좌인 일관 스님을 해인사에서 상좌로 받았다. 일면 스님은 하심수행을 위해서 해인사에서 공양주 소임을 보았는데, 그때 일관 스님이 일면 스님과 은사 상좌 관계를 맺게된 것이다.

공부가 환희심으로 가득해서 세상사는 초연하게 지내는 일이 도(道) 닦는 일에는 최고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살아 왔는데, 갑자기 포교를 하라고 하니 난감했다. 하지만 은사스님의 명령이니 거역할 수도 없다. 부처님 말씀을 대중에게 널리 전하는 포교의 길은 처음 들어섰지만 성실과 인내로 꾸준히 했다. 한창 강남에는 능인선원, 강북에는 사천왕사 라고 해서 서울 도심포교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즈음이었다.

신도들에 부담지우지 않고
평소 시줏물 아껴 불사

사천왕사와 같은 상계동에 있는 보현사는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포교의 걸음을 성실히 내딛고 있었다. 일관 스님이 주지로 있는 보현사는 날로 번창하여 인근의 경기도에도 포교당을 개원했다. 스님은 시줏물 아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코 헛되이 쓰는 법이 없다. 불사도 시줏물을 모아서 하기에 신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일관 스님은 매사를 투명하게 처리하며, 회계처리가 당신의 삶처럼 늘 분명하다.

내가 조계종 포교국장 소임을 살면서 1년여 동안 포교부장인 일관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옆에서 지켜보니 일관 스님은 원칙이 분명하고, 변함없는 성실한 자세로 일을 처리한다. 출근도 전 직원들 가운데 제일 빠르다. 항상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긴장을 늦출수가 없다.

나는 또 시골에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살다가 갑작스레 종단의 조직생활에 적응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촌뜨기인 내가 조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원칙이 철저하고 당신생활이 투명한 스님 밑에서 1년3개월 동안의 소임을 마치고 최근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면서 즐겁게 소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해인강원의 선배이기도 한 일관 스님. 겉으로는 냉정한 듯 하지만, 미간에 부처님의 백호를 지니고 있는 상호와 거기서 풍기는 자상한 미소도 뽑어낼 줄 아는 스님이다. 스님을 생각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을 자신감이 생겨난다.

■ 해인사 원당암

육 법 등(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워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성불에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氣로 건강을 지키는 금강염주

금강약석은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5%의 높은 원적외선,음이온이 발산되고 98%의 살균작용을 하며 활성탄의 몇 배 강한 흡착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가 맑아지고, 원활한 신진대사, 혈액순환등에 효과적으로 북한에선 일부고위층만 사용하며 뇌졸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천식, 치매, 아토피등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오염된공기,수맥파,OA기기,컴퓨터에 의한 전자파등 현대의 환경속에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님들께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을 드리는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혐심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정진하시는 스님 및 불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및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희귀의 금강약석이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판하며 화제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님께서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로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氣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로 기도 정진시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시며 가피를 받습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해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감사의 뜻으로 금강염주를 별도로도 추가 판매합니다.

◎ 1세트 가격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108염주,12단주,손목염주 225.000원

◎ 별도가격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입금구좌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발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지루한 박물관은 가라!

가족중심 체험프로그램 강화
흥미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주5일제 맞춰 토요 야간개장도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손수 만든 탈을 쓰며 즐거워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프로그램

박물관	특색있는 프로그램	홈페이지	연락처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현장학습	www.nfm.go.kr	(02)3704-3102
국립중앙박물관	주말가족교실, 장애우 및 근로청소년 박물관 교실, 공예교실	www.museum.go.kr	(02)2077-9254
국립국악박물관	청소년국악문화탐방,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국악문화 강좌	www.ncktpa.go.kr	(02)580-305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어린이바다교실, 해변극장, 바다문화학교	www.seamuse.go.kr	(061)278-4271
서울역사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대학, 청소년 박물관교실, 어린이 역사탐험교실	www.museum.seoul.kr	(02)724-0114
경기도박물관	해설이 있는 '우리 춤 정기공연', 문화영화 상영	www.musenet.or.kr	(031)288-5300
국립중앙과학관	도자기술체험, 주말별자리여행, 천체과학교실	www.nsm.go.kr	(042)601-7910
국립경주박물관	경주박물관학교, 서라벌문화체험한마당, 오지어린이 박물관 체험	gyeongju.museum.go.kr	(054)740-7518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역사문화 특강	gongju.museum.go.kr	(041)850-6360
국립부여박물관	문화재안내 일본어 강좌, 우리가락 배우기, 문화체험실	buyeo.museum.go.kr	(041)832-5582
국립김해박물관	문화영화상영, 엄마와 함께하는 박물관교실, 가야학 아카데미	gimhae.museum.go.kr	(055)325-9332
국립대구박물관	문화재사진촬영강습, 청소년문화강좌, 어린이박물관	tgmuseum.org	(053)768-6051
국립청주박물관	박물관전시유물 그리기대회, 전통공예품 만들기 및 문화유적 답사	cheongju.museum.go.kr	(043)255-1632
국립광주박물관	토요갤러리 토크, 찾아가는 박물관, 박물관 대학, 토요 야간개관	gwangju.museum.go.kr	(062)570-7024
국립제주박물관	여성영화제, 박물관 교사대학, 야간무료 개관	jeju.museum.go.kr	(064)720-8000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공예교실, 초 · 중등교사 박물관 연수	chuncheon.museum.go.kr	(033)260-1500
국립전주박물관	토요문화유산대학, 체험학습실 운영	jeonju.museum.go.kr	(063)223-5651
국립진주박물관	가족영화상영, 전통문화 강좌 '토요일은 박물관 가는 날'	jinju.museum.go.kr	(055)742-5951

야호~!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꽉 짜여진 학업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아이들을 손을 잡고 '살아있는 교육의 장' 박물관을 찾아 재미있고 보람찬 방학을 보내보자.

교육적이긴 하지만 전시품 위주의 심심하고 지루한 박물관은 더 이상 없다. 전통문화체험과 공예교실 등 다양한 체험학습과 엄마와 함께하는 박물관교실, 주말가족교실 등 가족위주의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 박물관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기 때문. 또한 실내전시장뿐만 아니라 실외전시장을 대형전시품 전시나 민속놀이광장, 야외공연장 등 열린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소리치고 뛰어놀며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 등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어린이박물관 등 어린이 · 청소년들을 위한 박물관과 문화 프로그램들을 별도 운영하고,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등은 주5일제 수업 및 근무를 위해 토요 야간개장을 하는 등 지역시민들의 문화센터와



'엄마랑 나랑 민속박물관 여행'에 참가한 가족들이 전통떡을 만드는 모습.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각 박물관의 성격과 지역별 특징에 따라 주말국악문화 강좌, 해변극장, 오지어린이박물관 체험, 주말별자리여행, 가야학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명심보감으로 한문 공부해요

전통문화硏, 7~8월 수준별 여름방학 특강

한자를 모르면, 상급학교 진학과 회사 입사에 불리하다는데 한문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전통문화연구회 부설 고전연수원(원장 정태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82기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사자소학과 추구, 명심보감 등의 교육을 통해 한문능력 배양은 물론 학습자들의 인성교육까지 담당한다. 특히 고전연수원 정태현 원장의 '녹어집주특강'과 공주대 한문교육과 신용호 명예교수의 '고문진보 후집' 등의 강의는 단순히 한자를 쓰고 익히는 강좌가 아닌, 보다 전문적으로 한문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고전연수원은 사이버학당(www.cybersodang.co.kr)을 개설, 초등한자 · 중등학자 · 한자능력시험대비 강좌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02)762-8401

여름방학 특강계획

과목	강사	시간	회비
사자소학 · 추구 · 명심보감	윤세순(인하대)	화 · 금 10:00~11:50	무료
서예	장용남(미협초대작가)	수 13:00~14:50	무료
동몽선습 · 격몽요결	성당제(성균관대)	화 · 금 13:00~14:50	5만원
논어집주	정태현 (고전연수원 원장)	월 · 목 13:30~16:10	10만원
맹자집주	전호근(성균관대)	화 15:30~18:10 목 · 토 10:00~12:40	11만원
대학 · 중용장구	김상환(정신문화연구회)	월 · 목 18:30~21:10	7만5천
고문진보 후집	신용호(공주대 명예교수)	월 · 수 10:00~12:40	7만5천원

※처음 회원등록시 입회비 2만원 별도

공연

여성불자대회 문화행사 풍성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기간중에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더욱이 문화행사는 매일 저녁 7시 20분부터 1시간 30분동안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리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을 해야만 참가할 수 있는 학술대회와는 달리 누구나가 다 관람할 수 있다.

문화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세계평화기원 콘서트'와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염원과 피날레를 장식하는 축제' 프로그램.

우선 7월 1일 세계평화기원 콘서트에는 니르바나 반주에 맞춰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세계애창곡 모음' '밀레니엄 아리랑' 등이 연주된다. 또 바이얼린 김복현 씨가 '비발디의 사계중 여름'을, 니르바나 악단이 '초파일 송가' '한마음 있음이여' 등을 들려준다. 7월 2일 '평화 염원 축제'에는 무용극 '두생각 한마음'이 보니김에 의해서 펼쳐진다. 이어 퍼포먼스 그룹인 들소리가 집잔신명 퍼포먼스 '타오'를 보여준다. (02)766-9580

날 짜	주 제	프로그램명	출연자
6월 30일(수)	'명상' 관련 문화축제	다도시연	한국명차선인회
		색즉시공, 2004 명상	안무가 이선옥 교수
		명상음악 연주	나윙케촉
7월 1일(목)	세계평화기원콘서트	찬불가, 클래식, 합창곡	니르바나 필하모닉, 대한불교소년소녀 합창단
7월 2일(금)	한반도 평화염원 축제	한마당 퍼포먼스 , 무용극	보니김, 들소리

극장가

인어공주 / 드라마, 로맨스 / 110분



개봉예정일: 6월 30일
감독: 박흥식
출연: 전도연, 박해일, 고두심, 김부선, 이선균 등
등급: 연소자 관람가
부모님의 젊은 시절이라는 낯설고도 궁금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유쾌한 판타지. 주인공 나영(전도연 분)이 엄마의 스무 살 시절이라는 상상치도 못했던 시공간 안에 순수하고 따뜻한 인물들과 엄마의 첫사랑에 끼어들게 된다는 스토리를 적절히 녹여낸다.

스파이더 맨 2 / 액션, 어드벤쳐, SF / 125분



개봉예정일: 6월 30일
감독: 샘 레이미
출연: 토비 맥과이어, 커스틴 던스트 등
등 급 : 12세 이상
유전자 조작 거미에 물려 스파이더맨이 된 피터 파커(토비 맥과이어 분).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메리 제인(커스틴 던스트 분)과의 약속은 어긋나기 일쑤고, 스파이더맨에 죽은 아버지의 복수심에 불타는 친구 해리의 모습 역시 모른 척할 수 밖에 없는데….

무간도 Ⅲ -종극무간 / 드라마, 홍콩느와르 / 117분



개봉예정일: 7월 2일
감독: 맥조휘, 유위강
출연: 양조위, 유덕화, 여명, 진도명, 진혜림 등
등급: 15세 이상
무간도 시리즈의 종결편. 몇차례 개봉이 연기된 끝에 드디어 선 보이는 무간도 3편은 전편에서 죽어간 진영인(양조위 분)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어나간다. 탄탄한 스토리와 홍콩 영화 액션이 영화의 볼거리.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 부산 FM 89.9 MHZ / 광주 FM 89.7 MHZ / 대구 FM 94.5 MHZ / 청주 FM 96.7 MHZ / 춘천 FM 100.1 MHZ

05: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02: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7:10 무명을 밝히고
18:00 저녁예불
21:30 BBS 초대석
00:00 살며 생각하며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30일 15:10 특집 선원장 법회(혜국스님)
1일 15:10 특집 선원장 법회(현웅 스님)
2일 15:10 특집 선원장 법회(도현 스님)
3일 15:10 특집 선원장 법회(설정 스님)
4일 15:10 정경대 박사의 의명학 강의3
5일 20:30 수진 스님의 화엄경 강의
6일 09:20 성운 대사 불경강좌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사찰순례(7월 4일 일요일 오전 6:30~7:00)- 전국 각지의 사찰 역사와 성보 문화재, 사찰에 깃든 설화와 주석하셨던 스님들의 구도열정을 사찰문화 연구원 신대현 박사가 흥미진진하게 소개하는 시간.

■**불교텔레비전**: 정세채교수의 선식건강법 밥상에 도가 있다(7월 1일 08:20~09:20)- 불교TV 건강 프로그램인 '정세채 교수의 선식건강법, 밥상에 도가 있다'. 이번주는 '자귀나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본다. 정신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요통, 타박상 등 외과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자귀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희담석찜질팩(신형)

기존 제품 2배반이상의 희담석 원료를 사용한 신형 찜질팩. 고품질 희담석의 원적외선과 99.9%의 향균작용으로 보다 강력해진 효과. 체내에 쌓여진 노폐물을 배출하고, 세포의 노화예방 등에 탁월. 특히 근육통, 신경통, 관절염 등에 뛰어남. 가로 24.5cm×세로 36cm. 재질 희담석 100%. 가격 3만 9천 8백원. (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연기로 본 금강경 안성 도피안사가 이시우 박사(前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의 강연 '우주법계와 근본원리' 및 '연기로 본 금강경'을 7월 4일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진행한다. (031)676-8700

금강경 대강좌 경주 불국사 불교대학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불국사문화회관 3층 강당에서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의 '금강경 대강좌'를 진행한다. (054)746-2211

연꽃명상 워크숍 보성 대원사가 7월 3~4일 세계적인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과 함께하는 '하늘호수 연꽃명상 워크숍'을 개최한다. (061)852-1755

함께 해요

재가어르신 칠 · 팔순잔치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내 저소득 및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가어르신 칠 · 팔순잔치'를 6월 30일 금천노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연다. 이날 잔치는 각종문화공연과 선물 나누기 등의 행사로 진행된다. (02)804-4058

보육 한마음 축제 서울시가 아이와 부모,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보육 한마음 축제'를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보육변천사를 담은 만화, 사진, 그림 등이 전시되며,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직접 만든 놀이기구, 보육프로그램, 아동활동사진 등이 선보인다. (02)772-9814

돗자리 무료영화제(사진) 서울청소년미디어센터가 8월 말까지 천호동 공원 야외무대에서 돗자리 무료영화제를 연다.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밤 8시부터 진행되는 영화제는 릴로와 스티치(7월 3일), YMCA 야구단(31일), 돌리-얼음별대모험(8월 7일) 등이 상영된다. (02)470-8150



2030 당뇨환자 건강캠프 대한당뇨병학회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20~30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7월 2~4일 경기도 그린화재연수원에서 '2030 건강캠프'를 연다. 이 캠프는 결혼과, 출산, 사회생활 등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20~30대 당뇨병 환자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02)714-9064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오세요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들의 말벗과 간병, 목욕, 청소 등을 담당할 가정방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단, 월1회나 주1회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051)628-6737

일할 어르신을 찾습니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소득증대를 위해 공동작업장에서 일할 어르신들을 모집한다. 일은 문구류 포장 등 간단한 업무.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02)466-6242

선재 유아 자연체험캠프 충주 선재마을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선재 유아 자연체험캠프'를 7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캠프는 일일캠프나 1박 2일간의 캠프 등으로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043)855-0408

즐겁게 떠나요

정자문화의 원류를 찾아(사진)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정자문화의 원류를 찾아'라는 주제로 7월 4일 담양 일대로 문화기행을 떠난다. 담양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취가원 등 조선시대의 조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 성인 4만원, 어린이 3만 5천원.(02)725-1284



KTX로 떠나는 갓바위 여행 철도청이 7월 1일부터 'KTX로 떠나는 대구시티투어'를 진행한다. 용산역을 출발해 팔공산 갓바위, 동화사, 신숭겸장군 유적지 등을 돌아볼 이번 여행은 매일 한차례 운영된다. 성인 7만 7천원(주말), 6만 9천 5백원(주중). (02)1544-7788

20면 상식 퍼즐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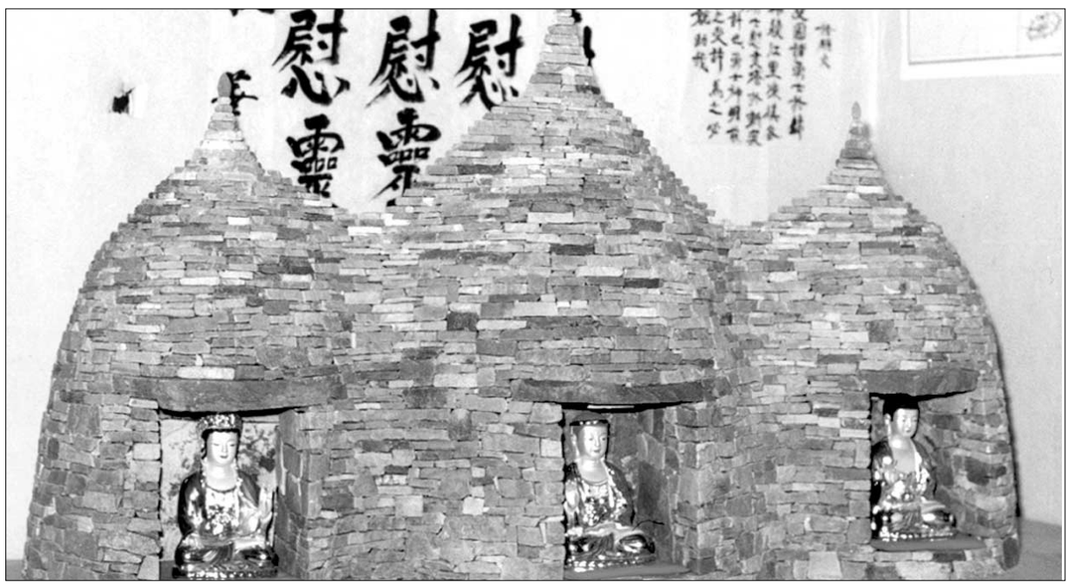
백	고	좌		고		
일		우	국	충	정	
법			화		등	
문	패				각	서
	엽		피			부
	경	거	망	동		전
		부		거	북	선

신행수기

무봉탑(無縫塔) 〈하〉

김봉환 (43·충북 진천)

어렵게 구한 돌 쌓기만 하면 무너져
참회하며 장승 한 쌍 세우니 '홀가분'



무봉탑을 쌓기에 앞서, 임시로 집안에 쌓은 작은 탑에 모셔놓은 삼존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선은 집안에라도 탑을 쌓고 그 안에 삼존불(三尊佛)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끝하나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의 몸은, 탑을 쌓으려는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적당한 돌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말았다. 금방이라도 완성될 것 같던 탑이 단 10cm도 올라가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처음 탑을 쌓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끝에서 하나로 이어져 올라가던 돌들이 그때보다 더욱 정성을 들이는데도 하나같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업이나 원결을 쌓은 것은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들여보았지만 돌들은 잔뜩 불만이 쌓인 채 등을 돌리고 서있는 느낌이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

또다시 처음 '무'자 화두를 들었을 때의 막막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탑이라는 답을 얻었으니 이제 실행만 하면 될 것이라는 그 희열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는 자괴감이 물밀 듯이 몰려오고 있었다.

'부처님 전에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한없는 자괴감으로 전신이 지쳐나갈 때, 탑이 완성되면 그 안에 모시려고 한 삼존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꿈에서 뵌, 불보살들의 장엄한 화현(化現)이 생생한 기억으로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참회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게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 배, 이 배… 이마에서 시작된 땀이 등허리를 타고 내려갔지만 나의 오체투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무런 고통도 그에 따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

이때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가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다.

돌이었다. 쓸만한 돌을 찾을 요량으로 내 손에 들려지다, 성에 차지 않아 다시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던 그 볼품 없던 돌들이 오체투지에 지쳐 가는 내 전신의 기혈(氣穴) 곳곳에 아무런 조건도 기대도 없이 불보살의 원대한 공력을 실어 건네주는 것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의 그 긴 시간동안, 내 손끝에 버려진 돌들이 내게 이런 자비를 베풀고 있다니…. 그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환희심에 전신이 녹아들고 있다는 느낌만이 전해질 뿐이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했든가, 유정물과 무정물의 경계마저 허물어버린 경지가 바로 불국토인 것을 숙지할 수 있는 무한 공덕을 받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경이로움이었다. 그토록 속을 썩이며 허물어지던 선택받은 돌과 내게 불보살의 자비를 그대로 전해준 버려진 돌이 내 입가에 핀 미소를 보고 하나같이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는 대발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불보살의 한량없는 공덕의 결과로 삼존불을 모신 작은 탑을 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또 한번 탑을 쌓는 일이 내 운명인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루빨리 탑을 쌓아야한다는 생각만으로 전국의 곳곳을 찾아다니는 험난한 여정 중에도 불심이 깊은 불자나 선지식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 수록 내 몸과 영혼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 생업마저 포기한 채 오직 탑 하나만을 생각하다 보니 때로는 나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정도가 되었다.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참기 힘든 인고의 시간들이 다시 몇 년의 세월로 흘러가고 말았다.

그 사이에 인연이 닿는 산자락 곳곳에 작은 탑들을 쌓기도 하였지만 나의 가슴은 오직,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론 구천을 떠도는 수많은 영혼을 일순간에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자대비의 원력이 담긴 탑을 쌓는 일이었다. 그러던 지난 겨울 폭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현몽(現夢)을 접할 수 있었다.

탑을 쌓지 않고서는 이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정수리 부위에 서기(瑞氣)가 내려앉는 느낌에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 생에선가 한 번은 뵈었을 듯 싶은 노스님이 나타나 '부처님 전에 올릴 나무 한 쌍이 쓰러졌으니 일으켜 세우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다.

나는 스님이 일러 주신대로 폭설이 내린 속리산의 한 자락에서 나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소나무 한 쌍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소한 100년 이상 되어 보이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이처럼 쉽게 몸을 꺾었다는 사실을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앞으로 몇 백년은 더 살 수 있을 소나무가 자신의 몸을 기꺼이 불전에 바쳤다는 생각마저도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스님의 현몽대로 쓰러진 소나무를 불전을 지키는 장승으로 되살리는 일밖에 없음을 자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속리산 자락에 탑을 쌓기 위한 대업(大業)의 시작을 알리는 장승 한 쌍을 세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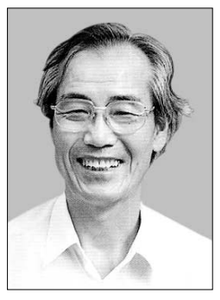
하루빨리 불보살의 원력이 담긴 탑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도 생업과 기도를 이어간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하〉



윤철환
시인·한국화가

어느 날 '동방문학' 모임에 나갔다가 뜻밖의 광고를 접했다. <동방문학> 발행인이 "만약 24시간 밖에 더 살지 못한다면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글을 써내라는 것이었다.

죽음이 촉박한 사람의 의식이야말로 절대절명의 상황이니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엄청난 강박관념으로 다가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글로 나타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낸다는 전제에서 기획을 했으리라. 다만 어디까지나 가정 하에서 쓰는 것이니 과연 진솔한 글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반드시 죽는 것이라면 결국 태어난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것이며,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죽기 위해서 사는 셈이 되지 않는가?.

그러나 누구도 죽어본 사람은 없다.

'죽음을 삶으로 받아 들이자' 고 다짐
집착 떨쳐버린 평상심의 일상 노력

그러므로 죽은 후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종교의 차원에서 천당(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신념일 뿐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까닭은 사후세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불확실한 것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니….

그러면 과연 죽음은 누구나 싫어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주안에 있는 용화선원에 갔을 때 전강(田岡) 선사의 생사관(生死觀)이 그의 진영 옆에 쓰여있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생야 시사아(生也 是死也)' 즉 산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달리 보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죽음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승들은 죽음도 삶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혜월 선사는 그가 일상적으로 해 오던일, 즉 땔감으로 주어오던 솔방을 삼태기를 지게에 얹어 짊어지고 내려오다 지게를 내려놓고 쉬다가 다시 일어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열반에 들었다. 한암 스님은 법상에서 법문을 하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은 자세로 열반에 들었으며, 지난 겨울에 입적한 서옹 선사도 앉은 자세로 열반에 들었다지 않은가.

삶과 죽음을 이렇게 볼 경우 죽음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일 이유가 되지 못하며 따라서 이러한 주제로 글을 쓴다는 것 조차 부질없는 일처럼 여겨졌다. 어디 그뿐인가, 대승불교권에서 법회를 할 때마다 불자라면 대부분이 암송하고 있는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는 어구를 주문처럼 낭송하고 있지 않는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나지 않는다면 죽지도 않을 것임은 더 말해 무엇할까.

문제는 중생 즉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서다. 왜 중생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집착 때문이다.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다면 죽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겠는가.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나도 그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 병으로 앉은 자세로 죽음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집착이 많아 그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가능만 하다면 그러고 싶다. 쓰다 남은 원고가 있다면 그 원고를 마무리하고 싶다. 쓰다가 앉은 채로 죽을 수 있다면 더욱 좋고. 삶과 죽음을 둘 아니게 보는 여여(如如)한 생사관으로 선원과 일터, 가정을 오가며 평상심(平常心)의 삶을 살고자 한다.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첨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재료로는 칠판과 괘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담임법사님들께서 교보재로 활용 하시면 좋은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군법당, 경찰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완삼매론

■ 기획 : 예백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겹누비면(먹물)
적삼, 조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180,000
두루막 250,000

면(먹물), 광목
적삼, 조끼, 바지 16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무 명
적삼, 조끼, 바지 220,000 ~ 300,000
동방, 바지 220,000 ~ 300,000
두루막 180,000 ~ 250,000

모 직
적삼, 조끼, 바지 160,000 ~ 200,000
동방, 바지 160,000 ~ 20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마(먹물)
적삼, 조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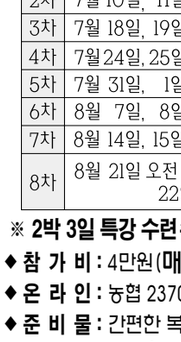
하복지-구김없고세탁 용이
적삼, 조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50,000
두루막 130,000

※ 장삼 200,000 ~ 260,000 조끼 몸빼 60,000 ~ 셔츠 30,000 ~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중간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행복할 길로 초대합니다 ◆
열린다선방 불교대학



반야심경을 알아차리고 체득하는 데에는 남녀노소, 지식, 지혜, 지능은 무관합니다.
고민되는 삶에서 길을 찾아 오직 오롯한 믿음과 수련 수행으로 정신건강, 몸건강, 돈건강 찾아 행복하게 살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다. 마하반야바라밀

황토법당 백마사 주지 정산, 법성 합장

● 반야심경 설법 특강 & 수행안내

1차	7월 3일 오전 10시 ~ 4일, 5일 오후 3시	대학생
2차	7월 10일, 11일, 12일	대학생
3차	7월 18일, 19일, 20일	사부대중
4차	7월 24일, 25일, 26일	가족&일반
5차	7월 31일, 1일, 2일	선생님&일반
6차	8월 7일, 8일, 9일	가족&일반
7차	8월 14일, 15일, 16일	가족&일반
8차	8월 21일 오전 10시 ~ 22일, 23일 오후 3시	가족&일반 &학생

※ 2박 3일 특강 수련 수행정진에 동참하시어 큰 뜻 이루소서!
◆ 참 가 비 : 4만원(매회차 25명 - 공양간 도우미 4명 무료)
◆ 온 라 인 : 농협 237075-52-065685 예금주 : 백마사
◆ 준 비 물 : 간편한 복장, 침구, 세면구, 필기구 지참
◆ 예약문의 : 031)674-7188, 017-203-9400
◆ 교통안내 : 양지 I.C ~20여분 / 일죽 I.C ~10여분 / 안성 I.C ~25여분 소요
고속, 시외버스는 죽산, 안성 하차

황토로 지은법당 백마사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125번지


차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는 다양한 차와 다기를 판매하는 도매시장이 각 도시마다 열려있다.

대륙의 茶문화는 생활자체

'중국차 이야기' 펴낸 김정연 씨




일본인을 위한 중국차 개론서를 펴낸 김정연 씨. 사진=박재완 기자

중국 다예사·평차원 자격증 획득
일상화 된 차문화 엮어 책 펴내
종류·다기 고르는 법 등 정보 가득

"우리나라에서는 다예(茶藝)가 번거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차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격식보다 차 마시는 것 자체를 즐기는 실용적인 차문화가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생활과 밀접한 차문화가 발달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중국 절강농대 차학과에서 중국차를 공부한 김정연(49) 씨가 중국차 개론서 <같은 잎 다른 맛 중국차 이야기>를 펴냈다. 십여 년 전 차에 매력을 느껴 공부를 시작한 김 씨는 다도교실 '동다정(東茶亭)'을 운영하다 2001년 여름 중국으로 떠나 본격적인 차 공부를 시작했다. 청화대학에서 중국어를, 절강농대와 중국차엽박물관에서 중국차를 공부해 초·중·고급 다예사 자격증과 중급 평차원 자격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나니 무료함과 한적함이 밀려들었어요. 생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늘 차와 함께 생활하는 중국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는 2년 동안 중국에서 보고 배운 중국차의 종류와 역사, 10대 명차, 차 우리기와 다기의 선택 등 차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모았다. 녹차와 우롱차, 보이차 등을 우리는 방법과 다기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덧붙였고, 찻잎, 차 우린 후의 모습, 차 시장 등을 찍은 사진도 풍부하게 실어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마지막 장인 '차를 나누고 마음을 열고'에서는 중국에서 어떤 차와 다관을 구입해야 하는지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소개한다.

김 씨는 "중국에서 차를 공부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차를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를 묻는다"며 "국내에는 중국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게다가 잘못 알려진 것들도 많아 중국차를 충분히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개론서를 쓰게 된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책에는 차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가려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일반인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차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는 7월 17일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회'의 품평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한 김 씨는 "우리 차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나무 품종개발과 차 가공법 등 자연과학적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심도 깊은 차 전문서적도 펴내고 싶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중국의 차 도매점 모습

중국에서 차 사는 요령

500g이 기본, 가격 천차만별

중국은 차의 본고장인 만큼 차가 흔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질에 상관없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차를 사고 싶다면 슈퍼마켓에서 구입해도 된다. 보통 슈퍼마켓 1층에 차 파는 곳이 있는데, 정찰제로 운영된다. 국화차는 1봉지에 10위엔 정도고 다른 차는 무게를 달아 판다.

차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경하고 싶다면 중국 각 도시에 있는 대규모 차 도매시장에 가면 된다. 특색 있는 다기와 다양한 찻잎, 보조용품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정찰제가 아니어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통 찻잎은 기본 단위가 500g(1근)이다. 도매시장에서 파는 차는 대부분 포장이 가능하고 차통에 담아주기도 한다. 500g 포장을 10개로 나누어 포장하며 20위엔 정도의 포장비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 유명 호텔의 지하 아케이드에도 다기 파는 상점이 있는데 이 곳 역시 정찰제는 아니다.

북경이나 상해, 항주 등의 도심 한복판에는 '티엔푸(天福)'라는 차 전문상점이 있다. 정찰제라 가격흥정이 자유롭지 않다면 권할만하다. 보통 500g이 기본이지만 30g 소포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다.



우리 사찰 차 모임 — 밀각심인당 진각다도회

지역민의 문화·포교 활동의 장


2003년 10월 열린 종조열반절 추념불사에서 진각다도회원들이 육법공양을 하는 모습.

복잡한 도심 속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서울 성동구에 자리 잡은 진각종 밀각심인당(주교 회정) 진각다실을 찾아보자. 다도회원들이 정성껏 우려 내주는 차를 마시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밀각심인당 진각다도회는 이렇듯 바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2년 문을 열었다. 매주 월요일마다 다도강의가 열리는 진각다실은 교도들과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포교활동의 장이 되기도 한다.

현재 15명의 회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진각다도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차와 예절을 접목한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기초반에 등록하면 절하는 법인 배례(拜禮)부터 배우게 된다. 기본적인 몸가짐을 익힌 후에 행다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옥 사범은 "다도는 차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라며 "예절에 맞는 몸가짐을 익히다보면 자연스럽게 차 정신이 스며든다"고 말한다. 중급반부터는 생활다례인 규방다례와 말차, 선비차 등의 교육이 이어진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초·중·고급반 수업이 각각 진행된 후 모두 함께 모여 앉아 이론교육을 받는다. 차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다서(茶書)를 읽기도 한다. 그 중 '소품 만들기'는 진각다회가 자랑하는 프로그램이다. 다포나 차주머니, 찻잔받침 등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소품들을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보는 것으로, 정서순화에도 좋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통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된다. 다실 곳곳에는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소품들이 놓여 있어 한층 분위기가 아늑하다. 다도회 박영숙 회장의 며느리이기도 한 오유경 사범은 "교우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품을 만들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걱정을 잊게 된다"고 말한다.

종조탄생절과 열반절 등 일 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 육법공양을 펼치고 있는 진각다도회는 오늘도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차인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02)2292-3252

배례 익힌 후 행다…차·예절 접목 체계적 교육
다포·차주머니 등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자랑

인터뷰 박영숙 회장



"심신 다듬기엔 茶가 최고죠"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려내고 지키는데 차만큼 좋은 소재는 없을 것입니다. 차와 예절을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배우고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 이사를 지내기도 한 박영숙 회장은 "요즘 가족 사이에서도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다도를 배움으로써 예절도 함께 몸에 익힐 수 있다"고 강조한다. 차회를 운영하며 차문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박 회장은 "진각다도회 회원들은 차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듬어가는 차인다운 차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품 명 : 가릉빈가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웅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웅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엠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품기능 : 출력(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 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 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엠프 기능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있습니다.
●소비자가 : 5,9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종제작업체 : 성종사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부처님의 법음이 넘치는 륜장(輪藏) 묘음 법륜장(妙音法輪藏)



묘음 법륜장 개금
₩1,080,000 → 864,000



묘음 법륜장 청동
₩550,000 → 430,000

사용법
묘음 법륜장 전면에 사람이 2M이내 접근시 인체감지센서가 감지하면 전자회로가 작동, 에밀레 종소리(3번)와 새소리, 바람소리가 발생과 동시 목탁소리가 함께 반야심경(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 범패작법보유자 김능화 스님)독송이 울려퍼진다. 이때 여의주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1분 1회)LED전구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5색의 찬란한 빛이 여의주표면 글자에 비춰지며 화엄경의 상단부분에 불꽃형상이 나타난다. 작동시간은 4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감지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재작동을 반복한다.

* 본 제품 음성칩은 원하는 음성를 재 취입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특별할인 한정판매

판매처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불성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라

같이 벗어날 수 있다는데…

문 스님 법문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의 마음도 내 마음자리에 놓으면 다 공법으로 돌아가 조상도 후손도 벗어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이치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이 항상 오늘'이라는 말씀을 가끔 드리곤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 말입니다. 오늘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상들의 영령들이건 뭐건 모두, 내 앞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전부 주인공 안에다 다 흡수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가 같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에 살아나가는 데도 걸림이 없고 애로가 없고…. 걸림이 없다 하면 벌써 둘이 아니게끔 융통성이 있게 돌아가서 공생으로 살게 된다, 그러고도 공심 공체 공용 공식으로 걸림 없이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뛰면 빠르고 느리게 뛰면 느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뛰고 안 뛰고가 없이 빠르게 생각하면 되고 빠르게 생각지 못한다면, 이해가 안돼서 느리다면 뭐든지 결정이 안 나고 적응이 되지 않죠. 이해가 돼야 뭐든지 결정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넣으면 넣는 대로 없어진다 해야 되나요? 넣는 대로 둘이 아니다 이런 소립니다. 넣어도 넣어도 늘어나지 않고,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꺼내는 사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령들을 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어서 공심으로 공생으로 공체로 된다면 정말 더하고 덜함도 없이 따뜻하고, 모든 게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으니 평화스럽단 얘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도 가정에서 무척 애들 쓰시고 살 겁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둘로 보지 않는다면, 둘로 하지 않는다면 둘로 보지 않는 것이고 둘로 보지 않는다면 공생으로 되는 것이고, 공생으로 되면 공심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혼자 본다고 해도 혼자 보지 않고 서로 더불어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심으로만 볼 수 있다면 불안(佛眼)이 되죠. 이 육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현실에 보는 거고 심안으로 보는 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그 경지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을 모두 여러분은 모르고도 올라가야 되죠. 모르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알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알게 되고,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공부를 못하고 깨우치질 못했다고 '그거 우린 깨우치진 못해서 그걸 못해!'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동시에 그게 안팎으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습도 벗어날 수 있는 거지만 돌아가신 영령들도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남인데도 영령들이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세세생생을 아주 벗어날 텐데…' 하고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꿈에도 보이고 그냥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 얼른 응해 줘야죠. 응해 주고, 응해 주는 동시에 하다못해 법당에 와서 절이라도 서너 번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인공에다 다 합쳐서 뭉글려서 그렇게 관하시면 아주 좋은 일인 것입니다.

내 마음 주인공 하나가 겨자씨라면 일체제불을 다, 일체제불도 각처 각급에 부처님 상이죠, 부처님의 모습이고. 그런 걸 다 이 가죽 속에다 넣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모시고 쫓아다니면서 받들고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일체 중생들도 다 넣고, 둘이 아닌 까닭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두 일체를 몽땅 다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한 주먹 쥐어다가 넣어도 쥔 사이도 없고 넣은 사이도 없다. 그러면서도 넣어졌다. 또 꺼내서 풀어 줘도 풀어 준 사이가 없이 풀어 줬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며 보살의 법도입니다. 즉 공법의 도리인 것입니다.

외도가 되지 않으려면…

문 스님,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흔히 외도(外道)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외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생활 속에서 진정한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 어떤 이름에 팔린다거나 형상에 팔린다면 그것처럼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외도가 다른 게 외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미신적으로 돌리니까 미신인 것이지 내 마음이 미신이 아닌데 어찌 미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기르십시오.

여러분 마음 속에는 바로 금강 같은, 즉 말하자면 태양 같은 마음의 그 빛이 충만하고 여여하고 아주 원만해서 항상 비추어 줄 수 있고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항상 여여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충만합니다. 광대무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 안에다 불을 켜 놓아서 바깥에 비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독 안에 불을 아무리 켜 놔 보십시오. 바깥으로 비치지 않는 불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림 · 최주현

길을 걷다가도 차를 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기다 코드를 꽂으세요!

여러분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불은 다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다가 코드를 꽂고 안으로다가 믿어야 될 텐데 바깥으로 믿는다 이겁니다. 왜 타의에서 구하고 바깥에서 구합니까? 좌선을 한다고 앉았기만 해서, 또는 경을 아무리 읽고 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마음을 발견하고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도 또 아닙니다. 모든 일체를 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 자유성을 보장하라 이겁니다. 자유성을 보장하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의 부처를 믿으면서 거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성의 에너지는 모두가 같이 돌아간다는 거, 무궁무진하다는 거, 원만하고 광대무변해서 언제든지 어느 때고 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늠름하고 여여한 것을 왜 내가 바깥에서 구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꼬박 앉아서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한다고, 그냥 꼬박 손을 꽂고 나 좀 잘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잘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걷다가도 차를 타면서도 똥을 누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항상 내 마음 그 가운데에 있는 거기다 코드를 꽂으셔야 합니다. 참불성 자체는 꺼지거나 켜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가발전소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그 자가발전소의 그 에너지는 무한량 나올 수 있는 에너지며 바로 밝은 달과 같고 해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여여한 자부처의 그 늠름하고 여여함을 두고도 코드를 거기다 꽂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코드를 안에다 꽂으십시오. 그리고 이름은 아무 이름이라도 좋지만 "관세음보살!" 하고 이름을 부르면 벌써 바깥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인공!"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것도 이름입니다만 자기 안으로 "주인공! 당신은 여여하고 원만해서 뭐든 두루두루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다 비칠 수 있고, 여여하게 이 능력을 줄 수 있지 않아?" 하고선 안으로 들이대세요, 생활불교를 하시려면.

만날 남한테 빌고만 다니지 마시고 무슨 "잘되게 해 주십시오. 재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슨 삼살방이 들었으니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또 어디가 막혔으니, 북쪽이 막혔으니 이사를 못 가겠는데 어디로 잘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미신이 어딨습니까? 이런 외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데도 급급하고, 사랑을 하기에도 24시간 동안에 5분이고 10분이고 진정 사랑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쳇바퀴 돌듯 살아나가기도 어려운데 그것까지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이 여러분대로 사람이 돼서 나오기도 어렵거늘, 사람이 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냥 부적을 써서 불여서 재수가 있게 한다, 아픈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부적을 붙인다, 관재구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부적을 붙인다,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자기 마음에 모든 일체만법이 다 있거늘 어찌 그런 행을 합니까? 모르고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 모르고 하는 것을 알게끔 자기가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르고 그런 망발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즉 그 나쁜 행을 하는 것을 따라간다면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가 노력을 해 봤던들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윤회에 걸려서 항상 끄달리면서 그 삼계의 고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삼천대천세계의 우주법계를 다 싸고도는 이 대표인으로서의 인간이 없다면 대표인이 못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 그 법계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근본인 그 마음의 주처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응하면서 이 정원을 꾸며 놓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체가 다, 지구덩어리 하나가 바로 우리들 집입니다, 안식처고. 그런데 단란하게 살고 여여하게 살지 못한 채, 남한테 이런 소리 듣고 바람이 부는 대로 쏠린다면 갈대와 같은 거지 어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으면 이 지구덩어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법계가 다 내 한마음에 들어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나

문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요? 이 몸이 형성이 될 때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화를 잘 내고 물이 많은 사람은 물 같고 그렇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이 지수화풍이 뭉쳐서 된 거라고 하는 이치에 맞는 것인지요.

답 처음의 근본은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다 똑같지 않게 되는 게, 그것이 자기가 한 생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 때에 속상하다고 그냥 남을 때리고 발길로 차고 또 물어뜯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닌 짐승의 모습일 때는 물어뜯고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그것이 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 불은 불대로 찾아가고 흙은 흙대로 찾아가고, 그래서 생겨날 때는 다시 인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거는 절대로 안되는 일이다' 이러죠, 왜? 사람의 법칙으로는 이런 걸 정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할 수 없다'는 없거든요, 거기에는. '안된다'도 없고 또 그 반면에 '된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자유권을 얻는 거지 그렇지 않고 된다가 있고 안된다가 있으면 어떻게 자유권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이러니 저러니 하기 이전에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나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해나간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어놓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계기가 다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글거리는 것 같아

문 스님, 저희 집안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제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고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안의 조상님들을 모두 천도시키고 저의 집안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답 우리가 딴 혹성을 보려고 한다면 가서 보는 사이도 없이, 들고 와서 보는 사이도 없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정신계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와 정신계가 혼합이 돼서 같이 수레가 돌아가듯 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같이 둘 아니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습니다.

수차에 얘기를 드렸지만, 수억겁을 내려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나온 것이 우리들의 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 년 전, 삼만 년 전이라도 그것은 내 부모였으니까, 내 자식이었으니까 이것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오늘.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공부를 할 때는 모습이 있어야만 부딪침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모습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탑을 만들어서 조상들을 모시게 하는 것도, 모습이 없으니깐 그 탑에 모습을 두고선 모두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탑을 지금 가지고 다니니까 내 탑 속에다 다 넣어도, 이 세상 만법의 만 중생들, 만 부처님들, 이런 분들을 다 넣고 다녀도 손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치를 통틀어서 아시려면 이걸 따라서 돌아니게 그냥 잡고 그렇게 해 가시면 그게 저절로 바탕이 되고 저절로 길이 터지고 저절로 그 길이 어느 길인가 알게 됩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남으로 인해서 내가 배우는 거죠.

악도 선도 둘이 아니다. 그럼 악은 악대로 악하게 구는데, 만약에 나한테 따귀를 때리고 악하게

☞30면으로 계속

☞29면에서 계속

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따귀 맞고 한 번 관해 주는 거죠, 뭐. 전자에 자기가 그 사람을 한 번 때려 줬으니깐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인연 없이 그렇게 오는 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가 한 일이 없고 받은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남을 해하게 했으니까 나한테 해가 돌아오지 해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해한 일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지금은 알게 모르게 그냥 정신을 뺏어가고 정신을 치고 그러니까 모습도 망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도 자꾸 이렇게 관해 주면 그냥 바뀌져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해서 바뀌지니까 외려 미안해하고 그렇게 돌이켜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대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도 선한 대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과 선을 다 놔라. 잘하는 것만이 선이라고 그러지만 잘하는 것만 있다면 나중에 잘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깐 잘하는 거나 잘못하는 거나 다 놔라. 다 놓고 그 가운데서 너의 결정을 해라. 그 가운데서 너의 결정을 하되 항상 중심을 두고 중도를 택해라. 남을 해치지도 말고 나를 해치지도 말고, 또 일체 부처를 원망하지도 말고, 일체 조상들을 원망하지도 말고.' 그러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못 돌아가셨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게 죽었다거나 6 · 25때 죽은 그런 사람들, 물에 빠져 죽었다든가 목을 매서 죽었다든가 이런 분들도 그냥 아무리 어렵게 살았고 아무리 악하게 살았고 잘못하고 살았고 그래도 이것이 그냥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우글거리고 집안에 외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인공 자리에다 모든 거를 넣으면 그냥 바뀌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악과 선을 다 놔라

다 놓고 그 가운데서 너의 결정을 해라
결정하되 항상 중심을 두고 중도를 택하라

연등불의 의미는?

문 삼세의 부처님이라고 하면, 현재불인 석가모니불과 과거불인 연등불, 미래불인 미륵불을 통념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직접 현세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미륵불은 우리가 추구해 가야할 궁극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불인 연등불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 연등불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자불을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자기의 부처님이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불의 연등이라는 뜻은 그렇게 초를 태우듯이 자기를 태움으로써 그 불을 더불어 같이 밝혔으니 연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등부처가 '너는 모두를 종합해서 너는 석가모니가 돼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더러 그런 거니까 주고받은 사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연등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동시에 둘이 아니라는 뜻을 연등으로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들의 근본, 그 근본이 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불성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라. 물러서지 말라. 불성이 없다면 상 해 보면 자기가 아는 분야나 자기가 해 본 일 말고는 그렇게 생각의 영역이 넓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깨치신 분들과 우리 범부중생들의 마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답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처음 1년간은 공통으로 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들 공부합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어떠한 한 계단을 잡을 때까지는 똑같이 공부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1년은 다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을 전공했다 한다면 과학으로 전진을 해서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과학으로 갑니다. 그런데 철학으로 가는 사람은 철학으로 가고 공업으로 가는 사람은 공업으로 가고, 정치학으로 가는 사람은 정치학으로 가고, 그래서 의학으로 가는 사람은 의학으로 가고 이렇게, 1년은 똑같이 배우고 난 뒤에 그렇게 갑니다, 자기 전공대로.

그런데 그 전공대로만 그렇게 가는 그 도(道)는 부분적인 도고, 전체적인 도가 바로 선지식들이 공부하신 그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 칼 하나만 가지면,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넓히느냐 좁히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만 전공해. 이런 걸로 전공을 해 나가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면 고 부분 내에서만 그 칼은 쓰여집니다. 이 생각이 넓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거만 전공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 칼은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다 다양하게 이 우주를 싸고 내가 운행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은 바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구나. 바가지로 담으면 한 바가지가 돼서 하나가 되고 엎으면 바로 전체를 덮고, 제껴서 돌리면 담을 수도 있고 쏟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내 활용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 무궁무진한 것이며 그대로 삼천대천세계를 한생각에 녹일 수도 있고 한생각에 그 삼천대천세계의 그 업덩어리를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것이 참 묘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가지고 전공을 했다면 과학의 도(道)고, 도 아닌 게 없으나 전체적인 걸 가지고 나툴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럴 때, 내가 과학으로써 뭔 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면 과학자로서 나투고, 철학자로서 나투고, 공업으로 나투고, 정치로 나투고, 이거는 의학으로 나투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할 때에 나라고 세울 수가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설법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난 한 마디도 안 했노라." 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나투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거를 하고 때에 따라선 저걸 하고, 때에 따라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이렇게 자꾸 나투면서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평등 공(空)으로서의 나툼이죠. 그래서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하면서 사생자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전체를 껴잡고 가는 공부나, 그거 하나만 껴잡고 가는 공부나 공부하는 건 똑같습니다 마는 생각을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즉 마음으로서의 지혜를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똑같은 공부를 했으나 이 칼 아닌 칼이 아무 데고 다 쓰여진다는 거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칼은 칼이 아니라, 칼이라고만 말을 할 수도 없고 나무때기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건 빗자루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깐 한 바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일산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이, 나중에는 그 칼이 우뚝선 것만 칼이 아니라 이게 전체 둥글려진 이 자체가 바로 그대로 공(空)이 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 공은 공대로 때에 따라선 칼이 될 수도 있고 주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작대기가 될 수 있고 물이 될 수 있고 불이 될 수 있고 바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공기가 될 수도 있고 산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생명이라도 다 나툴 수가 있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나툼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리는 자기가, 그것도 이름해서 깨쳐보지 않으면 맛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팔방미인이신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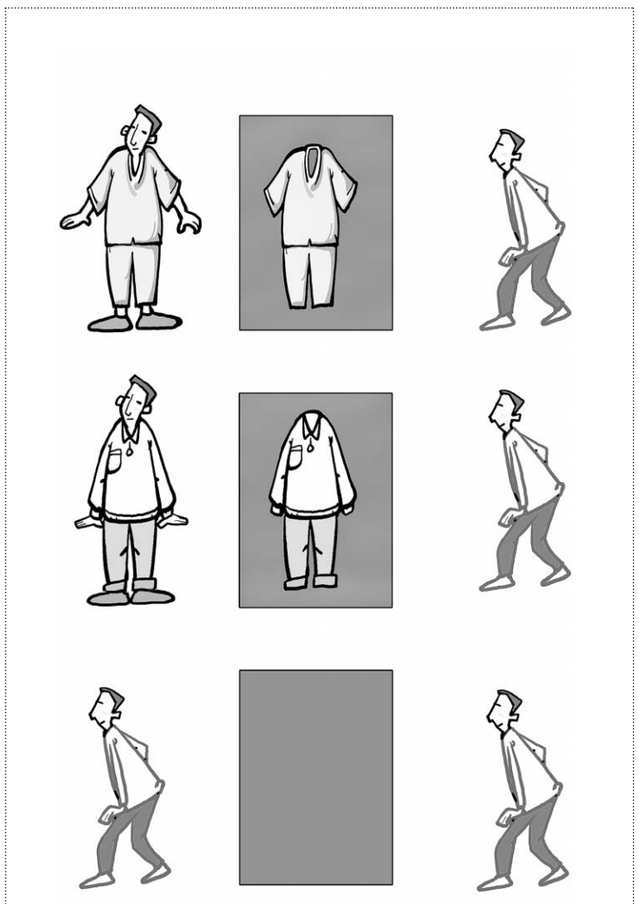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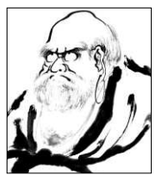
깨친 사람과 나와의 차이

문 이 마음의 도리는 무궁무진해서 어떤 걸로도 다 활용하여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막

송장이 된다." 초가 없어도 불이 없고 불이 없어도 초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없어도 불성이 없고 불성이 없어도 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줄 알라. 알면 그냥 믿고, 그렇게 일거수일투족 다 그놈이, 불성이 하는 것이라고 믿고 거기 놔라. 그러면 몸과 그 불성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럴 때에 그게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자라는 게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모자라는 게 없다면 갖출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거 잘하는 거, 악한 거 선한 거, 긴 거 짧은 거, 못난 거 잘난 거, 잘사는 거 못사는 거, 어려운 거 어렵지 않은 거 모두가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의 몸이라고 그래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니라. 너희들과 똑같이 아프고 너희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넉넉하게 어려움이 없이 그냥 걷는 걸음과 모르고 그냥 아이구! 하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걷는 걸음과는 다르겠죠.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바로 일대사의 인연으로 둘 아니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년 전으로도 갈 수 있고 몇만 년 후로도 갈 수 있고 현재로도 항상 계시면서 너다 나다 할 것도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氣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불행한 운명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중생은 그 불행한 운명이 자신의 몸속에서 떠나야만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다.
관음사는 아프고 고통받는 중생들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스님과 상담하고 기도하는 법당이며 스님은 삶의 굴곡을 겪고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그 답답함과 고민을 스님의 도력으로 그 불행한 운을 퇴마시켜 시원하게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 굿을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나 부모자식간에 원진이 끼어 서로 같이 살면서도 고통속에 살며 자식이 결혼운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
- 집터나 가게터가 장사가 안되고 매매가 안되 궁금하신 분
- 인생의 성공과 실패 시험결과, 사업의 시작과 끝 즉 자신의 사주에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궁금하신 분
- 신들림으로 몸이 아프거나 실성하고 헛소리나 행동을 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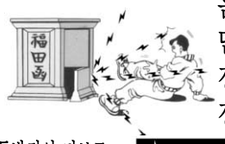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다합니다.
아직 인연이 당지않는 분들 혼자서 고민말고 바로 전화 주십시요.
조상천도 낙태아천도 병고를 가져오는 객귀물이를 돈이 많이 들어 망설이시는 분 연락주시면 보시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봉행 하겠습니다.
천도란 첫번째는 3악도에 떨어져 있는 가장 어려운 중생을 구제하고 두번째는 인간몸을 받았지만 뭐든지 되는 노릇이 없고 내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천도란 자기소원을 이루고 가지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님을 친견하면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관음사 주지 고봉 합장
전화 011-715-6333
불사에 어려운 스님 사주통변비법과 기공과 영상으로 영가천도를 하는 염력천도비법을 개인지도 합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혈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고혈압, 고지혈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2달분 258,000원

- 개발약사 약력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1965년 효성카톨릭 대학교 약학과 졸업
▶1977년 홍제학 연구소 설립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한빛한국본부 당뇨 연구실 경영중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구입신청 033-255-5669 안티하이퍼

평균습도 90%, 눅눅한 장마철



"보송보송하게 살자"



습기로 인한 변기악취는 식초와 물을 희석한 액체를 부어서 제거한다.

눅눅하고 꿉꿉한 공기가 이곳저곳 스미는 듯하더니 이내 장마가 시작됐다는 일기예보가 전해졌다. 1년 강수량의 30%가 몰리는 장마철에는 평균습도가 90%에 달해, 습기로 인한 크고 작은 질병과 피해들이 잇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매해 반복되는 습기와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몇 가지 예방책과 사후대책만 숙지하고 있어도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다. 끈적한 장마철을 보송보송하게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생활관리



행주는 100도에서 10분이상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8분이상 가열해 충분히 살균한다.

젖은 행주 10분 이상 삶은후 건조
법당 안 제습기 비치, 수시로 통풍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주방 위생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젖은 행주는 6시간 뒤 대부분의 균들이 증식을 시작하고 12시간 뒤에는 세균이 100만배 이상 늘어나는 등 세균 번식의 온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습기가 유독 심한 장마철에는 세균박멸을 위한 행주 소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루 1회 100도에서 10분 이상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8분 이상 가열해 충분히 살균하도록 한다. 또한 사용한 행주는 깨끗이 세척한 후에 반드시 건조해서 보관하고, 가급적이면 행주보다는 세균 제거력이 높은 키친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장마철의 또다른 골칫거리는 바로 악취. 배수구와 변기 악취는 식초와 물을 희석한 액체를 흘려 부어서 제거한다. 냉장고 냄새는 녹차찌꺼기나 태운 식빵을 넣어두면 해결된다. 마른 행주에 에탄올을 묻혀 구석구석 청소하는 것도 세균번식의 억제를 위한 좋은 방법.

사찰의 법당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소형 제습기와 방충 · 방균제를 곳곳에 비치하도록 한다. 볕이 나는 날에는 법당 문을 수시로 열어 통풍을 시킨다. 또한 절마당의 배수구가 흙이나 이물질 등으로 막힌 곳이 없나 꼼꼼히 살펴보고 홍수시에 물이 역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비탈진 지반 위에 위치한 사찰의 경우 축대붕괴 등의 안전사고 역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건강관리

장마철의 습기는 곰팡이와 세균번식을 도와 식중독의 위험을 불러일으킨다. 음식은 안전하다 하더라도 오염된 손을 통해 균이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설사 증상을 보이는 장염의 발병 또한 잦다. 설사가 지속되면 몸의 수분과 전해질이 필요이상으로 빠져나가는 탈수현상이 잇따른다. 탈수에는 물 1 리터에 소금 반 차술, 소다 반 차술, 설탕 2 큰 술 정도를 섞어 만든 전해질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일주스는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하지 않는다.

장마철에는 세균성 피부염의 발병가능성도 높다. 털이 있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모낭염이나 상처가 난 후 2차적으로 감염되는 피부질환 등의 세균성 피부염은 습한 환경에서 최적의 번식조건을 갖는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평소 청결상태를 철저히 유지하고 작은 상처라도 반드시 소독하도록 한다.

식중독, 세균성 피부염 발병 잦아
음식 익혀 먹고 몸 청결하게 유지

장마철이나 태풍이 부는 계절에는 류머티즘도 악화되곤 한다. 기압이 낮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이다. 매일 목욕탕에 들어가 관절을 많이 움직여 주는 것이 유일한 예방이자 해결책이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불법실천의 든든한 동반자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1>

이추월 보살네



언제나 '한마음'으로 수행하는 이추월(가운데) 보살 가족.

가족 구성원 5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작은 법회'를 연다. 아버지는 법문을 준비하고 어머니는 법회의 진행을 돕는다.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자식'을 넘어 '도반'이 된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공부한 불법에 근거해 기탄없는 토론을 벌인다. 여유로운 주말의 늦은 저녁, 이추월 보살 가족의 안방 풍경이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자연스러운 모임이 됐어요. 부처님 법 만난 인연으로 가족의 정까지 키워갈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만 아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불법의 씨앗을 옮겨 심어, 남편 김시원(56) 거사의 쉼없는 기도를 이끌었다. 김 거사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가족법회에 나간 이후 불법에 감화받고 10년이 넘도록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집에서 직접 예불을 올리고, 틈날 때마다 불교방송 청취와 각종 법문집 정독을 쉬지 않는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큰 딸 윤주(32)씨는 일본의 동붕불교대학에서 2년 간 불교를 공부할 정도로 신심과 열정이

아내의 신도회 · 포교활동에 남편 감화 '동반'
매주 일요일 이웃 어른들 모시고 법회 참석

조계종 포교사 사이에서도 신실한 불자로 이름높은 이추월(55) 보살. 이 보살은 불교 때문에 화목한 가정의 시금석을 다질 수 있었다며 불연(佛緣)의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 불교를 전혀 접할 수 없었던 이 보살은 '스님이 알이 굵은 염주를 주는' 태몽을 꾼 이후 불자가 됐다. 이후 조계사 옆에 위치한 병원으로 치료를 다니던 중 우연히 조계사에 들르게 됐고 언제부턴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매일 1000배씩 하는데도 힘들기는커녕 환희심에 나날이 즐거웠어요. 몸의 병도 말끔히 낫게 됐구요."

이 보살은 이후 조계사 신도회, 포교사단 어린이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행동하는 불자로 거듭났다. 뿐 남다르고, 아들 승모(30) 씨는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수행에 매진한다. 막내 해선(26) 씨는 조계사에서 어린이법회, 학생회, 청년회 활동을 두루 이어온 열혈 불자. 세 남매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불교사랑은 '작은 법회'에서 같은 모습으로 확인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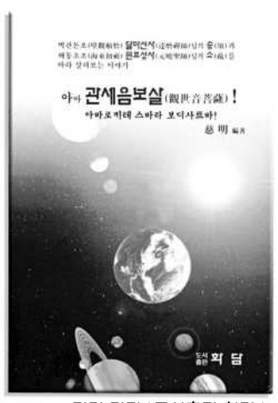
이 화목한 불자가족이 최근에는 새로운 신행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웃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상사에 들러 법회를 보기 시작한 것. 20여 년 전부터 키워왔던 지극한 불심을 어르신들 또한 직접 체험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에서다. 이 보살 가족의 소리없는 포교가 불국토 건설로 이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

강신재 기자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 2회)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그대들이 진정 "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을 아시는가?
아아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아바로키테 스바라 보디사트바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과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를 따라 살펴보는 이야기
참으로 부끄럽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수행인(修行人)임을 자처하는 저의 죄가 너무 크옵니다.
금과옥조(金科玉條)와도 같은 그 제1계"불살생계(不殺生戒)"의 뜻 하나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하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
여기 하 답답한 나머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살기는 마찬가지인 이 오탁악세(五濁惡世)에 ...

"관세음보살"은 정녕 어떻게 하여 스스로 오안(五眼)과 삼덕(三德), 즉 반야(般若) · 해탈(解脫) 법신(法身)을 구족(具足)하여 제도 하셨던가.
해동초조(海東初祖) 원효성사(元曉聖師)님의 소(疏)와 벽관돈오(壁觀頓悟) 달마선사(達磨禪師)님의 송(頌)을 빌어다가 다시금 현실에 사무쳐 되새겨 보는 것으로 감히 무상참회의 서(序)로서 삼고자 합니다.
자명 편저 / 도서출판 화담 / 신국판 137쪽 / 값 10,000원
● 보급처 : 불교서적 총판 법우당 02)994-4437
● 문의처 : 043)851-1080, 팩스 043)853-8909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자매품
태국산 그린망고 후레쉬 14과 60,000원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봉선사의 전각들.


봉선사천은 생태계의 소중한 생명줄이다.


전나무 군락을 지나노라면 자연스럽게 사색에 빠지게 된다.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24) 운악산 봉선사

5백살 느티나무가 일주문


수련과 노랑어리연꽃, 창포 꽃창포 개구리밥 등이 어우러진 봉선사 앞 연못.

매미가 울기 시작할 때 운악산 봉선사로 떠났다. 사람들은 운악산 하면 현등사가 있는 가평 운악산(雲岳山)을 먼저 떠올린다. 두 산은 엄연히 다른 산이지만, 한 줄기로 멀리 이어져 있다. 현등사가 앉은 가평 운악산(936m) 줄기가 남하하면서 주금산(813m)-죽엽산(610m)-수리봉(536m)을 세운 것이다. 봉선사가 앉은 운악산은 죽엽산과 수리봉 중간에서 자리하고 있다.

고려 광종 때 법인 국사 탄문(法印國師 坦文)이 이곳에 처음 절을 창건하고 '운악사'라 했다는 기록을 보면 아마 산 이름도 그때부터 불러지기 시작했으리라 짐작된다.

퇴계원과 장현을 지나 능내 삼거리에 이르면 봉선사천이 왕숙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광릉수목원 덕분에 다행히 자연 하천의 모습을 유지해온 봉선사천. 봉선사천은 이 지역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로서의 기회요소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소중한 생명줄이다. 아직도 인적 드문 곳으로 가면 물총새와 원앙이 새끼를 치고 멧돼지와 고라니가 목을 축이러 내려온다.

그러나 근래 들어 봉선사천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 1급수였던 수질이 최근 4지점 조사에서 평균 BOD가 4ppm으로 나왔다. 특히 식당촌 아래는 3급수(6ppm 이하)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발을 물에 담글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악화된 것은 몇 년 사이 상류에 위락업소들이 하수를 함부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천시에서 지난 봄 위쪽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다. 난개발을 부추기지 않았더라면 그런 공사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봉선사 진입로에는 떡갈나무 신갈나무 양버즘나무 전나무 등등의 키 큰 나무들이 줄을 짓고 있지만 왼편에 큰 주차장이 생기면서 생태 경관이 예전보다 크게 나빠졌다.

봉선사 주차장은 아스콘 주차장이다. 공사가 간편하고 돈이 적게 들고 공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찰처럼 손쉽게 아스콘을 덮었다. 주차장을 보다 생태적으로 만들 순 없을까 하는 고민은 봉선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찰에 공통적으로 요구된다.

주차장 위로 근래 조성한 연못들이 연이어 있다. 연꽃 수련 어리연꽃 창포 꽃창포 부들 가래 개구리밥 등등의 수생식물들이 자란다. 연꽃은 아직 멀었지만 수련과 어리연꽃이 때맞추어 만발했다.

수련은 꽃잎이 밤에 접어드는 습성이 있어 '잠자는 연꽃(睡蓮)'이라고 한다. 흰 꽃만 토종일 뿐 나머지는 모두 외래개량종이다. 어리연꽃은 노란 꽃이 피기 때문에 노랑어리연꽃이라고도 한다. 수염 모양을 한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어 번식하며 그 뿌리에서 가느다란 줄기가 나와서 물 속에서 비스듬히 자란다. 연못 주위로 노랑허리잠자리 밀잠자리 왕잠자리 실잠자리 등 몇 종류의 잠자리들도 관찰된다.

연못에는 여러 마리의 붉은귀거북이 물위로 올라와 둥둥 떠다닌다. 이따금 물에서 올라와 등짝을 말리지 않으면 등짝에 이끼가 달라붙는다. 붉은귀거북은 미국에서 건너와 우리의 고유한 생태계에 말썽을 일으키고 다니는 녀석이다.

연못들을 둘러보며 느낀 아쉬운 점은 연못 주변에 나무가 없다는 점이다. 연못가에 수변림(水邊林)을 조성해 놓으면, 수온 상승을 억제하여 물의 부영양화를 더디게 하고 곤충이나 물고기들의 먹이를 풍부하게 하고 산란과 은신처를 제공한다.

수변림으로 알맞은 나무로는 버드나무 수양벚나무 낙우송 메타세콰이어 개나리 수수꽃다리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버드나무는 '양류관음(楊柳觀音)'이라 하여 절집의 연못에 잘 어울리는 수종이다.

봉선사는 문이 없는 절이다. 5백년 된 느티나무가 일주문 기둥을 대신한다. 설법전 앞 쉼터 주변에는 키 큰 달피나무(염주나무)를 비롯해 은행나무 수양벚나무 등나무 일본목련 등이 있다. 가을이면 신도들이 달피나무 열매를 주워 염주를 만들어 판다.

봉선사의 대웅전 편액은 '큰법당'이다. 운허스님의 불교대중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현판이다. 큰 법당 주변으로 여러 그루의 밤나무가 때맞추어 꽃을 피웠다.

큰법당 뒤로 돌아가면 화계(花階)가 있다. 다듬은 장대석을 이용해 쌓은 화계는 궁궐에서나 볼 수 있을 뿐 절집에서는 보기 드물다. 봉선사는 왕의 원찰이었던 만큼 전각들이 궁궐이나 양반주택을 많이 닮아 있다.

화계는 글자 그대로 꽃으로 장식한 계단이다. 봉선사는 대대로 교종사찰이었기 때문에 선찰에 비교해서 조경이 좀 화려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화계는 외래 원예종인 영산홍 일색이다. 자연성을 살려서 우리 야생화들을 심어 꽃 공양을 하면 좋을 것이다.

봉선사는 앞산과 뒷산이 모두 광릉수목원과 접해 있어서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튼실하다. 광릉수목원-광릉-봉선사를 잇는 일대의 숲은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천연학술보존림지역이다.

봉선사 앞산은 광릉수목원 경내다. 세줄나비 한 마리가 철망에 붙어 오수(午睡)를 즐기고 있다. 세줄나비는 초여름에 나타나는 네발나비의 한 종류이다. 검정색 날개에 흰 띠무늬가 세 줄 나있다.

철망 안으로 건장한 전나무들이 숲을 이룬다. 숲 사이로 흐르는 개울에는 씨알이 작은 버들치들이 한 가로이 노닐고 대낮인데도 가재들이 기어 다닌다.

봉선사 뒤 숲은 비교적 층위구조가 튼실한 편이다. 임상에는 애기나리 노루발풀 꿀풀 여름싸리 둥굴레 고사리 꿩의다리 족도리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아교목으로 당단풍 산초나무 생강나무 개옻나무 등이 있으며, 교목으로는 잣나무가 우점하는 가운데 소나무와 전나무가 어우러져 자란다.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가 만들어내는 이 숲길은 등산로라기보다 사색을 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이다. 이 숲길을 걸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풀과 나무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 좋다. 경행하듯이 깊고 그윽하게 걸을 일이다. 봉선사 사부대중이 이 숲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이 숲은 분명 봉선사의 큰 복이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3급수로 전락한 봉선사천, 야생동식물 생태계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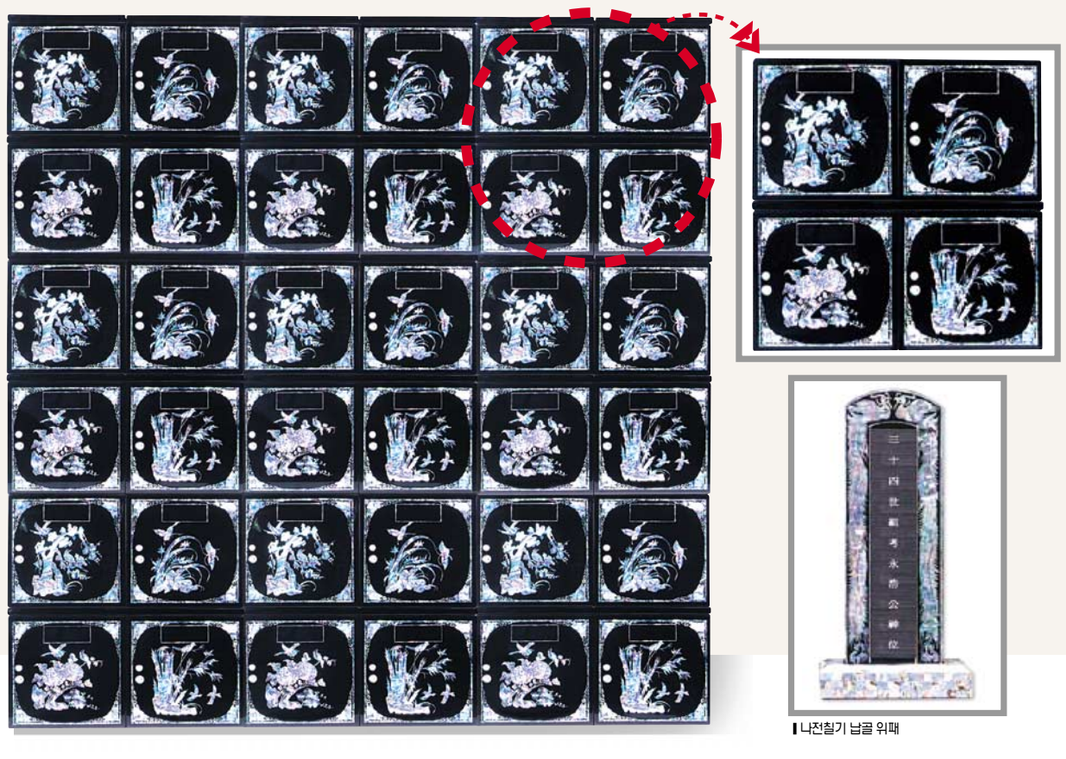
화계(花階)·전각 등 교종 사찰 면모 곳곳에 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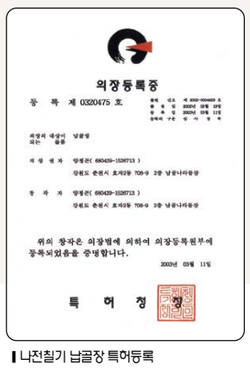
광릉수목원-광릉-봉선사 잇는 천연 학술보존지역


꽃으로 장식한 계단이란 의미를 가진 봉선사 화계(花階).

납골장 **나전칠기(사군자) 공법으로 제작한 고급 모델**

수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 장엄한 전통나전칠기공법으로 납골장을 제작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납골장의 미려함과 습기, 결로현상의 완전 제거 기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전칠기 납골 위패


나전칠기 납골장 특허등록

전국 사찰, 법당안에 납골당 설치 정당 (합헌 결정)

지장보살전, 명부전, 기존 건축물 ... 납골장 설치 가능
행정기관이 「건축 후 납골당 용도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사찰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주지 임연구)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법당에 대한 건축허가임에도 동구청이 '납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부관을 부서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집회장인 사찰에 납골당을 설치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해당되더라도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납골당 설치가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기존의 건물을 이용한 납골시설 설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아직 혐오시설로 인식해 그 설치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허용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무등산에 위치한 문빈정사는 2001년 9월 29일 극락전 법당과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증축한 뒤 이듬해 1월 4일 법당안에 약 900기 규모의 납골함을 설치하려고 신고를 했으나 동구청이 건축허가 당시 '납골당 용도로 사용불가'라는 조건에 위반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돌잠 DOLJAM
납골장, 납골묘 제작 시공 전문업체
나전칠기 납골함, 위패 제작판매
(의장등록증 발급)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8-52번지
납골나라 돌잠 080-232-4444
H·P 011-365-0202

※ 나전칠기 및 상감기법 납골장 전시관 상시운영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확인하십시오)